



온라인에서도
(KTX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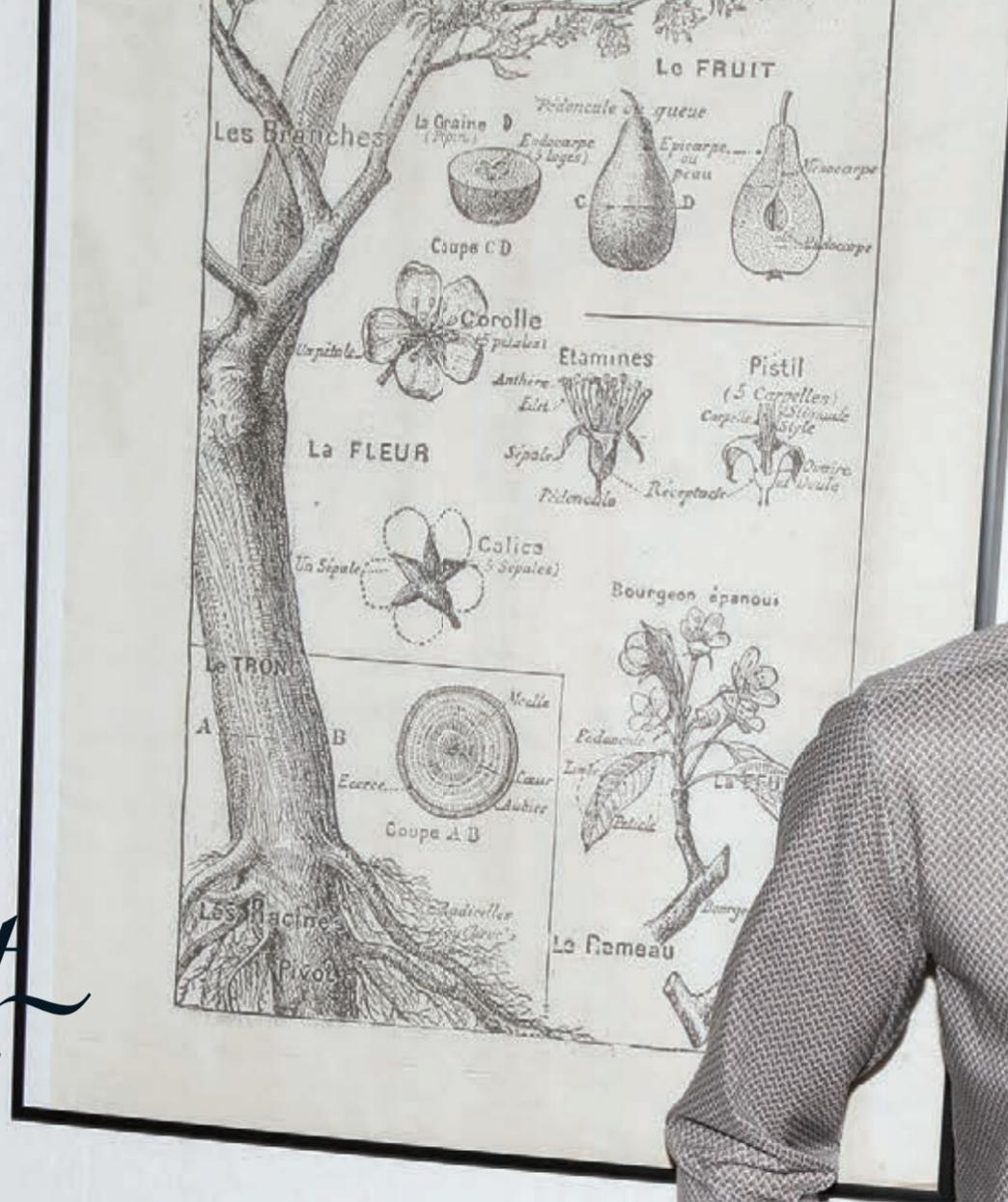
KTX

SEPTEMBER 2022



영롱한 시절, 영주 ● 금빛 찬란한 땅속 세계, 광명동굴 ● 커피 도시 부산 탐방

S.T. Dupont
CLASSICS





036

테마 여행 영주

가을의 풍류를 즐기러 경북 영주를 찾았다.
2022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풍경도 미리 만났다.



054

기차 타고 영월

방랑 시인 김삿갓의 고장, 강원도 영월에서
땅과 하늘을 훑어 반짝이는 이야기를 발견했다.



AHILO

2022.09

010
상식 백과

창경궁과 종묘가 다시 연결되었다.
사연 많은 궁궐, 창경궁을 알아봤다.

014
콕콕 스탬프 여행

등대 스탬프 투어 세 번째 코스가 나왔다.
'인생 등대'를 건지러 길을 나선다.

012
잡학 사전

빨리, 높이, 멀리 경쟁과는 다른
이색 대회가 지구촌 여기저기서 열린다.

018
에디터 체험기

굽거나 가열해서 간편하게 먹는
명절 음식을 네 명의 에디터가 맛봤다.

066

이 계절 이 여행

어둠에서 빛을, 과거에서 이야기를 캔다.
경기도 광명 광명동굴에서 금빛 찬란한 지하 세계로 모험을 떠났다.



020
맛집 탐방

에스프레소부터 카테일까지 색다른
카페 메뉴를 찾아 부산 중구를 여행했다.

074
먼 나라 여행

일본 홋카이도의 이 계절 자연이
겨울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 주었다.

082
문화 돋보기

장애인과 장애인의 삶이 낯선 이에게
여기 모은 15가지 콘텐츠를 권한다.

092
코레일 초대석

777미터 장대화물열차 시험 운행으로
한국 철도 역사는 새롭게 쓰였다.

KORAIL INFORMATION

- 102 한국철도 소식
- 110 편의시설 및 부가서비스
- 112 열차 이용 안내
- 114 비상시 행동 매뉴얼



"Hong Kong in Miniature" Exhibition

홍콩 미니어처 전시회@SEOUL

2022.9.24.(토) - 10.3.(월)

코엑스 1층 동문 로비, Sector D

10:00-20:00

무료전시

*9.24.(토) 16:00부터 입장 가능



COVER STORY

경북 영주는 과연 선비의 고장이다. 바위에 얹은 듯 세운 금선정은 기동 길이가 저마다 다르다. 그곳에 잠시 앉아 깎아지른 바위 사이로 시원스레 쏟아져 내리는 금계천을 본다. 글 강은주 사진 신규철

<KTX매거진>은 시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서 들려주며, 60여 개 언어로 번역도 지원합니다. 자동 번역기를 사용하기에 번역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문의 홍콩 미니어처 전시회
E-mail hkminiature@siwall.co.kr
TEL 02-323-4503



들어가는 글

100번째입니다

부지런히 보고 들었고 썼습니다. 9월호가 저에게 이 잡지 딱 100권째입니다. 산·바다·섬·마을·유적·전시관 곳곳을 다녔습니다. 하루 이틀 짧은 시간 취재하고 글로 써야 하니, 제 글이 아직 그곳을 모르는 독자님께는 첫인상이 되리라는 마음에 모든 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그곳을 알거나 거주하고 계신 분께서 읽었을 때에도 고개 끄덕이고, 나아가 새로움을 발견할 만한 글을 쓰려 했고요. 바다 또 바다, 산 또 산을 가셔도 매번 다른 이야기를 보고 듣고 생각하고 돌아왔어요. 그 덕분에 그달 그달 문장을 건져 올렸습니다.

고래가 살았다는 바다에서 썼습니다. “분명 사람보다 큰 뭔가가 저기에 산다. 그러지 않고야 바다가 저 혼자 그토록 넓고 깊을 리 없다.” 바람 부는 밤바다에서 썼습니다. “밤늦도록 바람은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나란히 선 나무들은 속수무책으로 흔들리면서도 용케 자리를 지켰다. 들던 대로 대단한 바람이었다. 섬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바람이 아니라 뿌리의 단단함이 문제라고.”

절에서 썼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면 내 자리며 다종다양한 숫자를 붙들고 오만과 불안 사이를 왕복할 터이나 여기서는 잠시나마 다른 사람이 된다. 천 살 먹은 돌탑이 불에 그을었거나 귀퉁이가 깨진 흔적에 마음이 아픈 사람, 새가 파드닥하고 날갯짓하는 아주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 내 안의 그런 사람을 만나러 이 외진 가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구나 싶다.” 바위 계곡 위, 달을 이름에 품은 정자에서 썼습니다. “흰 바위에 달빛이 내려앉으면 어떤 신비로운 색을 낼까. 바위에 움푹 팬 크고 작은 웅덩이에 비친 달은 또 어떠하고. 사람 손에 쥐기 불가능하고, 쥘 해도 이득이 없을 무언가를 바라보고 그리워하고 즐기는 일이 삶을 아름답게 한다고 뇌어 본다. 이 마음을 나누자고 옛 선비는 정자를 지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걸으면서 썼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걷다 아예 멈춰 서는 경험은 작은 사치다. 출퇴근만으로 인생을 채우지 않겠다는 사치.” “걷는 자는 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구부러졌거나 곧거나, 넓거나 좁거나, 예쁘거나 평범하거나, 편하거나 불편하거나 그저 가야 한다. 마음에 드는 곳을 천천히 걸을 수는 있어도 내게 별로라 하여 어느 구간을 생략할 수는 없다. 걷기는 정직하다.”

100권 만드는 동안 정말 많이 배우고 썼네요. 9월호에도 영주, 영월, 광명으로 떠나 그곳만의 풍경과 이야기가 주는 감동을 담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여행이라는 스승의 성실한 제자가 될게요.

〈KTX매거진〉 편집장 김현정

KTX 바로 지금, 여행 SEPTEMBER 2022

2022년 9월호 제19권 제9호 통권 (제219호)
2022년 9월 1일 발행

발행인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

편집 (주)서울문화사 02-3785-0900
서울시 용산구 새창로 221-19

편집인 심정섭

편집장 김현정 kimhj@seoulmedia.co.kr
부편집장 김규보 kkb@seoulmedia.co.kr
기자 강은주 unddu@seoulmedia.co.kr
남혜림 nhr@seoulmedia.co.kr
온라인 기자 양한나 yangyang@seoulmedia.co.kr

교열 오미경 번역 박경리

디자인

아트 디렉터 권영주 kyj@seoulmedia.co.kr
디자이너 임보영 lby@seoulmedia.co.kr
온라인·광고 디자이너 김다은
dadakorea@seoulmedia.co.kr
객원 디자이너 엄정윤

사진 라이트팩토리 (LIGHT FACTORY)
070-4119-3014

디렉터 신규철
실장 이규열 조지영 이철 박정우

광고

팀장 조현익 jony2@seoulmedia.co.kr
부장 심재우 jwshim22@seoulmedia.co.kr
사원 김수연 kxad@seoulmedia.co.kr

배포 소장 이재우

경영지원실 본부장 정영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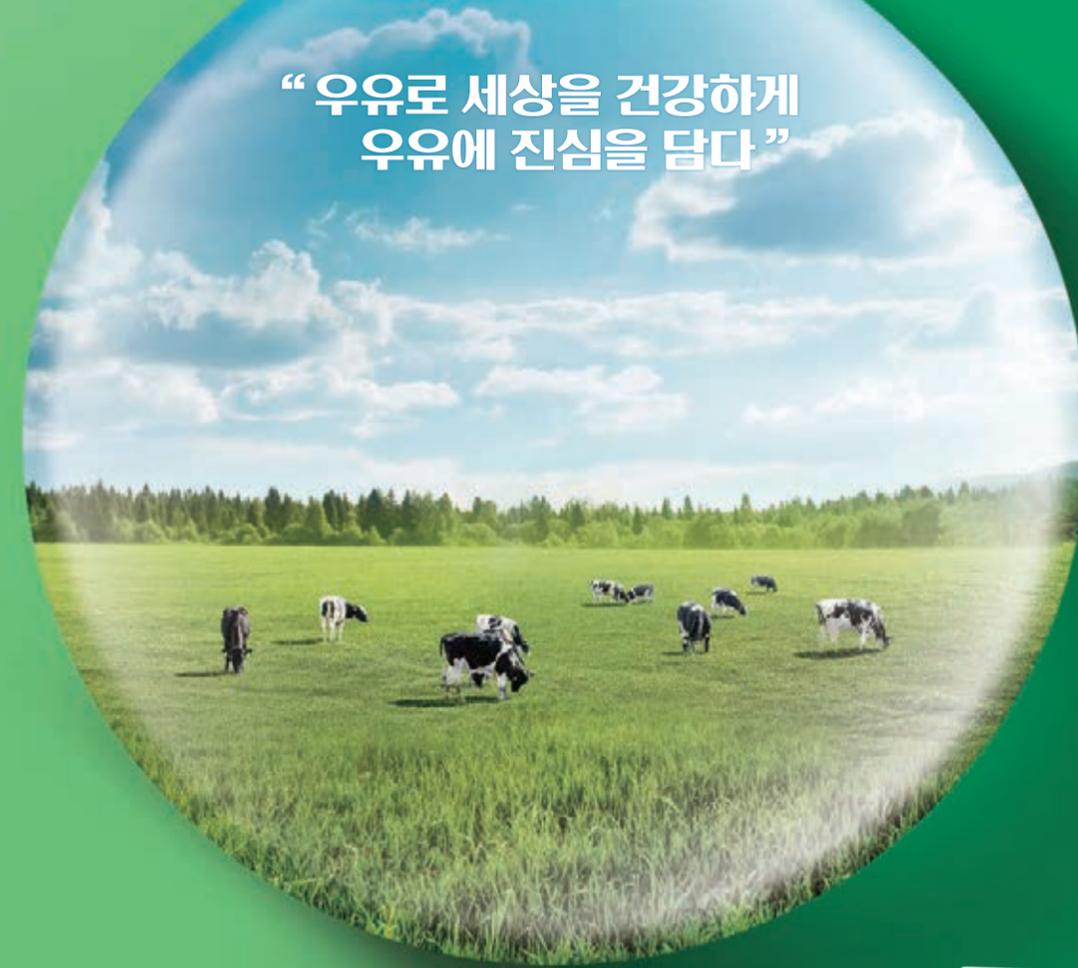
제작팀 팀장 이수행
부장 오길섭 과장 정수호

기획팀 팀장 임용욱 차장 박선주

인쇄 (주)타라티피에스

〈KTX매거진〉은 KTX와 ITX-새마을, ITX-청춘 열차 내 전 좌석에 비치하는 월간지입니다. 보신 뒤에는 다음 승객을 위해 제자리에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KTX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 편집 02-799-9338 광고 02-799-9175



“우유로 세상을 건강하게
우유에 진심을 담다”

“좋은 우유를 위한
당신의 선택 나100%”

나100%
체세포수 1등급
세균수 1A등급



내 손안에 펼쳐지는 KTX매거진

SNS에 #KTX매거진을 태그해 올려주세요.

@boragongju0613

8월호 표지는 삼척 여름 바다. 기차안은 온통 휴가 풍경이다.

#KTX매거진
#오늘은_기차
#8월호
#출장

@ferme.third

내가 사랑하는 부산! 전포카페거리 꼭 가 봐야겠다.

#전포동_카페
#KTX매거진
#국내_여행지
#집으로_가는_길

@pjy6325

여행 가는 길에서 다음 여행지 찾기. 선비 체험 재밌겠다.

#기차_여행
#경북_영주
#선비세상
#KTX매거진

@ktxmagaz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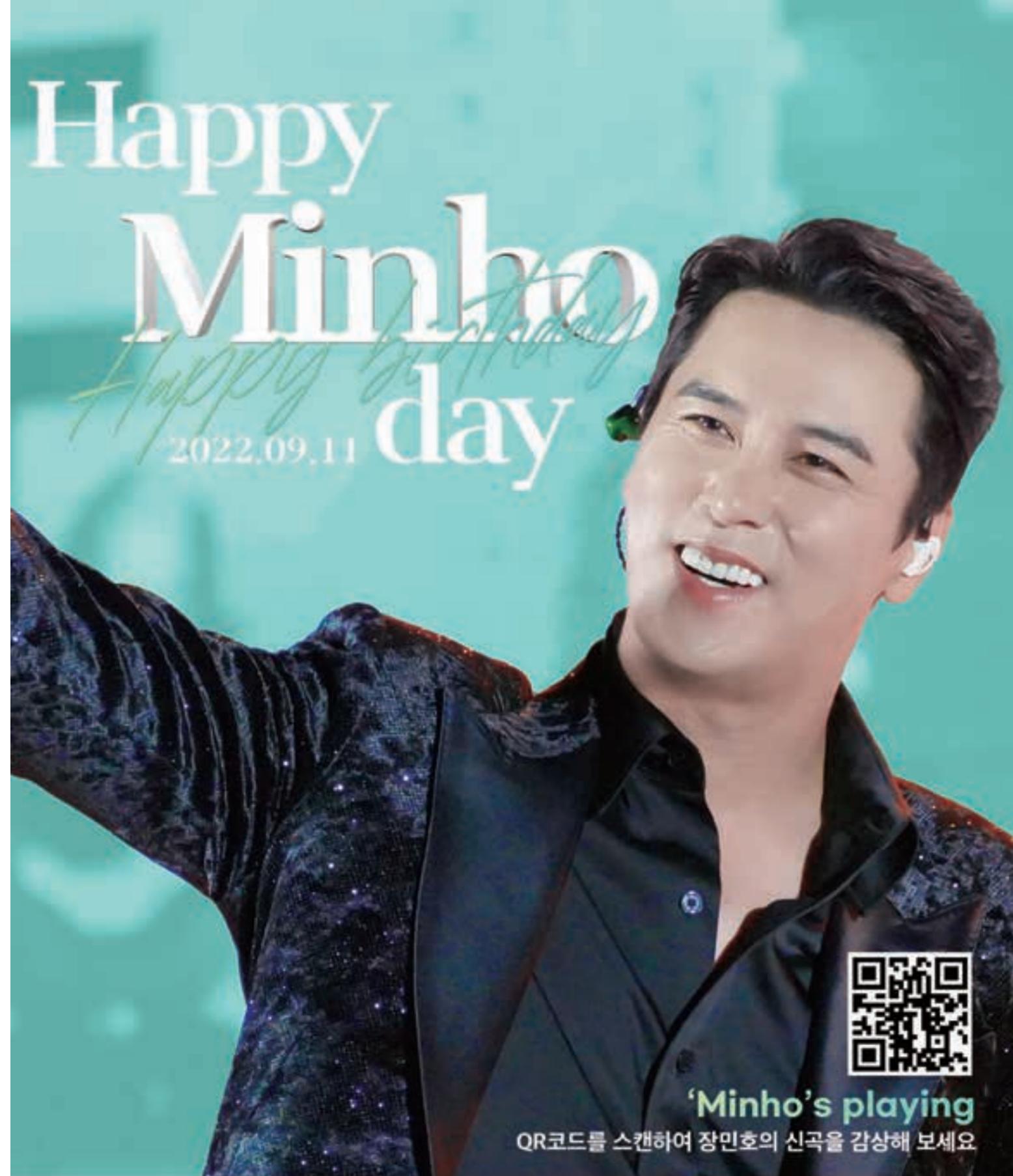
선물 받아 가세요!

'기차안 SNS'에 선정된 분께는 고농축 풀빅산을 함유해 두피 및 모공 관리에 도움을 주는 탈모 예방 샴푸 '풀빅 헤어 샴푸 & 토닉 세트'를 선물로 보내 드립니다. 두피와 모발 케어에 적합한 약산성 샴푸로 온 가족이 사용하기 좋습니다.

제품 문의 1522-9158

손안에 펼쳐지는 <KTX매거진>

QR코드를 스캔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로 <KTX매거진>을 만나 보세요!



'Minho's playing'
QR코드를 스캔하여 장민호의 신곡을 감상해 보세요

전국 어디나 달려가는 KTX처럼
방방 곡곡 세계 곳곳 장민호의 노래가 울리길 바랍니다.

해외 민호특공대



영광과 슬픔의 역사, 창경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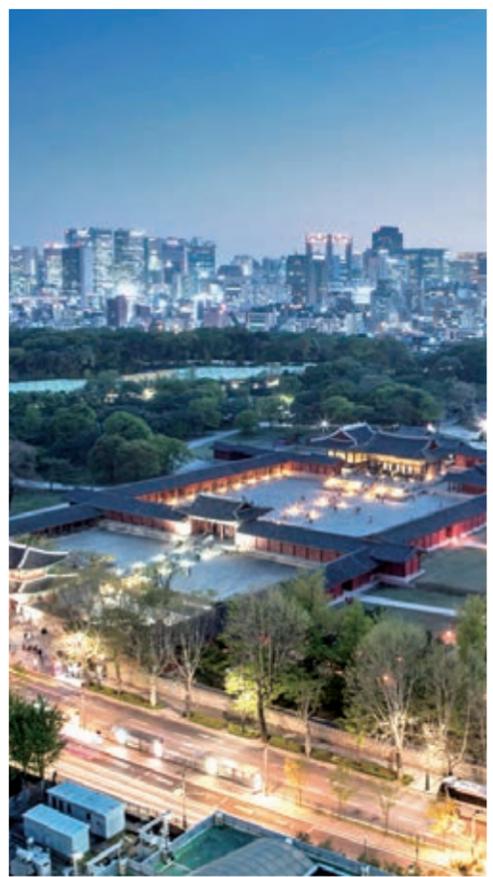
미뤄둔 숙제를 하나 마쳤다. 창경궁과 종묘를 연결한 것이다. 파란만장한 이 궁궐의 이야기를 알아봤다.



● 누가, 왜 만들었는가

● #성종 #대비님을 편안히

보통은 왕이 승하하고 다음 왕이 즉위하지만, 생전에 왕위를 물려주는 경우가 있었다. "18년 동안 호랑이를 탔으니, 또한 이미 족하다." 조선 제3대 왕 태종이 이 말과 함께 아들에게 양위하자, 호심 지극한 아들 세종은 아버지가 거쳐하실 궁을 마련한다. 이곳이 수강궁이었고, 세종의 증손자인 제9대 왕 성종이 세월 속에 쇠락한 수강궁 터에 창경궁을 새로 짓는다. 왕실의 어른인 대비가 당시에 세 분이었으니 세조의 비 정희왕후, 덕종(의경세자)의 비 소혜왕후, 예종의 계비 안순왕후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할머니, 어머니, 숙모다. 이분들을 편안히 모시기 위해 창덕궁 바로 옆에 1483년 궁궐을 조성한 것이다. 왕이 집무하고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었기에 중심 건물이 남쪽 대신 동쪽을 바라보게 했고, 궁 바깥에서 정전으로 가는 데 세계 문을 통과하는 경복궁·창덕궁과 달리 두 개 문만 두었다.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에는 담장 높이까지 왕이 직접 지정하거나 외부 시야 차단용으로 버드나무를 심으라는 장면이 나오고, 점필재 김종직이 상량문을 썼으며 사가정 서거정이 전각의 이름을 정했다고 밝힌다.



●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 #탄생 #화재 #여론조사

500년 넘는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겠는가. 정조·순조·헌종 등이 태어났고, 중종이 승하해 인종이 즉위했으며,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이 정문인 홍화문 남쪽의 작은 문 선인문으로 쫓겨났다. 임진왜란, 이괄의 난 때를 비롯해 화재 피해도 여러 번 입었다. 경복궁·창덕궁 역시 임진왜란 당시 화마를 피하지 못했기에 먼저 복원한 창덕궁과 창경궁은 조선 중반 이후 역사 무대의 중심이 된다. 사도세자의 비극이 벌어진 곳, 장희빈이 사약을 받은 곳도 창경궁이다. 정조는 아버지를 모신 사당 경모궁이 보이는 높은 지대에 어머니 혜경궁 홍씨가 머무를 자경전을 지었고, 혜경궁 홍씨는 자경전과 경춘전에서 <한중록>을 집필한다. 물론 훈훈한 이야기도 전한다. <조선왕조실록> '중종실록'에는 중종이 양인과 친인을 아우르는 양로연에 이어, 여성 어른에게도 따로 날을 잡아 잔치를 베풀었다고 기록했다. 영조는 홍화문에 나가 백성에게 균역법에 대한 의견을 물소문기도 했다. 이런 사연을 생각하며 거니는 궁궐은 더욱 의미 깊게 다가온다.

● 어떻게 훼손되고 복원했는가

● #강제 개명 #복원 또 복원 #안전하지 않으나 그래도 아름다워

핑계는 좋았다. 순종이 부왕인 고종과 떨어져 살아야 할 운명이라 우울해한다면 일제는 창경궁에 동물원과 식물원, 박물관을 조성하자고 한다. 창경궁은 1911년 창경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놀이 시설이 되었다. 왕이 농사를 체험하며 백성의 어려움을 헤아린 내농포라는 논을 파 연못으로 만들었으니, 오늘날의 춘당지다. 춘당지에서 사람들은 보트를 타고 그 위에는 케이블카가 지나다녔다. 조명이 사치이던 시절 창경원에는 20만 와트 조명이 불야성을 이루었다. 1983년에 이르러서야 창경궁 복원 작업이 시작된다. 동물은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이주시키고 버드나무는 여의도로 옮겨 심는 등 대공사 끝에 1986년 재개방한다. 올해 7월에는 창경궁과 종묘 연결 공사를 마쳤다. 일제가 도로를 내 끊어 놓은 창경궁과 종묘가 90년 만에 이어졌다. 이렇게 이야기, 역사가 공간을 타고 다시 흐른다.



컨텐츠는 임팩트있게 사이즈는 콤팩트하게

크리에이터들의 파이널 원픽!



● 콤팩트한 사이즈
122.5mm
(타입 기어)

● 가벼운 무게
약 429g
(뷰파인더, LCD 포함)

올라운드 컨텐츠 메이커 EOS R10

세상에 이런 대회가!

누가 가장 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가로 겨룬다. 빨리, 높이, 멀리 경쟁과는 또 다른 대회가 지구촌 여기저기서 열린다.



한국 | 멍 때리기 대회

넓은 들판에 사람들이 모여 앉았다. 무얼 하나 지켜봤더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고요한 가운데 다들 멍한 표정을 지은 채다. 멍 때리기 대회는 바쁜 현대인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과연 시간 낭비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참여형 예술 퍼포먼스다. 시각예술을 포함,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 중인 예술가 윙쓰양의 기획 아래 2014년 서울에서 시작했다. 지금은 윙쓰양 컴퍼니가 주도해 전국 곳곳에서 개최한다. 올해는 제주 서귀포, 경기도 시흥에서 열렸다.

#멍_때리는_것도_예술이다 #예술_퍼포먼스



핀란드 | 에어 기타 세계 선수권 대회

화려한 무대 위로 참가자가 오른다. 참가자는 맨손에 기타를 잡은 척, '에어 기타'를 뽀뽀하고도 격렬하게 연주한다. 관중은 그의 퍼포먼스에 열광한다. 에어 기타 세계 선수권 대회는 1996년부터 핀란드 오울루에서 개최된 유서 깊은 대회다. 세계인이 모두 에어 기타를 치는 동안에는 총을 잡을 수 없고, 그러면 전쟁이 끝날 것이라 믿는다. 대회는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계속된다. 국적, 성별, 나이, 성적 취향,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 참여 가능하다.

#평화를_위한_에어_기타 #전쟁_멈춰



미국 | 샌클레멘테 오피스 체어 레이스

매년 7월 4일, 미국 캘리포니아 샌클레멘테 거리는 사무실 의자 경주를 구경하러 온 사람으로 가득 찬다. 참가자는 사무실 의자를 타고 내리막길을 달린다. 깃발, 서핑보드, 선박 부품, 책상이 달려 있는 등 취향대로 개조한 의자가形形色색 다채롭다. 의자 개조는 규칙 위반이 아니다. 단, 실제 사무실에서 사용한 의자여야 하고, 동력원을 달아선 안 된다. 경주의 목적은 즐겁게 놀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 그것이 싫다면, 웅장한 스타일로 모두의 시선을 끌어도 좋다.

#사고_주의 #개성_있는_사무실_의자



영국 | 완두콩 사격 선수권 대회

영국 케임브리지셔의 워침 마을에서는 매년 7월 두 번째 토요일이 되면 사격 대회 참가자들이 말린 완두콩을 한 봉지씩 구매한다. 공정한 경기를 위해 참가자는 마을에서 준비한 완두콩만을 써야 한다. 구매한 완두콩을 실린더 총에 넣은 뒤, 입으로 불어 과녁을 향해 발사한다. 완두콩을 표적 정중앙 가장 가까이에 맞춘 사람이 우승을 차지한다. 참가자들은 개조한 총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물론, 총은 오직 완두콩 발사용이다. 대회 수익금은 마을 회관 유지비로 사용한다.

#모든_사격은_금지 #완두콩만_빼고

US여자오픈 우승의 유소연, 이정은6 프로와 함께 하는 제7회 파나소닉 고객초청 프로암 대회



2019 US여자오픈 우승 이정은6 프로

2011 US여자오픈 우승 2017 ANA인스퍼레이션 우승 유소연 프로

라이프 베스트 안마의자의 품격과 라운딩의 특별함을

REAL PRO
언제나 사랑받는 안마의자
87년
선진안마기술집약체

제7회 Panasonic 고객초청 프로암



EP-MAK1(아이보리)

EP-MAK1(블랙)

- 기간** | 2022년 8월19일(금)~9월30일(금)
- 행사내용** | 안마의자 MAK1 구매 고객 100분 (50쌍)을 모십니다.
- MAK1 구입 고객 대상 추첨 (MAK1 1대 구입 시 구매자 포함 두분 응모 가능)
- 대회일정** | 2022년 10월 17일(월) 오전 07:00 Tee-off
- 전일(10월 16일 일요일) 하이원 호텔 숙박 제공
- 장소** | High1 CC(하이원CC 강원 정선 소재)

※ 파나소닉 안마의자는 전국 파나소닉 프라자 매장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 등대를 찾아서

망망대해와도 같은 삶을 헤쳐 나가는 당신에게 등대 스탬프 투어를 권한다. 새로운 코스로 돌아온 시즌 3 '재미있는 등대' 여권을 들고 길을 나설 때다.

무료한 일상 속 한 줄기 빛을 비춰 줄 스탬프 투어가 등장했다. 한국항로표지기술원에서 지난봄 운영하기 시작한 '재미있는 등대' 스탬프 투어가 그 주인공이다. 이번 스탬프 투어에서 소개하는 재미있는 등대란 지역 문화와 역사를 함축해 개성 넘치는 모양으로 디자인한 조형 등대를 가리킨다. 이들 조형 등대는 항로표지로서 제 몫을 톡톡히 하는 데다, 근사한 사진 명소로 여행자의 발길을 모은다. 붉은색 말 모양의 제주 이호랜드방사제등대부터 버섯 형상을 한 강원도 양양의 물치항방파제등대까지, 총 17개의 아름답고 특별한 등대가 모험심 넘치는 여행자를 기다리고 있다. 우선, 도전자는 종이 여권과 모바일 여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 종이 여권은 등대와 바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뒤 우편으로 수령하고, 모바일 여권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등대 스탬프 투어'를 검색해 GPS 기반의 디지털 여권 앱을 내려받아 사용한다. 완주한

여행자에게는 기념품으로 등대 배지를 증정한다. 등대 17개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외관을 그대로 옮겨 놓은 배지라 소장 가치가 높고, 선착순 1000명에게만 제공하니 서두르는 게 좋겠다. 모든 등대에서 인증 사진을 촬영해 등대와 바다 홈페이지에 올리고 확인 절차를 거쳐야 배지를 손에 얻는다. 자, 이제 걸음을 재촉해 보자. **K**

즐거요, 등대 스탬프 투어

첫 번째 테마 '아름다운 등대'로 시작한 등대 스탬프 투어는 지난해 여름 두 번째 코스 '역사가 있는 등대'를 개시해 수많은 여행자의 사랑을 받았다. 앞선 두 테마 여행 코스가 섬에 위치한 등대를 소개해 완주하기가 까다로웠다면, 이번에 세 번째로 개시한 '재미있는 등대' 코스는 대부분 내륙에 위치한 조형 등대로 이루어져 접근하기 수월하다. 문의 www.lighthouse-museum.or.kr/sea/passport

MOUTAI

A TOAST TO THE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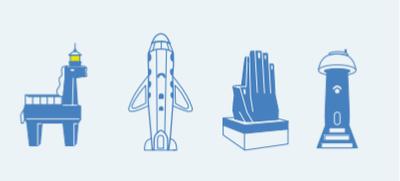
문의 02-3665-6611 www.moutaikorea.net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하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



용성통상(주)
Yongsheng Co., Ltd.

귀주마오타이주
한국공식 수입판매법인



01 삼길포항방파제등대

충남 당진과 맞닿은 삼길포는 서산 북쪽의 관문이다.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대호방조제를 달리고, 제철 맛은 전어와 새우를 맛보며 미식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가을 삼길포 여행의 묘미다. 지역 특산물인 우럭 조형물을 앞세운 등대 앞에서 바다를 감상하는 시간도 놓치지 않는다. 낙조는 풍요롭고, 야경은 아늑하다.

발밝힌날 2009년 1월 21일
주소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1-35



지금 가면 더 좋다,
재미있는 등대 5



02 목포북항동방파제등대

흥 많은 여행자에게 목포 여행을 추천하고 싶다. 9월 30일, 전국구 스트리트 댄스 배틀 공연 <목포뮤직플레이>가 펼쳐지기 때문이다. 길을 나선 길에 북항을 찾아 목포해상케이블카를 타고, 풍차 모양 등대 앞에서 사진도 찍어 보자. 어둠이 내리면 풍차 날개에 장식한 조명이 알록달록 빛난다.

발밝힌날 2009년 11월 27일
주소 전남 목포시 죽교동 672



03 여수구항방파제하멜등대

해양 스포츠를 좋아한다면 9월 21일까지 윈드서핑, 딩기 요트 등 무료 체험 프로그램(문의 061-686-0591)을 진행하는 전남 여수로 가야 한다. 우리보다 350여 년을 앞서 여수 앞 바다를 누볐을 네덜란드인 헨드릭 하멜을 기리는 등대 앞에서는 옛 풍경을 상상해 본다. 그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를 되새기면서.

발밝힌날 2005년 1월 28일
주소 전남 여수시 종화동 458-7



05 정자항북방파제등대

암초가 많은 곳에서 출몰한다고 알려진 귀신고래는 울산의 명물이다. 힘차게 수면 위로 솟아오르는 귀신고래의 동세를 형상화한 이 등대는 지난해 울산북구 12경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울산의 또 다른 자산, 태화강 국가정원도 함께 둘러본다. 이제 막 절정을 이룬 코스모스꽃밭을 만날 수 있다.

발밝힌날 1991년 8월 7일
주소 울산시 북구 정자동 638



04 칠암항남방파제등대

이 계절, 부산 기장에 가고 싶다. 칠암항에서 지금 한창 맛이 올랐을 봉장어회를 제대로 맛보고 싶어하다. 부른 배를 두드리며 방파제까지 슬슬 걷다 보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야구 경기 우승을 상징하는 등대 앞에 닿는다. 야구공, 방망이, 글러브 형상을 이용해 기발한 구도를 만들어 기념사진을 남겨 본다.

발밝힌날 2010년 11월 30일
주소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칠암리 2-15



자료제공 한국항로표지기술원

검정콩 발효 기술로 모락모락 크는 자신감



체내 흡수율을 극대화한
하이모만의 특허받은 발효 기술로
잃어가는 자신감을 풍성하게 채우세요

하이생 모락 MORAK

구매문의 1661-1188 | www.hisaeng.co.kr

3 | 국내산 원료와 3無 첨가 원칙 |
영양 만점 자연의 힘 그대로 NO 감미료, NO 착색료, NO 향료

0.2 | 특허받은 복합 발효 기술 |
검정콩 유용성분의 체내 흡수율 극대화

1 | 믿을 수 있는 시스템 |
연구부터 생산, 판매까지 전 과정 자체 생산 방식

1 | 휴대와 섭취의 간편성 |
3mm '함' 형태, 이지켓 개별 포장





秋夕

3.4점 한성기업_찰떡궁합 떡갈비맛구이

김현정 떡갈비는 반찬인데, 안에 진짜 떡이 들었으니 어떡해요? 밥과 떡을 동시에 먹기는 좀 어색하겠지만 색다른 조합은 재미있다. 떡 품은 핫바 맛. ★★ / **김규보** 함께 시식한 편집팀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내가 제일 많이 먹었다. 비밀스럽게 움직여서 신속하게 입 안에 넣는 기술을 한평생 갈고닦은 덕분이다. 지금도 늘 정진한다. 맛있는 걸 같이 먹어야 하는 비통한 상황에서 유용하다. ★★★★★ / **강은주** 도시락 반찬으로 가져가면 금세 동날 것 같은, 동글동글하고 통통한 만두새에 반했다. 외모만큼 차지거나 쫄득하진 않지만, 어차피 조상님은 흥향만 하실 테니까 차례상에 놓기엔 괜찮은 선택일지도. ★★★★★ / **남혜림** 모양이 너무 귀엽습니다. 조그만 제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라 더욱 만족! 간간이 씹히는 떡이 매력적이네요. 여덟 살 동생에게 구워 주면 좋아할 것 같은 예감. 그런데 떡 조금만 더 넣어 주시면 안 되나요? ★★★



3.9점 사용원_부침명장 오미산적

김현정 이 회사에 장금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완벽한 핸드메이드의 재현. 남몰래 후딱 부쳐서 내가 했다고 하면 안 믿을 퀄리티와 맛. 꼬챙이를 쓰지 않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니 더 좋아요. ★★★★★ / **김규보** 인원에 맞게 딱 네 개만 준비했기에 남보다 많이 먹을 수 없어 서러웠다. 하지만 더 먹고자 비밀스럽게 움직이지 않아도 되니까 당당하게 집어서 몇몇하게 씹었다. 그래도 맛있었다. 과연 나란 사람은 공평하게 나눠 먹어도 맛있어하는 박애주의자. ★★★★★ / **강은주** 부끄럽다. 이 제품 덕에 오미산적이라는 공식 명칭을 알았다. 더 부끄러운 건, 집에서 손수 재료를 손질해 만든 결과물보다 훨씬 맛깔스럽다는 사실. ★★★★★ / **남혜림** 어머니, 이게 웬걸. 크기가 어찌나 큰지 조그만 입을 가진 저는 여러 번 베어 먹어야 했어요. 산적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럭저럭 맛이 있네요. 겉보기도 예뻐 차례상에 올리기 좋겠습니다. ★★



이토록 간편한 명절 음식

전 부치느라 찢찢매는 명절은 이제 그만.
굽거나 가열해서 간편하게 먹는 명절 음식을 네 명의 에디터가 맛봤다.



3.4점 피코크_동태전

김현정 달걀까지 어떻게 이렇게 잘 입혀서 내놓지요? 먹음직하게 생긴 게 맛도 먹음직하다. 인류 일상을 극적으로 바꾼 발명품이 세탁기라는데, 이 동태전도 환영합니다. 명절이 가벼워지겠네요. ★★★★★ / **김규보** 이 제품 역시 내가 제일 많이 먹었는데,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은 걸 보니 과연 나란 사람은 몰래 많이 먹기 권위자. 누구보다 빨리, 한 개라도 더 먹은 결과 동태전의 환상적인 맛을 한층 진하게 느낄 수 있었다. 노력한 만큼 먹는다는 사실을 믿는다. ★★★★★ / **강은주** 냉동 제품으로 나온 동태전을 이미 맛본 적 있어서 자연스레 그것과 비교해 봤다. 어육은 훨씬 부드럽고, 튀김옷은 약간 더 두꺼운 편이다. 재구매 의사를 묻는다면, 확신의 동그라미. ★★★★★ / **남혜림** 동태전을 먹을 땐 항상 감각이 곤두섭니다. '과연 내 동태전에 가시가 있을까?' 목에 가시가 걸리는 게 무섭거든요. 결과는... 당첨. 가시가 너무 많아서 슬펐어요. 왜 내 동태전만 이래, 흑흑. ★



4.3점 비비고_잔칫집 모듬잡채

김현정 맛있음 그 잡채! 간단함 그 잡채! 냉동 잡채 수준이 이 정도라니 놀랍다. 이제 우리 모두 같이 차리고 같이 먹고 같이 정리하고 같이 놀아요- ★★★★★ / **김규보** 내가 이 제품을 내 점수로 옮길 때, 약간 긴장했음을 고백한다. 전체 양의 25퍼센트가 아닌 30퍼센트를 덜어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늘 그랬듯이,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으며 나는 다른 분들보다 5퍼센트 이상 농밀하게 잡채의 맛을 음미했다. 내가 자랑스럽다. ★★★★★ / **강은주** 다들 극찬하며 드시기에 조금 머쓱했습니다. 면 요리란 대기업의 최신 조리 과학 기술이 아직 닿을 수 없는 준봉이구나, 새삼 느꼈다. 다진 마늘이랑 간장 조금 더 넣고 부 재료를 넣는다면... 아, 그냥 만들어 먹어야겠다. ★★ / **남혜림** 규보 선배가 이 제품을 제일 많이 먹었다고 말할 테지만, 승자는 점니다. 남은 고명까지 싹 긁어 먹었어요. 매번 잡채 만드느라 힘들었는데, 이젠 쉽게 먹을 수 있겠어요. 야호! ★★★★★



*5점 만점



무궁무진, 커피의 변신

커피도 취향 따라 마신다.
에스프레소부터 카테일까지
색다른 모습의 커피를 찾으러
부산 중구로 떠난다.

커피 하면 떠오르는 나라 중 하나인 이탈리아 현지 커피 맛을 추구하는 '컵피옥'은 메뉴판을 에스프레소로 가득 메웠다. 아메리카노도 좋지만, 에스프레소의 다양한 면면을 보여 주고 싶은 마음에서다. 우선 기본 메뉴인 카페 에스프레소로 커피 탐구를 시작한다. 작은 잔에 담긴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시니 고소하고 진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운다. 내가 맛있어야 손님에게도 대접한다는 신념으로 모두가 편안하게 마시기 좋고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고소한 맛이 중심이 되도록 연구해 커피 맛을 잡았다. 또한 모금을 마시자 이번에는 은은한 단맛이 올라온다. 컵피옥의 모든 에스프레소 메뉴에는 유기농 비정제 설탕이 들어가는데, 뜨거운 에스프레소 위에서 굵은 입자의 설탕이 천천히 녹아 마실 때마다 맛이 조금씩 달라진다. 미묘한 맛의 변화를 느끼다 보면 금세 바닥이 드러난다. 부드러운 맛의 에스프레소에 수제 크림과 매장에서 갓 구운 미니 크루아상을 곁들인 카페 옥스프레소도 추천한다. 바삭바삭하고 따뜻한 크루아상에 스푼으로 크림을 얹어 먹다가 크림, 에스프레소가 고루 스미도록 크루아상을 컵에 풍덩 담가 새로운 맛의 조합을 발견한다. 이 조합을 맛본 사람은 한동안 컵피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 깊고도
진한
에스프레소



하루 종일 부산 중구 즐기기



보수동 책방골목 에스프레소 한 잔으로 몸과 정신을 깨운 후 골목 산책에 나선다. 보수동 책방골목은 한국전쟁 당시 부산이 임시 수도 역할을 할 때 조성된 곳으로, 옛 느낌 물씬 묻어나는 간판의 글씨체와 켜켜이 쌓인 책이 지나간 세월을 말해 준다. 마음에 드는 책을 한 권 골라 책장을 넘기며 헌책의 매력을 음미한다. 책 냄새에 마음까지 편안해진다.



커피도시 부산 전포카페거리를 비롯한 도심 카페의 트렌디한 분위기, 오션뷰 카페의 장관이 마음을 사로잡는 부산은 커피 향 가득한 도시다. 세계에서 인정받는 로스터리가 있고,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도 배출한 부산이 '커피도시 부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추진하며 테마 BI 개발, 굿즈 제작, 홍보 영상 기획 등으로 부산 커피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부산 여행의 즐거움, 커피 향기가 나날이 그득해지고 있다.

하루 종일 부산 중구 즐기기



부평 광통시장 여행에 빠지면 아쉬운 쇼핑과 맛있는 식사를 부평 광통시장에서 한 번에 해결한다. 광통이라는 이름은 베트남전쟁 때 흘러 들어온 미군 통조림을 많이 팔아 붙은 것이다. 떡볶이, 어묵은 기본이고 유부전골, 각종 한식 반찬 등 침이 절로 고이는 음식 덕에 시장은 언제나 활기차다. 오후 7시 이후 열리는 야시장을 누벼도 좋다.

● 웨스턴 바에서 즐기는 커피 카테일



커피와 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은 이는 망설이지 말고 '레귤러하우스'를 방문해야 한다. 레귤러하우스는 남포동 구제시장 근처에 숨어 있다. 구제시장 안 어느 건물 2층으로 올라가 미닫이문을 열자 고급스러운 바가 펼쳐진다. 웨스턴 바를 테마로 꾸민 레귤러하우스는 커피와 술을 함께 내놓는다. 바 테이블에 앉아 시그너처 음료인 아이리시 커피를 마시니 1930년대 미국으로 온 듯하다. 아이리시 커피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아이리시 커피의 시초인 아일랜드 버전과 미국 샌프란시스코 버전인데, 레귤러하우스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아이리시 커피를 판매해 유명해진 카페 '부에나비스타'의 맛을 따른다. 잔과 설탕도 부에나비스타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수입했다. 원두 중 최상급인 스페셜티 원두로 내린 커피와 제머슨 위스키, 크림 그리고 설탕을 조합해 아이리시 커피를 만든다. 본래 아이리시 커피는 뜨겁게 마시지만, 레귤러하우스에서는 차갑게 즐기는 것도 가능하다. 취향에 따라 알코올 도수가 20도인 스트롱, 그보다 위스키가 덜 들어간 레귤러 중 하나를 골라 주문한다. 아이리시 커피 말고 베일리스 커피, 카페 갈루아 등 다양한 커피 카테일도 흥미하며 웨스턴 바 분위기를 천천히 즐겨보자.



2

레귤러하우스

- ☎ 아이리시 커피(레귤러) 1만원
베일리스 커피 9000원
- 📍 부산시 중구 중구로40번길 22 2층
- 📱 @regular_house





그리다부부

☎ R1·R2 드립커피 6500원
 시나몬 아일랜드라떼 7000원
 📍 부산시 중구 광복중앙로 35-1
 📱 @bubucoffee.kr

3



①

하루 종일 부산 중구 즐기기



부산 다이아몬드타워 부산 명소로 유명했던 120미터 높이의 부산 타워가 리모델링을 거쳐 부산 다이아몬드타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돌아왔다. 타워 아래층에는 미디어 월, 팝아트 포토 존 등 사진을 찍기에 안성맞춤인 이색 공간이 준비하다. 어둠이 내린 후 전망대에 올라가 불꽃놀이를 재현한 불꽃램핑 쇼를 감상하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행복은 가까이 있다”라는 말처럼, ‘그리다부부’는 이곳을 찾는 이들이 커피 한 모금으로 잠시나마 행복을 느끼길 바란다. 부부는 옷가게였던 공간을 6개월간 직접 공사해 카페로 탈바꿈시켰다. 편안하고 차분한 분위기에 어울리는 아날로그 소품, 지하 공간의 빔 프로젝터, 곳곳에 비치한 책 등 부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다. 로스터리 카페임을 증명하듯 카운터 옆 큰 로스팅 기계가 눈에 띈다. 일주일에 세 번, 다섯 시간에 걸쳐 로스팅을 한다. 세심한 로스팅으로 탄생한 시그너처 커피가 바로 R1·R2 드립커피다. R1은 은은한 복숭아 향이 포인트다. 언뜻 복숭아 향차로 착각할 만큼 싱그러운 복숭아 향이 나는데, 커피를 입에 머금으면 그 향이 입안과 코를 휘감는다. R2는 R1과 다른 맛을 선사한다. R1이 산뜻하다면, 헤이즐넛과 캐러멜의 풍미가 특징인 R2는 R1보다 무게감이 느껴진다. 시나몬 시럽을 직접 만들어 넣은 시나몬 아일랜드라떼도 별미다. 고소한 라테에 시나몬 특유의 향이 더해져 처음엔 맛이 궁금해서, 나중엔 맛있어서 자꾸만 마시게 된다. 친환경 카페를 모토로 운영해 매장 밖으로 음료를 가져갈 시에는 리유저블 컵에 음료를 담아 주고, 친환경 빨대를 제공한다.

● 커피로 그리는 하루





〈홍콩 미니어처〉



서울 09.24~10.03



매력적인 홍콩의 면모를 미니어처로 발견한다.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간판, 버스, 사람 등 미니어처가 정교하다. 홍콩 특별 행정구 경제무역대표부가 행정구 설립 25주년을 기념해 미니어처 전시회를 준비했다. 홍콩의 미니어처 작가들이 지역 전통과 문화, 도시 경관 및 일상생활을 주제로 제작한 40여 점을 한국 최초로 공개한다. 전시 현장에서는 미니어처 작가가 제작을 시연하는 워크숍을 연다. SNS 캠페인과 이벤트도 진행해 관람객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장소 서울 코엑스 문의 02-323-4503

K-Military, 평화의 카르네



2022 계룡세계군문화 EXPO

2022.10.7(금) ~ 10.23(일)
충청남도 계룡시(계룡대 활주로)

- 메인 공연 | 계룡세계군악의장 콘서트, 로드퍼레이드, 뮤지컬 갈라쇼
- 프로그램 | 블랙이글스 축하비행, 전투 및 기동시범, 고공강하시범, 육해공군의 날, K-MILITARY 경연대회, 계룡산 안보등반, 계룡대 영내투어
- 체험 | 군무기장비 전시·탑승, 헬기탑승 투어, 병영훈련·서바이벌·사격훈련 체험
- 국제회의 | 계룡세계평화포럼
- 전시관 | 세계평화관, 한반도희망관, 대한민국국방관, 세계군문화생활관, 국방체험관, 4차산업융합관, 지역산업관



WHAT'S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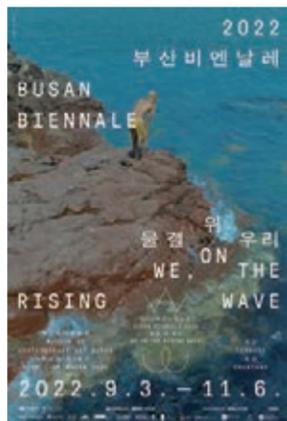
• EXHIBIT •

2022 부산비엔날레

부산 09.03~11.06

부산비엔날레가 올해도 우리 곁을 찾아왔다. 가마타 유스케, 감민경, 그레이스 슈빈트 외 작가 77명이 참여한 전시의 주제는 '물결 위 우리'로, 물결은 오랜 세월 부산으로 유입되고 밀려났던 사람들과 요동치는 역사를 의미한다. 근대 이후 부산의 역사와 도시구조의 변천속에 새겨지고 감춰진 이야기를 회화, 영상, 조각,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으로 돌아본다. 아티스트 토크, 세미나등도 열린다.

장소 부산현대미술관 외 문의 051-503-6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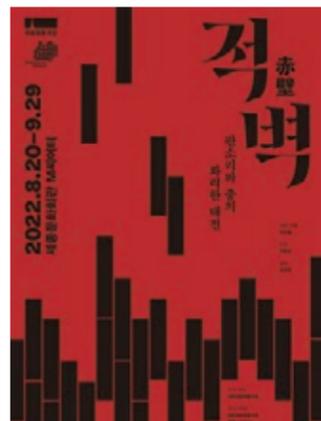
• SHOW •

<적벽>

서울 08.20~09.29

판소리와 현대무용이 만났다. 판소리 <적벽>를 편곡하고 무대화해 적벽대전의 서사를 뮤지컬로 만들었다. 때는 중국 한나라 말, 위·촉·오 삼국이 권좌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치른다. 22인의 배우가 판소리를 합창하고 역동적인 춤으로 비장한 전쟁의 순간을 재현한다. 그림 같은 안무, 폭포처럼 쏟아지는 판소리 합창에 라이브 밴드의 연주까지 더해져 판소리를 색다르게 감상한다.

장소 서울 세종문화회관 문의 02-399-1000



직업계고 학생, 어떻게 채용하시나요?

교육부 주관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직업기초능력평가가 해답을 드립니다.

직업기초능력평가란?

교육부 주관 직업기초능력평가는 전국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12년도부터 매년 시행하는 평가로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수준을 전국 단위로 측정하는 국내 유일의 평가입니다.

모든 직무자들에게 요구되는 공통적이며 핵심적인 역량(기초능력, 업무처리능력, 직장적응능력)을 평가하여, 평가결과는 영역별 등급으로 제공됩니다.

직업계고 졸업생은 직업기초능력평가를 통해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채용 시 이를 선발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업기초능력평가는 의사소통 국어 등 총 5개의 평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NCS 직업기초능력에서 규정한 10개 능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NCS 직업기초능력

직업기초능력평가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기초능력군

의사소통국어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음성 언어 및 문서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

의사소통영어
직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영어로 전달되는 음성언어 및 문서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

수리활용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산, 수학적 원리 및 수리적 사고를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자원관리능력
조직이해능력



업무처리 능력군

문제해결
직업장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

대인관계능력
자기개발능력
직업윤리



직장적응 능력군

직무적응
직장 내 적응과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비인지적 특성(성격, 동기, 태도 등)을 진단

직업기초능력평가 활용 사례



- 한국전기안전공사 - 2021년도 하반기 공개 채용 시 서류전형 가점항목 도입
- 한국관광공사 - 2021년도 일반직 신입사원 채용의 NCS 필기전형 직업기초능력평가(50%)를 등급 점수로 대체
※ '고졸 인재' 지원자의 선택사항
- 한국철도공사 - 2021년도 하반기 채용 면접전형 시 참고 자료로 활용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2021년도 취업연계형 FTA 실무인력 양성사업 대상자 선정 시 참고자료로써, 특성화·마이스터고 평가기준의 주요지표로 활용
- 유니셈 외 사기업 -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채용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고졸인재 채용에 대한 비용 절감

인증서 활용사례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사혁신부 박승욱 차장)

- Q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어떤 곳이고 채용 시 기술직 고졸전형의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A**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북 완주 및 전국 60여개 사업소, 연구원, 교육원으로 구성되어 전기설비 검사, 점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술직 고졸전형의 지원자격은 고등학교 전기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전기 기능사 자격 보유자입니다.
- Q 기술직 고졸인재 채용 시 직업기초능력평가가 어떻게 반영되나요?**
- A** 저희 기관에서는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증서 등급을 점수로 환산한 후 서류전형 가점사항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국어, 영어, 수리활용, 문제해결 영역 중에서 특히, 문제해결 영역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주었습니다.
- Q 서류전형에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증서를 활용하여 채용된 지원자를 실제로 만나보니 어떠셨나요?**
- A** 해당 입사자들과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 업무에서의 역량이 기초능력, 문제해결, 직무적응 영역의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증서와 상당부분 일치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직업기초능력평가
체험하기



직업기초능력평가 문의처

Test for Enhanced Employ ability & Upgraded Proficiency

대한상공회의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17층 직업기초능력평가센터

Tel: 02-6050-3592 E-mail: teenup@korcham.net

WHAT'S UP



• FESTIVAL •

제47회 정선아리랑제

정선 | 09.15~18

코로나19로 2년 동안 개최하지 못한 정선아리랑제가 돌아왔다. '보고 싶다 정선아리랑제'를 주제로 열리는 축제는 축제의 안녕을 비는 칠현제례 봉행에서 시작해 전국 아리랑 경창대회, 아리랑 퍼레이드, 아리랑과 K팝(POP)의 합성어인 A팝(POP)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명 나게 선보인다.

장소 강원도 정선공설운동장 일대
문의 033-560-3013



• SHOW •

〈원더티켓-수호나무의 부활〉

인제 | 09.16~18

"평화를 향해 전속력으로!" 경기도 파주 자유의다리에 멈춰 선 녹슨 기관차와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바람의언덕을 소재로 한 뮤지컬이다. 노신사는 분단으로 헤어진 옛사랑과 아름다운 고향을 그리워한다. 그를 위하는 손녀해나의 간절한 마음이 바람의 신봉백을 깨운다. 그들은 녹슨 기차를 타고 과거로 달린다.

장소 강원도 인제하늘내린센터
문의 033-460-8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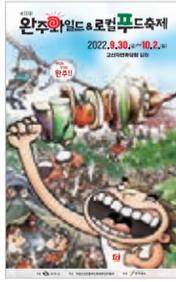
• FESTIVAL •

천안흥타령춤축제 2022

천안 | 09.21~25

비대면 축제가 이어지는 동안 현장의 열기에 목말랐던 이에게 희소식이다. 올해는 천안흥타령춤축제가 전면 대면으로 꾸려진다. 메인 프로그램인 전국 춤 경연대회와 거리 댄스 퍼레이드가 천안을 들썩이게 한다. 이 외에도 마당극, 어린이 체험 부스, 흥 콘퍼런스 와 같은 볼거리, 즐길 거리가 풍성하다.

장소 충남 천안종합운동장 일원
문의 041-900-7020



• FESTIVAL •

제10회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

완주 | 09.30~10.02

건강하고 신선한 먹거리, 가공과 조미를 최소화한 자연 음식을 마음껏 맛보는 축제다. 땅을 파서 아궁이식 구멍이를 만든 뒤 감자-달걀 등을 구워 먹는 '감자삼국' 프로그램에서 배를 채운 뒤, '와일드맨을 찾아라' 레이스에 참가해 축제를 신나게 즐긴다. 축제의 백미, 와푸 거리 퍼레이드도 구경한다.

장소 전북 완주 고산자연휴양림 일원
문의 063-290-2621



• EXHIBIT •

〈식물공감: 자연을 들이다〉

이천 | 07.07~09.18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는다. 작가 8명이 참여한 전시에서 식물의 모습을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한 회화, 콜라주 등 50여 점을 만난다. 전시는 '식물과 기억' '식물과 도시' '식물과 상징' 총 세 구역으로 구성된다.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나만의 화분 만들기, 플랜테리어 식물 꾸미기를 운영한다.

장소 경기도 이천시립월전미술관
문의 031-637-0033



조식뷔페 무료 전국 확대

이그제큐티브 기명, 무기명 신규가입 한정

소노펠리체 빌리지 델피노

6,000만원대로 누리는 2억원가치의 독보적 혜택 프리미엄 멤버십 출시!!

글로벌 리딩 컴퍼니로 도약하는 대명리조트의 새 이름

소노호텔앤리조트 신규 프로모션 회원모집

새 브랜드로 글로벌 체인 사업에 나선 소노호텔앤리조트(구. 대명리조트)가 VIP 고객을 대상으로 '이그제큐티브클럽(Executive Club)' 멤버십의 한정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이그제큐티브 클럽은 럭셔리 호텔 서비스와 실속있는 리조트 서비스를 결합한 프리미엄 회원권으로 식음, 골프, 승마, 요트 혜택 등을 담아 고객에게 스페셜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한다.

소노호텔앤리조트는 국내 최대 규모인 전국 16곳 체인망과 11,000여개가 넘는 객실을 보유하여 업계 1위를 자부한다. 폭넓은 여행지 선정은 물론 레저&스포츠 [소노펠리체 CC(비발디파크 WEST, EAST/델피노), 오션월드, 스키, 승마클럽, 요트 등] 시설을 신규 회원권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개인 및 법인 명의로 분양이 가능하며, 회원제 상품의 경우 20년 만기시 전액을 반환 해준다.

기존의 회원권과는 달리 입회 기간 내내 상시 혜택을 제공받는 것이 특징인 이그제큐티브클럽 멤버십은 특별 프로모션으로 정회원 2명 뿐 아니라 가족회원 3명에서 4명으로 파격적으로 확대하여 총 6명을 등재할 수 있다. 특히 정회원은 매년 10회, 1회 2인까지 전국 조식 뷔페가 무료이며, 라운지 음료가 매년 30회 무료다. 호텔 휘트니스, 수영장, 사우나 등의 부대시설도 매년 30회 무료이용 할 수 있으며, 년10회 발렛파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노호텔앤리조트 측은 "타 업체와 다른 전문 교육을 이수 레저컨설턴트가 상담부터 계약 및 예약까지 1:1 회원 전담 관리 체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소노호텔앤리조트 회원권의 가치는 '지속적인 개발과 인수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소노펠리체 델피노가 그랜드 오픈했으며, 남해에 위치한 브레이크힐스 등이 개발 중이다. 특히 이그제큐티브 클럽 멤버십은 회원권 시장에 없는 독보적인 혜택을 담은 멤버십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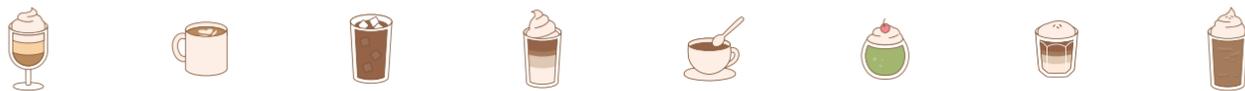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이번 신규회원 모집에 대한 분양 카탈로그를 배송해드립니다. KTX내 통화가 어려우실 경우, 문자 메시지로 성함 및 주소를 보내주세요. H.P 010-4140-6540

문의전화 02)2222.5917 (주말 및 24시간 상담가능)



꿈을 현실로 만드는 커피의 향연

올가을, '춘천 커피도시 페스타'에서 커피의 모든 것을 만나 보자.



상상할 수 있는 커피의 모든 것이 강원도 춘천에서 현실이 된다. 거두·퇴계길, 구봉산, 소양강댐, 육림고개, 호수길 카페거리를 품은 도시 춘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커피의 향연을 펼치는 것이다. 커피 마니아와 춘천을 방문하는 여행객이 다 만족스러운 '춘천 커피도시 페스타'는 9월 1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8일까지 사흘간 5대 카페거리와 춘천애니메이션박물관 일대를 그윽한 커피 향기로 물들인다. 올해 2회를 맞아 '샷 앤 샷. Let's Coffee 춘천'을 콘셉트로 정한 페스타는 역사, 인프라, 전문가의 삼박자를 갖춘 다양한 행사로 채워진다.

메타버스로도 즐기는 축제

우선, 콘셉트와 조화되도록 커피 부스와 사진을 배치한 행사장은 그 자체로 거대한 포토 존이 된다. 또 지난해 첫 행사에서 선보인 메타버스 플랫폼(metaverse.cccf.co.kr)을 무려 200만 명이 이용한 점을 감안해 올해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결합한 온·오프라인 합동 행사를 개최해 보다 많은 이가 페스타를 즐기도록 할 예정이다. 행사 내용도 알차다. 카페와 커피가 주제인 SNS 공모전, 커피 뮤직 콘서트, 한국커피협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미나는 물론이고 원 데이 클래스, 야간 영화 상영회, 어반스케치 전시회, 창작 커피 배틀, 로스팅 체험 등 갖가지 행사가 페스타 기간 내내 쉴 새 없이 이어진다. 일회용기 사용을 철저히 지양하는 친환경 축제라는 점도 흠족하다.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개발한 원두, 드립 백, 캡슐 커피를 전시하는 춘천커피 브랜드관을 마련하는 것 또한 잊지 않았다. 지역 농산물 활용 상품관에서는 특산물과 연계한 음료 상품을 소개한다. 이 밖에 춘천 5대 카페거리 쿠폰 북 이벤트를 연다. 올가을, 커피의 모든 것을 만나러 춘천으로 떠나 보자.

문의 033-245-6993 www.cccf.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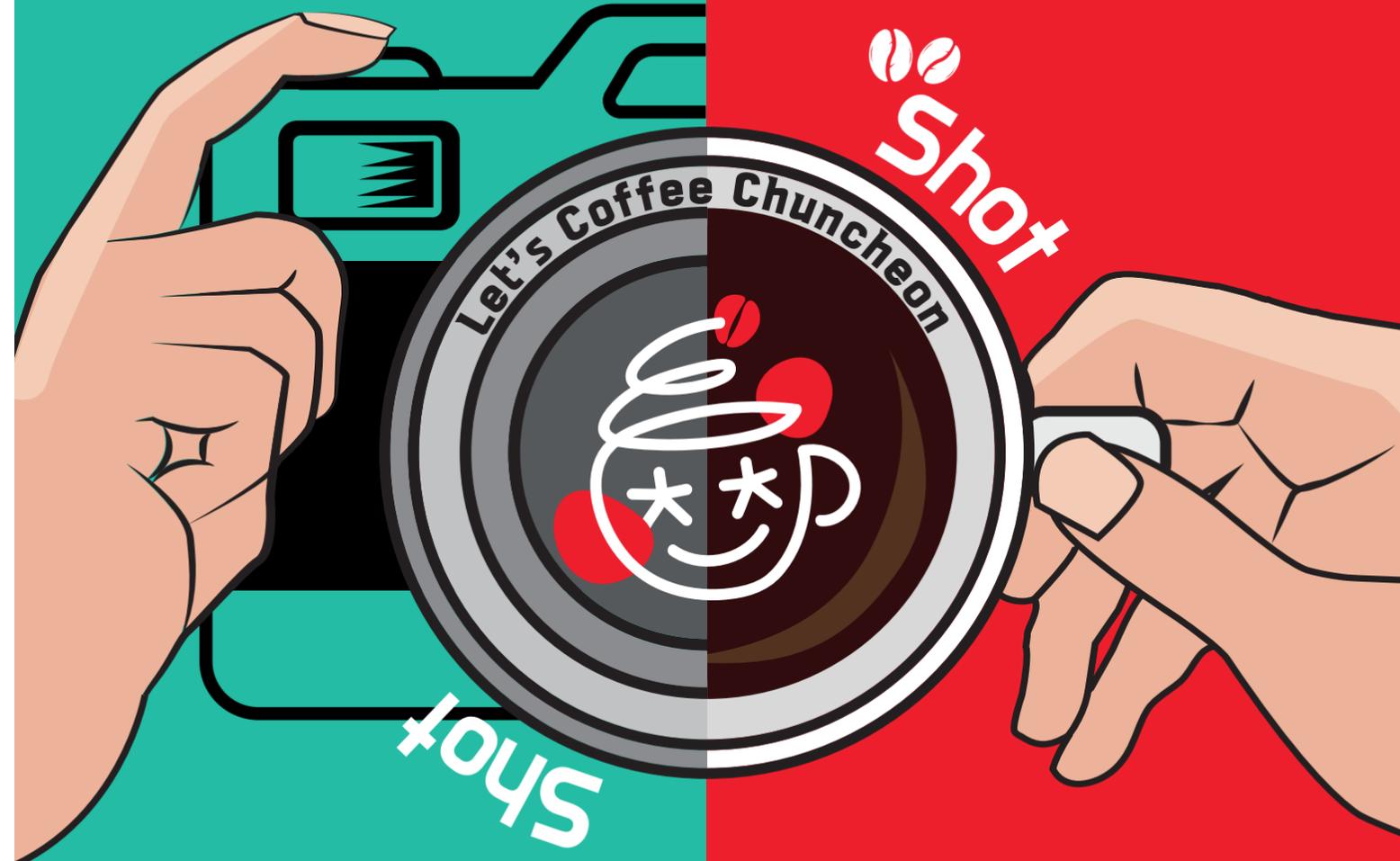


#ShotNShot

2022

춘천커피도시페스타

(커피&카페)



일시 9.16.(금)~18.(일)

장소 애니메이션 박물관 일원

개막식 9.15.(목) 17:00

온라인 <https://cccf.co.kr>

춘천커피도시 메타버스 플랫폼 SNS 이벤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오프라인 춘천 5개 카페거리 & 춘천애니메이션박물관 일원

- SNS 사진공모전 (춘천카페 & 커피 주제)
- 발라드 가수 '린'과 함께하는 커피뮤직콘서트
- 춘천카페 어반스케치 전시 & 원데이클래스
- 로스팅 체험, 창작커피 배틀, OX커피퀴즈쇼

프로모션

포항을 감싸는 클래식 음악 2022 포항음악제

철강 도시의 명성에 문화 도시라는 이름까지 더하고 있는 경북 포항이
국내외 최정상 아티스트들과 클래식 음악 페스티벌을 연다.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행복을 찾는다.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는 가장 쉬운 길 중 하나가 음악이다. 좋아하는 곡을 틀고 음악에 몸을 맡기거나, 흐르는 선율을 천천히 음미하면 금세 기분이 나아진다. 심을 위해서라도 음악과 삶은 떼려야 뗄 수 없다. 다가오는 10월,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포항이 선물 같은 음악 페스티벌을 준비했다.

문화 도시 포항이 들려주는 음악

포항음악제는 올해 두 번째로 열린다. 지난해 음악제가 '기억의 시작'을 주제로 문화 예술 도시로 기억될 포항의 서막을 알렸다면, 올해는 '운명, 마주하다'를 주제로 운명처럼 다가온 음악이 새로운 삶을 택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풀어 나간다. 메인 공연, 오전에 공연하는 마티네 콘서트 형식의 '포커스 스테이지' 등 대규모 실내악 공연이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포항에서 펼쳐진다.

더욱 높아진 수준, 알찬 프로그램

2022 포항음악제는 총 다섯 가지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난다. 먼저 음악제 기간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주제별 메인 공연을 선보인다. 여기에 바이올리니스트 벤자민 베일만과 테너 김재형, 첼리스트 에밀 로브너가 음악 전공자를 대상으로 강연하는 '마스터클래스', 시민과 클래식 음악에 대해 고찰하는 '클래식 강연', 포항시립포은중앙도서관 등 관내에서 벌어지는 '찾아가는 음악회', 마티네 콘서트 '포커스 스테이지'까지 그야말로 클래식 음악 향연이다. 포항 출신의 최정상급 첼리스트인 박유신 예술감독을 비롯해 실내악의 전설로 불리는 벨체아 콰르텟, 왕성한 연주 활동을 선보이는 선우예권·이유라·김영옥·김재영 등 유명 연주자까지 풍성한 라인업을 갖췄다. 10월이 오면 포항이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으로 가득 차겠다. 10년, 30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기억될 포항의 새 악장이 시작된다.



2022 포항음악제 '운명, 마주하다' 메인 공연 리스트

* 공연 시간 및 장소: 오후 7시 30분,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공연	날짜	연주곡	출연
운명 (The Destiny)	10월 7일(금)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 등	포항페스티벌 오케스트라, 김재형
조화 (The Harmony)	10월 8일(토)	모차르트, 오보에 사중주 F장조 등	김영옥, 이한나, 박유신 외
서선영&김기훈	10월 9일(일)	레온카발로, 오페라 <팔리아치> 중 '저 하늘 높이 새들은 지저귀고' 등	서선영, 김기훈
환상의 세계 (The World of Fantasy)	10월 10일(월)	슈베르트, '네 손을 위한 환상곡' 등	김재영, 이유라, 에밀 로브너 외
벨체아 콰르텟 (The Belcea Quartet)	10월 11일(화)	슈베르트, 현악 사중주 제12번 '크바르테트자츠' 등	벨체아 콰르텟
쇼스타코비치: 삶 (The Portrait of Shostakovich)	10월 12일(수)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삼중주 제1번 등	벤자민 베일만, 선우예권 외
삶의 찬가 (The Hymn of Life)	10월 13일(목)	드뷔시, 피아노 삼중주 G장조 등	벤자민 베일만, 김규현, 박유신, 선우예권 외

문의 포항문화재단 054-289-7830 예매 티켓링크 1588-7890



www.mfph.kr

포항문화예술회관 외 포항시 일원

주최/주관 포항문화재단 후원 한국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롱한 시절, 영주

이 계절의 풍류를 즐기러
경북 영주로 떠났다.
9월 30일에 막이 오를
2022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풍경도 미리 엿봤다.



명당기



비바람은 미처 산맥을 넘지 못했다. 늦은 장마가 한반도 허리계를 덮칠 즈음, 소백산에 안긴 경북 영주 풍기 땅은 기묘하리만큼 평온한 모습이었다. 잘생긴 소나무와 깎아지른 듯한 바위 사이로 금계천이 쏟아져 내리는 광경은 한 폭의 거대한 수묵화였고, 그 속엔 선계의 풍정이 깃들어 있었다. 두 발을 계곡 물에 담갔다. 차갑고 저릿한 감각이 온몸에 흐른다. 몸가짐이, 사상이 절로 깨끗해진다. 시선은 어느새 벼랑 위 금선정에 닿는다. 울퉁불퉁한 지형에 맞추어 설계한 까닭에 모든 기둥의 길이가 제각기 다르다던가. 자연을 대하는 선인들의 태도엔 어찌 그리 지극한 멋과 여유가 배어 있는 걸까. 늦더위를 식히는 탁족의 시간, 두서없는 말을 주워섬기는 과객 하나가 있었다.

인간과 인삼을 품어 기른 땅, 풍기

선비들의 놀이터, 금선정은 조선 정조 때 풍기군수로 재임한 이한일이 이 지역 출신인 선배 학자 금계 황준량을 기리기 위해 세운 정자다. 금선정 뒤쪽에는 금계가 글 읽고 노닐던 처소 금양정사가 있다. 금계의 후손들은 이곳에 조상의 위패와 그의 스승 퇴계 이황의 위패를 함께 모셔 놓고 해마다 제를 올린다. 이런 명당에 터를 닦아 준 조상이니 기리고 드높여야 마땅할 것이다. 명당이라는 말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금선정이 위치한 이곳 금계마을은 조선 후기에 유행한 예언서 <정감록>이 꼽은 십승지

- 금선정은 금계 황준량을 기리기 위해 지은 정자로, 풍기의 유서 깊은 선비 문화를 짐작하게 한다. 금선정이 위치한 금계리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풍기 인삼 시배지 표지석을 볼 수 있다. 문의 054-639-6601



명당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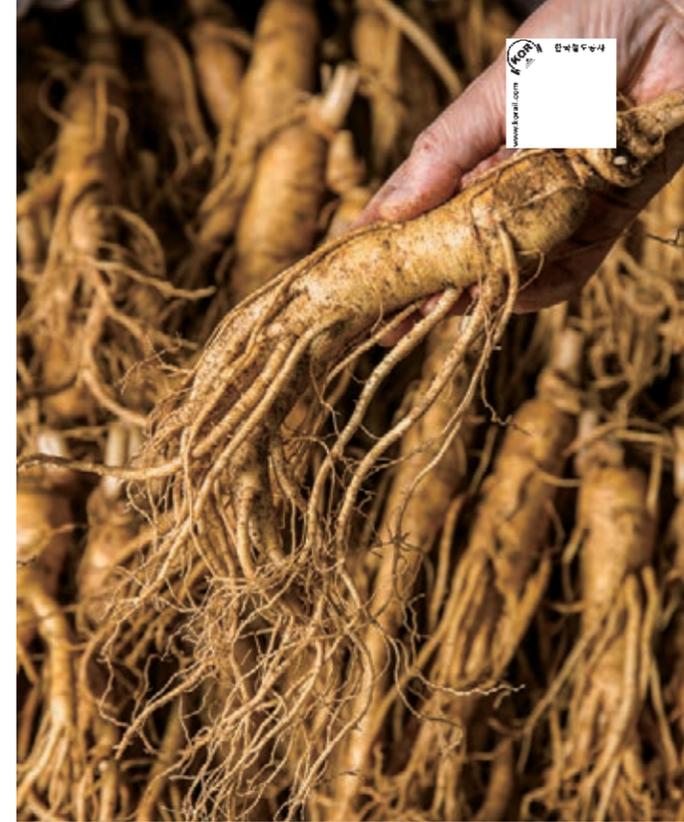


사람을 품고 기른 금계마을은 사람을 닮은 약용식물 인삼의 생육 환경으로도 더할나위 없었다. 풍기군수 주세봉의 혜안이 16세기부터 오늘날까지 풍기 사람의 삶을 돌보고 있다.

중 제1승지로 유명하다. 승지란 본래 경치가 아름답고 살기 좋은 명당을 뜻하는 말인데, 여기서 십승지는 산수가 훌륭함은 물론 재난을 피해 온전히 몸을 숨길 수 있는 열 곳의 피난처를 이른다. 소백산 자락의 풍요로운 산림자원, 금계천에 넘실거리는 물과 드넓은 농지가 백성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했을 것이다.

사람을 품고 기른 금계마을은 사람을 닮은 약용식물 인삼의 생육 환경으로도 더할나위 없었다. 서늘한 기후, 배수가 잘되는 마사토를 지닌 덕에 조식이 치밀하고 향이 강한 삼이 났다. 이 사실을 깨달은 이는 조선 중종 때 풍기군수를 지낸 주세봉이다. 그는 소수서원을 세운 위인이기 전에 누구보다 백성을 긍휼히 여긴 위정자다. 공납으로 고통받던 백성을 지휘해 소백산에서 자생하는 산삼 종자를 금계동 임실마을에 심어 인삼을 재배하게 한 것이 바로 그였다. 주세봉의 혜안이 16세기부터 오늘날까지 풍기 사람의 삶을 돌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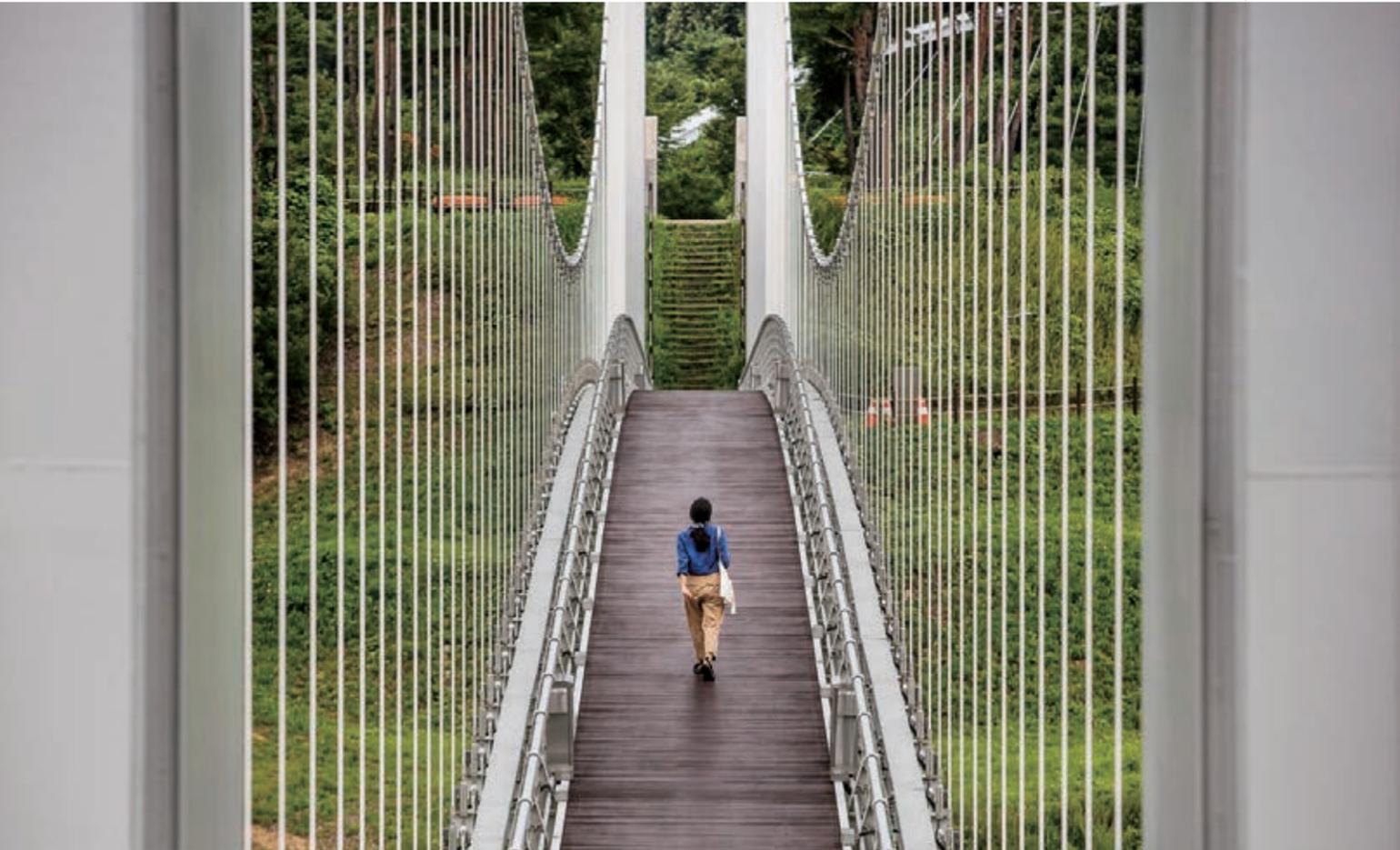
인삼을 수확하는 가을, 풍기 읍내엔 알싸하고 향긋한 냄새가 흐드러진다. 올가을은 더 특별하다. 2022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 잔치를 찾는 여행자라면 풍기역 근방에서 짧게 산책을 즐겨도 좋을 것이다. 금계리 풍기 인삼 시배지에서 금계로를 타고 죽 내려오면 풍기역에 이르는데, 예스러운 서체로 쓴 '풍기' 두 글자와 함께 커다란 인삼을 그려 넣은 급수탑과 풍기역 광장을 지나서 곧장 인삼로가 펼쳐진다. 인삼로 한편엔 풍기인삼시장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풍기읍치둘레길이 뻗어 간다. 총 일곱 구간으로 이루어진 벽화 거리인 풍기읍치둘레길의 첫 구간 너른 들거리는 풍기 인삼을 주제로 삼았다. "인삼은 오장의 부족한 기를 채워 주고, 정신과 혼백을 안정시켜 눈을 밝게 하며, 허약하고 기운이 약함을 보한다." 인삼의 효험을 기록한 <동의보감> 한 대목부터 인삼 재배 과정과 그 역사, 풍기 인삼 농가의 면모를 그린 알록달록한 벽화가 자꾸 눈길을, 발길을 잡아 끈다.



9월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 풍기인삼문화팝업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2022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는 생명력, 인류 행복, 미래 산업의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흥미진진한 축제의 장을 펼친다. 문의 054-639-4805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청량리역에서 KTX를 타고 영주역까지 1시간 40분 정도 걸린다. 풍기역에도 정차한다.



수면 위의 평화, 평은

풍기에 금계천이 있다면, 평은엔 내성천이 있다. 경북 봉화에서 발원한 내성천은 영주 평은면과 예천 보문면 일대를 지나 낙동강과 합류한다. 2008년에는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으로 선정되었고, 예부터 금빛 모래가 흘러다녔다고 해서 사천(沙川)이라고도 불렀다. 모두 옛일이다. 2016년 12월, 내성천이 굽어치던 평은면 용혈리·강동리·금광리 일원은 최대 저수량 1억 8000만 톤 규모의 중형급 다목적댐인 영주댐이 완공되면서 역사의 물길 속에 깊이 잠겼다. 영주호 아래 수몰된 마을의 흔적과 역사는 용혈삼거리 근방에 위치한 영주댐물문화관에서 짧게나마 훑어볼 수 있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평은면의 길고 긴 이야기와 눈부신 자연을 온전히 만나려거든 용마루공원으로 가야 한다. 담수 후에도 여전히 잠기지 않아 지붕처럼 솟아오른 지역을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한 결과물이 용마루공원이다. 약 16만 제곱미터(4만 8400평)의 드넓은 공원은 크게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뉜다. 금강마을과 동호마을 사이, 방문자의 집을 낀 도로를 타고 올라가면 전망대와 카페테리아가 우뚝 선 용마루 1공원이 있다. 공원 주차장 아래 계단을 따라 이어진 두 개의 다리를 건너면 용마루 2공원에 닿는다. 아치교인 용미교는 우아한 곡선이, 현수교인 용두교는 직선과 곡선이 이루는 웅장한 공간감이 두드러진다. 용두교가 끝나는 지점에 나타

- 용마루공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영주호 힐링 열두구비 코스를 천천히 걸어 보아도 좋다. 영주다목적댐에서 시작해 강동마루, 영주호 오토캠핑장을 지나 진월사 전망대에 이른다. 문의 054-639-6601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만 귓가에 찰랑거리는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옛 평은면의 모습을 그려 본다.
햇살을 난반사하는 모래톱, 느릿느릿 굽이치는 모래내...



난 작은 누각이 손님을 반긴다. 여기부터 본격적인 공
원 탐방로가 펼쳐진다. 영주호를 옆에 낀 탐방로엔 숲
내음이 그윽하다. 이따금 길바닥에, 탐방객의 정수리
에 도토리를 떨어뜨리는 참나무가 양옆으로 시원스레 자라
나 있어서다. 나무 텍 길이 끝나면 조촐한 기념비 광장
이 보인다. 두 개의 비석이 있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영주댐 수몰지 이주민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혔다. 그
모습을 얼마간 지켜보았다. 비석 너머엔 벤치 몇 개가
용기종기 놓여 있어, 그곳에서 다리를 쉬어 가기로 했
다. 새소리, 바람 소리, 물소리만 귓가에 찰랑거리는 시
간. 잠시 눈을 감고 옛 평은면의 모습을 그려 본다. 햇살
을 난반사하는 모래톱, 느릿느릿 굽이치는 모래내...

어제와 내일의 평은역

얼마나 걸었을까, 작은 건물 하나가 눈앞에 어른거린
다. 평은역이다. 해발 135미터, 수몰 지구 안에 위치해
영영 수장될 위기에 처한 옛 평은역사를 물 위로 옮겨
놓은 것이다. 1941년 영업을 시작한 평은역은 1990년
대 이후 화물열차를 주로 취급해 오다가 2007년 6월에
이르러 여객 수송 기능을 상실했고, 2013년 3월 28일
폐역이 되었다. 찾는 이는 드물었지만 오랜 세월 잘 보
존된 건물이 아담하고 아름다웠던 까닭에 TV 프로그
램에 왕왕 등장하곤 했다. 이전과 함께 복원 공사를 한
뒤로 옛 건물의 호젓한 정취는 찾기 어려워도, 앞으로
오래도록 새로운 이야기를 축적하며 그만의 역사를
만들어 갈 평은역이다.

용마루공원에 머무는 동안 자전거 여행자를 자주 마주
친다. 영주댐 일주도로와 자전거도로가 영주호를 살뜰
히 휘돌아 흐르기 때문이다. 자전거가 없어도 좋다. 문
평로 건너 용혈폭포가 보이는 지점에 영주시에서 운영
하는 공유 자전거 정거장이 있으니, 여기서 자전거를
빌려 영주댐 일주도로를 달리면 된다. 이왕 달리는 김
에 영주호 오토캠핑장에 여장을 풀고 호숫가에서 적요
한 밤을 맞는다. 광공해 없는 까망고 말간 하늘, 깊고 푸
른 숲이 자아내는 낭만을 만끽하면서.

● 영주호 오토캠핑장은 특별한 장비 없이 머물 수 있는 캐러밴형 숙소와
캐빈하우스, 가족 단위 숙박객을 위한 텍사이트, 숲속에 위치한
오토사이트 등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다. 문의 054-632-7400





관사골



기차와 함께 흐르는 역사, 관사골

“죽령을 넘어서 영주역으로 들어오던 증기기 관차는 늘 힘에 부쳐서 이런 소리를 냈다고 해요. 칙, 폭, 칙, 폭. ‘칙칙폭폭’보다 무거운 소리죠.” 류명희 문화관광해설사의 실감 나는 재연에 웃음이 터진다. 관사골협동조합 입구 담벼락에 부조로 설치된 기차의 커다란 앞머리를 마주하자니, 루미에르 형제의 영화 <열차의 도착> 속에 들어온 듯한 기분도 든다. 스크린으로 기차를 처음 마주했을 19세기 사람들의 당혹감, 철도가 놓이면서 새 시대를 맞이했을 옛 관사골 사람들의 흥분과 기대감을 잠시나마 헤아려 보았다. 도시와 문명, 처음과 시작을 표현하기에 기차만큼 강력한 상징물도 없을 것이다.

1940년대, 영주는 이제 막 근대 도시의 모습을 갖춰 가고 있었다. 그 중심에 관사골이 자리했다. 관사골이란 말 그대로 철도 관사가 모여 있는 골짜기란 뜻이다. 1941년 영주역이 문을 열고 중앙선이 개통하기에 앞서 역 뒤편 골짜기에 관사를 짓기 시작했고, 그것이 작은 부락을 이뤘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십수 채가 원형을 보존하고 있었지만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두서길 위에 나란히 자리한 5호(두서길 57), 7호(두서길 63) 관사뿐이다. 두 관사의 모습은 관사골협동조합에서 마카점방과 관사골 온실로 이어지는 산책로에 서면 훤히 내려다보인다. 일본식 주택의 전형인 5호, 7호 관사는 철도 공사 기술자의 숙소로 쓰였다. 옛 시

-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는 관사골과 광복로, 두서길 일대를 아우른다. 옛 영주역사 뒤편에 자리한 철도 관사, 근대 한옥, 이발소와 정미소 등 지역 생활과 풍속을 엿볼 수 있는 역사 탐방로다. 문의 054-634-3103



담자기



부용대는 관사골 산책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좋은 장소다. 부용정에 오르면 영주 구도심이 한눈에 펼쳐지기 때문이다. 주변엔 부용정만큼 전망 좋은 카페 두 곳이 나란히 붙어 있어 눈길을 끈다.



골목길 바닥엔 샛노랑계 칠한 철길이 놓였고, 빗바랜 담벼락 위에는 알록달록한 기차와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났다. 관사골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야외 갤러리가 탄생했다.

절은 빠르게 잊혔고, 관사골의 존재감도 차츰 희미해졌다. 관사골이라는 이름이 세간에 다시 오르내린 건 2010년대 중반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되고부터다. 가파른 골목길 바닥엔 샛노란 페인트로 칠한 철길이 놓였고, 빗바랜 담벼락 위에는 알록달록한 기차와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렇게 관사골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야외 갤러리가 탄생했다.

관사골이 갤러리라면, 광복로는 박물관이다. 관사가 자리한 두서길을 따라 골짜기 아래로 죽 내려가니 광복로에 닿는다. 구도심의 생활사가 깃든 건축물이 한데 늘어선 곳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석간 가옥이다. 명나라 황제의 어머니 병을 고쳐 준 값으로 99칸 집을 받았다는 전설을 간직한 집이다. 현재는 별채만 덩그러니 남았다. 광복로 한복판에 위치한 영광이 발관도 시선을 끈다. 1930년대에 국제이발관이라는 이름으로 개업했고, 시온이발관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가 한 이발사가 이곳을 인수하면서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영광이발관이라는 상호로 성업 중이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 80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 온 이발관은 그 자체로 귀히 여기는 사료다.

물론 관사골에는 이보다 더 오랜 세월을 버티고 선 것이 많다. 부용대가 그렇다. 퇴계 이황이 풍기군수를 지내던 때, 관사골 뒷산 기슭에 올라 주변 경치를 바라보았는데 그 풍광이 하도 곱고 아름다워 이곳을 부용대라 불렀다. 인조 14년에는 영천 고을 출신의 생원진사시 합격자 55인이 여기 모여 계를 만들고 풍류를 즐겼다고 한다. 부용대에서 이름을 딴 부용계가 이 모임의 이름이었다. 부용정에 올라 어둠이 한 겹 내린 영주 구도심을 굽어본다. 퇴계가 보았을 서천 물길은 아득히 멀고, 부용계 청년들이 사랑했던 버드나무 숲도 스러진 지 오래지만, 별처럼 불 밝힌 관사골 풍경은 여전히 따스하다. 마침 영주역으로 들어서는 기차가 혜성같이 긴 꼬리를 늘어뜨린 채 철로를 내달리고 있다. ㉞



2022 영주시티투어 선비 코스는 부석사, 소수서원 등 영주의 대표 문화유산과 관사골, 부용대를 두루 살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영주역에서 출발한다. 문의 054-634-5445



Yeongju, Embracing the Season

I headed to Yeongju, Gyeongsangbuk-do Province to appreciate the full ambience of autumn. The city will host the 2022 World Punggi Ginseng Expo, which will run beginning September 30.

The record rainfall did not cross the Sobaeksan Mountain Range. Unlike other parts of the country, the town of Punggi in Yeongju, Gyeongsangbuk-do Province was peculiarly peaceful. The waters of Geumgyecheon Stream are flowing in between fine-looking pine trees and sharply eroded rocks. As you take in the surroundings, your eyes are naturally drawn

to Geumseonjeong Pavilion, which sits atop a cliff. The structure was designed specifically for the uneven terrain, and as a result, the columns are all of different lengths. This clearly reflects the wisdom and grace of virtuous scholars in those days. Yeongju at this time of year is where you can enjoy the last leg of summer and embrace the coming fall.

Punggi, Famous for Ginseng Production

Geumgye Village, home to Geumseonjeong Pavilion, is the first of ten superior sites of refuge listed in *Jeonggamnok*, a prophetic book dating back to the late Joseon dynasty. The ten superior sites are beautiful places where people can seek refuge during wartime or disasters. The village offered the perfect growing conditions for ginseng, which resembles the shape of the human body. Thanks to the cool climate and decomposed granite soil, ginseng produced in this area has a denser structure and a stronger scent. The person who realized this early on in time was Ju Se-bung, who served as the governor of Punggi during the reign of Jungjong. He was the one who first ordered the people to plant wild ginseng seeds in a village in Geumgye-dong.

Every fall, the distinctive scent of ginseng spreads throughout Punggi. Another special event to look forward to this fall is the 2022 World Punggi Ginseng Expo. A walk near Punggi Station is recommended to visitors to the expo. From the first ginseng farm in Punggi, simply drive down Geumgye-ro to reach Punggi Station. Insam-ro is the stretch of road that appears right after passing the plaza. On one side is the Punggi Ginseng Market, and on the other is the Punggi Eupchi Trail. The first section of the trail features murals under the theme of Punggi ginseng.

Stories Along Train Tracks

The Yongmaru Park trail is a scenic footpath along Yeongjuho Lake. The trail is lined with oak trees, and acorns fall on the heads of visitors every once in a while. Soon, a small building comes into sight. It is none other than Pyeongeun Station. The station, which opened in 1941, was relocated from its former location in a submerged district. Passenger services stopped in June 2007, and the station eventually closed on March 28, 2013. The building is relatively new for an abandoned station, but more stories will be accumulated in time to come.



Yeongju Station has its own story to tell. In the 1940s, Yeongju was gradually becoming a modern city. Official residences for station workers were built to the back of Yeongju Station before its official opening in 1941. The area has reopened as an outdoor gallery. The railway tracks on the steep slope are painted in a bright yellow, and the faded walls are back to life with trains and passengers, exuding the same warmth as the early days. Yeongju Station is still in service today, and you will find trains heading there with comet-like tails streaming behind. 



영주의 볼거리 & 먹거리



↑ 풍기인삼시장 풍기역 바로 앞에 위치한 풍기인삼시장은 이 지역의 얼굴과도 같은 곳이다. 1990년 9월 개업한 이래 풍기 농가에서 공수한 질 좋은 인삼을 전시, 판매하고 있다. 수삼, 홍삼, 백삼은 물론이고 선삼, 흑삼, 발효삼 등 다양한 종류를 갖췄다. 상인들이 귀땀하기를, 인삼은 잔뿌리가 많고 굵을수록 생육이 잘된 개체로 판단한다. 풍기에는 이 외에도 죽령로의 풍기소백산인삼시장, 소백로의 풍기인삼도매시장, 풍기인삼농협 등 인삼을 판매하는 곳이 여럿 있다.

문의 054-636-7948



↑ 영주인삼박물관 풍기 인삼의 역사와 문화를 망라한 공간이다. 한국 인삼의 기원, 인삼 재배의 내력을 전시한 1층 전시실과 인삼의 효능, 생육 환경을 살펴볼 수 있는 2층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다. 인삼 고사를 지낼 만큼 정성을 다했던 농민들의 모습을 기록한 전시 자료가 특히 감동적으로 다가온다. 1층과 2층이 죽령옛길을 테마로 꾸민 완만한 경사로로 이어진 덕에 휠체어나 유아차로도 쉽게 접근한다. 박물관 바로 옆에 위치한 소백산 풍기 온천 리조트와 함께 휴양 여행 코스로 즐기기에 좋다.

문의 054-639-7686



↑ 풍기인삼갈비 한우와 인삼을 오랜 시간 고아낸 인삼갈비탕이 이곳의 대표 메뉴다. 농밀한 질감이 느껴지는 국물 한술에 기운이 솟는다. 밀반찬과 함께 나온 생인삼까지 꼭꼭 씹어 먹어야 제맛이다. 씹새래하고 시원한 잎 부분이 풍미를 더한다. 곰탕과 도가니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반반탕, 갈비와 도가니와 전복을 한데 넣은 원기회복탕도 더없이 든든하다. 열세 가지 한약재와 배, 생강, 양파, 대파를 넣고 푹 재운 풍기인삼돼지갈비도 별미다. 인삼막걸리나 인삼주를 곁들이면 운몽이 후끈해진다.

문의 054-635-2382



↑ 녹스고지 관사골과 부용대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카페. 전망대로서도 훌륭한 데다, 미술관처럼 단정하고 고즈넉한 인테리어가 커피맛을 돋운다. 수형이 아름다운 소나무 한 그루와 바위, 흐르는 물을 한데 완상할 수 있는 수정원이 운치를 더한다. 메뉴도 알차다. 복숭아 과육과 히비스커스 티의 만남이 매력적인 임복히 아이스티, 되직하게 갈아 넣은 곡물이 크림처럼 몽글몽글하게 느껴지는 오크슈페너, 자체 레시피로 정성껏 구워내는 베이커리가 눈과 입을 모두 즐겁게 한다.

문의 054-631-7217

환절기 건강 지킴이 리얼 프로 EP-MAK1

흘쩍 다가온 가을, 기술력을 집약한 파나소닉 안마의자 EP-MAK1을 만난다.



어느새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한결 시원해진 것을 느낀다. 더위가 물러갔다고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계절의 변화에 직면한 신체가 피로감과 중압감을 느끼기 쉬운 시기라서다. 이 가을, 누구보다 민감하고 사려 깊게 피로를 덜어 줄 건강 지킴이가 있다. 프리미엄 안마의자 업계에서 기술력을 선도해 온 파나소닉의 안마의자 리얼 프로 EP-MAK1이다. 우리 몸 구성요소 뭉친 근육을 전문가의 손길로 공들여 풀어 주는 리얼 프로 EP-MAK1이 환절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퍼스트 클래스의 품격이 깃든 안마 기술 집약체
전문가의 손놀림과 압력, 지압 패턴을 분석해 그대로 재현한 리얼 프로 EP-MAK1은 문제 부위에 효율적으로 접근해 지압, 스트레칭, 문지르기, 주무르기 등 다양한 마사지 코스를 수행한다. 사용자의 키와 신체 유형에 최적화한 맞춤형 안마를 선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마사지 볼이 받는 압력을 탐지하는 정교한 기술 덕분이다. 취향에 맞는 마사지 메뉴를 손쉽게 탐색하고 원하는 부위를 고를 수 있는 터치 패널 컨트롤러도 탑재했다. 최대 3명의 사용자가 세 부위를 조합해 설정한 후 등록할 수 있어 온 가족이 사용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편리하다.

운동하고 난 것처럼 개운한 어깨와 다리
리얼 프로 EP-MAK1의 온열 마사지 볼은 수평·수직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며 어깨선을 따라 세밀하게 압력을 전달하고, 어깨와 목 관절 주위를 시원하게 지압한다. 승모근 전체를 부드럽게 쓸어내리고, 3D 주무르기 기능으로 견갑골 측면을 따라 입체적으로 마사지해 어깨 결림은 물론 스트레스까지 완화한다. 허리를 밀어 올리는 시트 에어백과 골반, 다리 주위의 에어백은 하체가 부드럽게 이완되도록 돕는다.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뚝 전체를 기분 좋게 자극해 뭉친 부위를 풀어 주는 에어백 마사지도 놓칠 수 없다. 엄지 관절과 손바닥까지 에어백의 돌출부가 압박하고 자극해 피로를 온전히 해소한다.

문의 02-533-8452

+ EVENT 제7회 파나소닉 고객 초청 프로암 대회

9월 30일까지 파나소닉 안마의자 리얼 프로 EP-MAK1을 구매하는 고객 중 100명(50쌍)을 초청해 제7회 파나소닉 고객 초청 프로암 대회에 초대한다. 강원도 정선 하이원CC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US 여자 오픈 우승자 유소연, 이정은6 프로그가 참여해 필드를 빛낸다. 당첨자에게는 대회 전날 사용할 수 있는 하이원 호텔 1박 투숙권도 제공한다.

이벤트 진행 기간 9월 30일까지
대회 일시 및 장소 10월 17일 오전 7시, 정선 하이원CC

문학, 별 그리고 영월

방랑 시인 김삿갓의 고장, 강원도 영월에서 땅과 하늘을
훑어 반짝이는 이야기를 발견했다.



✚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청량리역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영월역까지 2시간 10분 정도 걸린다.

무궁화호가 속도를 줄이더니 영월역에 천천히 정차한다. 기차에서 내리자 유려한 산세가 가장 먼저 눈에 든다. 역 밖으로 나가 주변을 둘러본다. 방금 비가 멎어서인지 꾸물거리는 안개가 산과 강 위를 유영한다. 안개처럼 누벼볼까, 오묘한 풍경 속으로 발을 딛는다. 가을이 다가오는 즈음, 강원도 영월을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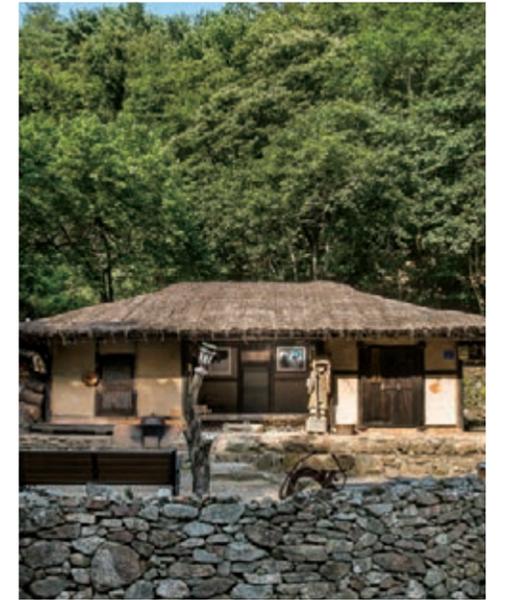
하늘을 볼 수 없는 사람, 김삿갓

TV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하는 ‘절대음감 게임’을 떠올려 본다. 다섯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차례로 한 음절씩 힌주어 발음하는 게임인데, 여기에 꼭 등장하는 제시어가 있다. 바로 ‘김삿갓삿갓’이다. 단어를 발음하고 나면 의문이 남는다. 김삿갓은 왜 김삿갓이 되었을까? 이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해 줄 곳이 난고 김삿갓 문학관이다. 서서히 걷히는 안개 사이로 삿갓 모양 지붕이 드러난다. 의문의 답은 저 문학관 안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김삿갓의 본명은 김병연이다. 조선 후기인 1807년, 그는 안동 김씨 가문에서 태어났다. 당시 안동 김씨 가문은 세도정치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의 삶은 탄탄대로가 예정된 셈이었다. 그러나 1811년, 서북 지방에서 일어난 홍경래의 난이 김병연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다. 홍경래의 난이 일어난 곳에서 관직을 지낸 김병연의 할아버지 김익순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난군에 항복하고 적에게 협력하는 대역죄를 저지른다. 본래 멸문지화를 당해야 마땅하나, 김익순만 처형되고 나머지 가족은 멸시를 피해 다니다 영월 산골짜기에 자리를 잡는다. 아무것도 모르는 김병연은 글짓



● 난고 김삿갓 문학관 가까이에는 난고 김삿갓 유적지가 있다. 김삿갓 동상과 묘, 그가 살았던 집터를 거닐며 방랑 시인의 삶을 훑는다.



기에 재능을 보이며 무럭무럭 자란다. 스무살이 되던 해, 그는 과거에서 김익순의 죄를 비판한 시를 지어 급제한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김익순이 자신의 할아버지임을 알게 된 그는 괴로워한다. 스스로 조상을 욕되게 한 꼴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얼마 후, 차마 하늘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큰 삿갓을 쓰고 집을 나서 방랑한다. 방랑 시인 김삿갓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후세에 천재 시인이라 불린 김삿갓은 57세의 나이로 전남 화순에서 눈을 감는다. 후에 그의 아들 김익균이 묘를 이장해 지금은 영월에 잠들어 있다.



시인의 자취, 난고 김삿갓 문학관

문학관 제1전시실은 김삿갓의 일생과 방랑 여정을 테마로 꾸몄다. 그는 기구한 과거로 양반의 삶을 등졌지만, 빛나는 재능까지 던지지는 않았다. 방랑하며 보고 느낀 것을 써 내려갔고, 때로는 시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다. “가련한 행색의 가련한 몸이/ 가련의 문 앞에 가련을 찾아 왔네/ 가련한 이 내 뜻을 가련에게 전하면/ 가련이 이 가련한 마음을 알아주

졌지”. 이름이 가련인 이에게 쓴 ‘가련기시(可憐妓詩)’다. 연마다 ‘가련’을 넣어 채치 있게 표현한 시처럼 김삿갓도 분명 유쾌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는 방랑을 하다 마을에 다다르면 서당이나 서원 같은 교육기관을 가장 먼저 찾았다 한다. 낡은 옷, 얼굴이 보이지 않는 큰 삿갓 등 외관만 보고 그를 문전박대하는 이도 많았다. 그럴 때 김병연은 화를 내기보단 시를 지었다. 걸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이들을 시를 이용하는 점잖은 방법으로 비판했다. 김병연의 시만큼 그와 관련한 설화가 무수할 정도이니, 김삿갓이란 이름이 전국에 널리 퍼진 이유도 짐작이 간다.

제2전시실에서는 김삿갓의 시를 읊고 쓴다. 벼룩, 고양이를 주제로 한 시 등 언어를 자유자재로 다루어 쓴 작품을 한 글자씩 곱씹는다. 김삿갓의 시 중 마음에 드는 구절을 선택해 터치패드에 시구절 쓰기, 김삿갓 시로 창작한 국악 듣기 등 체험거리도 다양하다. 소박하지만 알찬 문학관에서 시를 읊고, 쓰고, 음미하며 그의 생애를 훑어본다. 김삿갓이 방랑을 시작한 곳도 영월, 죽어서 묻힌 곳도 영월이다. 김삿갓의 시작과 끝에는 영월이 있었다.



● 영월은 매년 9~10월 난고 김삿갓 유적지에서 김삿갓의 정신과 문화 예술혼을 조명하는 김삿갓 문화제를 연다. 올해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한다. 문의 033-375-6353



하늘과 가까운 곳, 별마로천문대

김삿갓이 한평생 보지 않았던 하늘과 맞닿은 곳으로 올라간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가면 별마로천문대 앞에 도착한다. 별마로는 ‘별’과 ‘마루’, 고요할 ‘로(嚚)’의 합성어로 별을 보는 고요한 정상이란 뜻이다. 이름처럼 천문대 주위가 고요하다. 해발 799.8미터라 서늘한 기온도 감돈다. 천문대에 들어서자 한순간에 분위기가 바뀐다. 새까만 내부에 어리둥절했으나 어둠에 익숙해지니 여기저기서 무언가가 신비롭게 반짝인다. 흰 천에 빔 프로젝터로 영상을 쏘아 은하수를 표현한 ‘녹스의 물결’이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고, 우주의 탄생을 형상화한 미디어 아트 ‘카오스의 틈’이 1층 너른 벽면을 채웠다. “우아!”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탄성을 멈추지 않는다.

우주로 공간 이동을 한 것 같은 부푼 마음을 안고 지하 천체투영실로 내려간다. 좌석에 앉고는 버튼을 눌러 등받이를 젖힌다. 잠시 후 조명이 꺼지더니 천장의 돔 스크린에 별로 가득 찬 밤하늘이 펼쳐진다. 곧이어 천문해설사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별마로천문대 천체투



● ●
 고민이 있을 땐 밤하늘을
 올려다보거나 전국을
 돌며 방랑한 김삿갓처럼
 무작정 여행을 떠나 보자.
 삶의 이유를 찾으며
 헤매는 과정이 여행이자
 삶일 것이다.



〈KTX매거진〉×MBC 라디오 〈노중훈의 여행의 맛〉
 강원도 영월에 다녀온 〈KTX매거진〉이 MBC 표준FM 〈노중훈의 여행의 맛〉을 통해 독자, 청취자 여러분과 만납니다. 기자의 생생한 목소리로 취재 뒷이야기, 지면에 미처 소개하지 못한 여행 정보를 함께 들려 드립니다.
 본방송 2022년 9월 3일 오전 6시 5분(수도권 95.9MHz)



QR코드를 스캔하면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 별마로천문대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프로그램 참여 전 예약은 필수다. 문의 033-372-8445



영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별자리 여행을 떠나 볼까요?” 여행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힘차게 “네!”라고 대답한다. 계절 별자리를 찾는 법, 별자리에 얽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니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간다. 이번엔 주관측실과 보조관측실이 있는 4층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별마로천문대를 방문할 땐 ‘천문대는 밤에 가는 곳’이라는 생각은 넣어 뒀도 좋다. 낮에는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관찰하고, 밤에는 성운과 성단, 태양계의 행성과 달 등 여러 가지 천체를 관측해 언제든 하늘을 들여다볼 수 있다. 천문해설사가 설명하며 덧붙인다. “수없이 많은 별 사이에 태양과 지구가 있고, 지구에는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별을 세고 있자니 광활한 우주에 비해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는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고민이 있을 땐 밤하늘을 올려다보거나 전국을 방랑한 김삿갓처럼 여행을 떠나 보자. 존재 이유를 찾으며 헤매는 과정이 여행이자 삶일 것이다. 어느덧 하늘에 어둠이 내린다. 밤이 찾아와도 괜찮다. 우리의 여행은 이제 시작이니까. ㉞



햇살의 땅, 밀양

경남 밀양의 산과 강에 내리는 햇살은 은밀하며 동시에 선명한 이야기들을 만들어 왔다.

“밀양”이라 말하니 애뜻하고, 따듯하기도 한 여운이 입가에서 아른 거린다. 비밀스러운 혹은 환하게 맑은 이야기가 들려올 것 같은 밀양의 고운 어감. 뜻풀이 그대로 뽀뽀한 별이 깊숙이 내리쬐는 이 도시엔 햇살의 풍경이 두텁게 어리었다. 화악·재약·천태·운문의 산줄기가 겹겹이 솟아오른 사이에서 밀양강이 남하하고, 그 아래 낙동강은 삼랑진을 휘감아 바다로 나아간다. 산이 그윽하며 강물이 유유히 빛살이 차곡차곡 담기는 땅의 경관은 봄부터 겨울까지 찬연하다. 봄이면 중남산에 진달래와 철쭉이 만발한다. 여름엔 얼음골 너덜 지대에서 얼음이 청량한 바람을 선사한다. 가을 재약산의 억새가 아름답고, 눈 내린 겨울 시례호박소엔 그지없이 고요한 서정이 흐른다. 밀양에 터 잡은 삶의 풍경도 자연만큼이나 정취가 깊다. 도심에서 밀양강을 내려다보는 영남루는 신라 시대에 사찰로 창건했으나 허물어지고 일어서는 과정을 반복했다. 결국 1844년에 재건해 지금껏 자리를 지키면서 밀양의 햇살과 밤빛을 비추고 있다. 조선 시대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한 월연 이태 선생이 1520년에 세웠다고 알려진 별서 월연정 또한 소실과 중건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마당에 아롱진 연분홍 배롱나무 꽃과 밀양강 정경을 모아 펼쳐는 별서가 사위에 포근한 기운을 내준다. 한때 빛바래도 기어이 반짝이는 삶을, 이 대지는 너그러이 품어 왔다. 그리하여 얼마나 많은 사연이 유장한 세월 동안 이곳에 쌓였을 것인지. 사계절 수려한 곳, 사람이 건설한 밀양은 어디에서나 속 넓은 이야기가 피어오른다.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에 등장한 위양지, 드라마 <아랑사또전>에 나온 영남루, 영화 <밀양>의 배경이 된 도심 일대엔 현재도 영상 속 장면들처럼 자연과 사람이 가만가만 어우러져 이야깃거리를 만든다. “밀양”이라고 말하니 여전히 애뜻하며 따듯하기도 한 여운. 입가에 맴도는 그 고운 어감을 들이쉬어 본다. 산이 솟아오르고, 강이 남하하고, 억새가 흔들리는 뽀뽀한 별의 대지가 가슴에 두텁게 어리어 간다. **㉠**

The word “Miryang” leaves a feeling of affection and warmth. It possesses a secretive allure, and at the same time, is infused with bright purity. True to the literal meaning of its name, the city is enveloped in sunshine. Miryanggang River flows southwards between mountains, and Nakdonggang River bends around Samnangjin before heading out to sea. The majestic landscape formed by mountains and rivers stays dazzling throughout the year, regardless of season. In spring, Jongnamsan Mountain becomes covered with Korean rosebay and royal azalea blossoms. In summer, the ice valley called Eoreumgol Valley is immensely popular for its cool temperatures. The silver grass plains of Jaeyaksan Mountain are at their most elegant in fall, and the snow-covered Hobaksogyegok Valley in winter delivers peace and serenity like no other. The scenes of life in Miryang are as poetic as nature. Yeongnamnu Pavilion, which overlooks Miryanggang River, was built during the Silla Period. It was repeatedly torn down and reconstructed, and the structure you see today is the 1844 reconstruction. Miryang, known for its beautiful four seasons and diligent people, has served as a filming location for many movies and dramas. It is home to Wiyangji Pond, featured in the film *My Brilliant Life*, and the familiar urban scenes in *Secret Sunshine*. With its abundance of sunshine, Miryang continues to warm the hearts of many to this day. **㉠**





이곳에서 촬영했어요



드라마 **붉은 단심** @금시당 백곡재



자신을 폐위하려는 세력에 둘러싸여 왕이 된 이태는 왕권을 강화하고자 냉혹한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정적인 유정을 마음에 두게 되고, 권력과 사랑 사이에서 고뇌에 빠진다. 조선을 배경으로 한 이 시극에서 유정이 머무르는 거처인 금시당 백곡재는 빼어난 영상미를 선보인다. 마루에 걸터앉은 유정 뒤에서 노란 은행나무가 애절한 분위기를 고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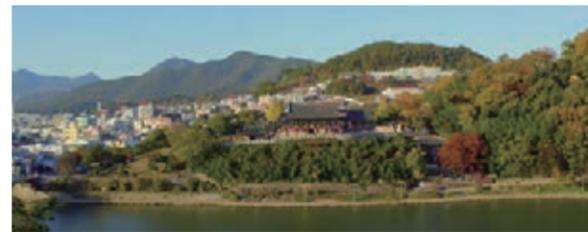
Bloody Heart is a television series set in Joseon. Lee Tae devises a plan to rule as an absolute monarch, but falls in love with Yu-jeong, the daughter of a noble family. Geumsidang Baekgokjae, Yu-jeong's residence, and the beautiful ginkgo trees enhance the visual appeal of the drama.



뮤직비디오
〈동지설달 꽃 본 듯이〉
@영남루, 충혼탑

세계에서 명성을 떨치는 아카펠라 그룹 메이트리가 2019년 밀양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했다.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민요 '밀양아리랑'을 산뜻하고 경쾌하게 부르면서 영남루와 충혼탑 그리고 밀양의 산과 도심을 누비는 장면을 담았다. 메이트리는 같은 해 '아리랑' 세계문화유산 등재 7주년을 기념하는 무대에서도 이 노래를 불러 박수갈채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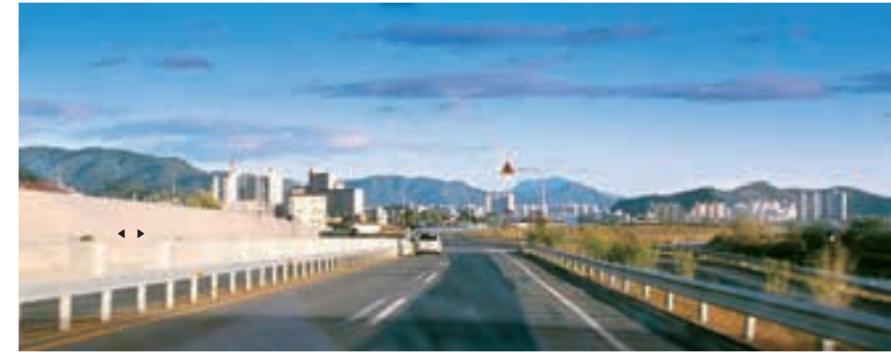
The acapella group Maytree filmed a music video in Miryang in 2019. In the music video, they sing a modern reinterpretation of Miryang Arirang with Yeongnamnu Pavilion and Chungontap Pagoda as the backdrop. The group sang the same song in celebration of the 7th anniversary of Arirang's as an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영화
〈소리굽쇠〉 @삼랑진 일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박옥선 할머니는 밀양에서 태어났다. 17세인 1941년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끌려간 뒤 해방이 될 때까지 고통을 받았다. 98세인 현재도 그때를 생생하게 증언하는 박옥선 할머니의 삶을 독립 영화로 다루었다. 대부분 장면을 밀양에서 촬영한 영화는 피해자의 호소가 묻혀 버리고 아픈 대물림되는 현실을 보여 주었다.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될 이 땅의 비극이다.

Park Ok-seon, a "comfort woman" survivor, was born in Miryang. She was abducted in 1941, when Japanese troops tricked her into thinking that she was getting a job. *Tuning Fork* is an independent movie on the life of Park. The movie, most of which was filmed in Miryang, presents the harsh reality faced by survivors.



영화 **〈밀양〉** @밀양역 등



개봉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회자되는 영화 **〈밀양〉**에서 쏟아지는 햇살은 주인공 신애가 그토록 바라던 구원이거나 그를 쓰러지게 하는 절망으로 다가온다. 그렇게 햇살 가득하던 영화 속 밀양역, 도심 거리 풍경이 오늘날에도 곳곳에 잔잔하게 고여 있다. 밀양시는 주요 촬영지였던 세트장을 매입하고 카페로 단장해 여행객을 맞이한다.

Secret Sunshine, which was released 15 years ago, is still much talked about. In the film, the protagonist Shin-ae experiences both salvation and overwhelming despair. The sunshine-filled Miryang Station and urban landscapes can still be found today.

금빛 찬란한 지하 세계

어둠에서 빛을, 과거에서 이야기를 캔다.
경기도 광명 광명동굴에서 땅속으로 모험을 떠났다.

광명동굴





QR코드를 스캔하면
광명동굴을 동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영상 이진영



어부는 바다로 출근했다 물으로 퇴근하고, 광부는 땅속으로 출근했다 땅 밖으로 퇴근했다. 50년 전까지 광부가 오늘치 광물을 캐러 들어갔을 동굴 입구에 서자 땅속의 바람이 불어왔다. 땅속과 밖의 온도, 기압 차가 만든 바람은 거세다. 이 바람을 맞으며 광부는 그날의 마지막 자연광을 보고 어두컴컴한 구멍으로 뚜벅뚜벅 걸어갔을 것이다. 그랬던 광명동굴이 어제의 역사를 안고 문화와 생태, 이야기를 녹인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 여행객을 맞는다. 바람을 헤치고 다다른 입구는 어둑해 걸음이 느려졌다. 뒤로는 빛이 벌써 저만큼 멀다. 차츰 눈이 적응해 울퉁불퉁한 돌 천장과 벽이 보이고, 갱도 가장자리를 따라 흐르는 물이 귀를 깨워 존재를 알린다. 땅속 또 다른 세상, 동굴로 입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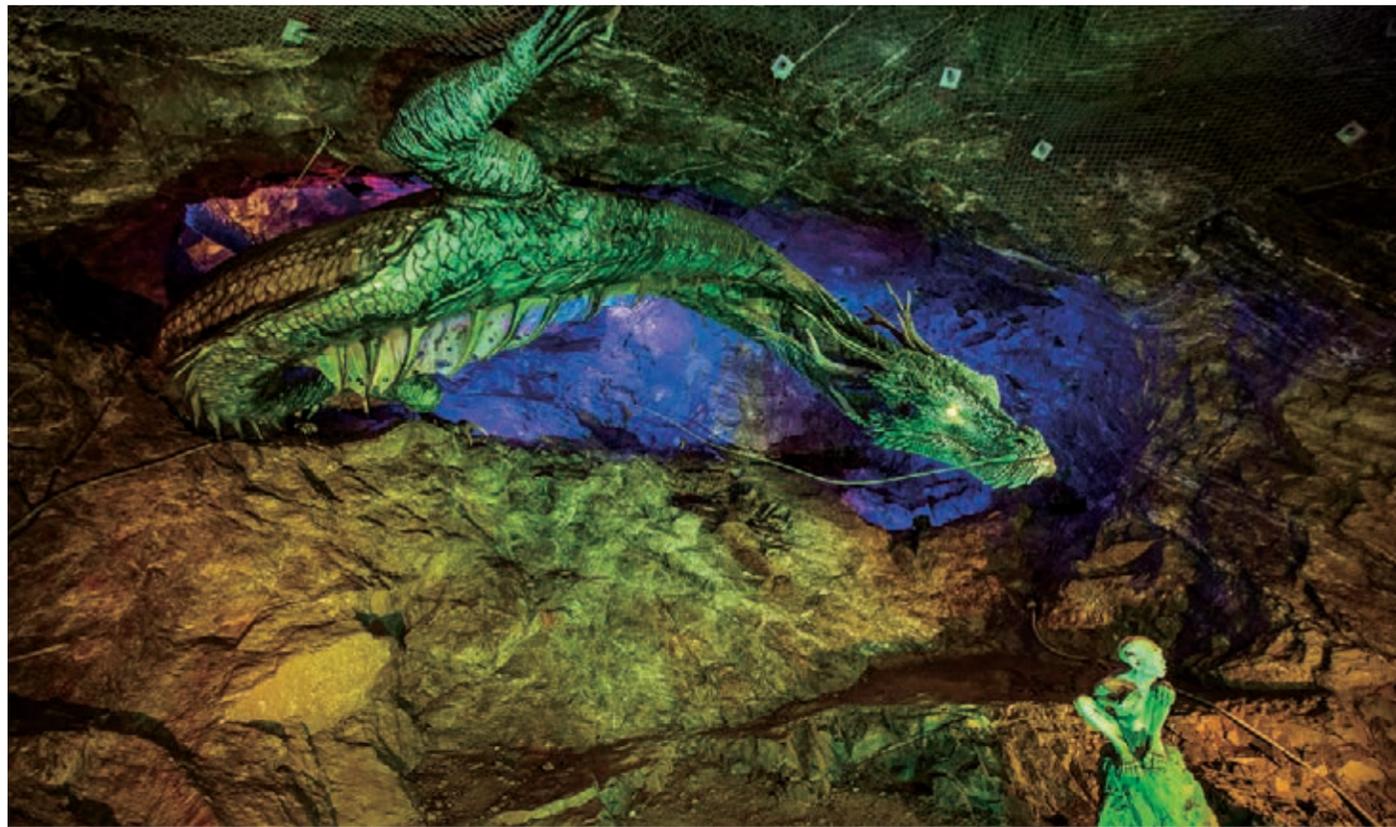
동굴로 할 수 있는 모든 상상

수많은 광산이 그렇듯 광명동굴은 일제강점기에 채굴을 시작했다. 남의 나라를 쥐어짜 빼낼 수 있는 물자는 몽땅 쓸어담아 가느라 이 땅 곳곳을 파헤친 일제의 손이 가학산에도 미쳤다. 학을 닦아서 가학산이라 이름했더니, 오랫동안 주민과 함께하며 정들었을 산이다. 산을 파고 그 안의 광물을 끄집어내 이득을 얻는다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을 사람들이 등 떠밀려 광산을 일구었다. 당시 행정구역상 시흥군에 속해 시흥광산이라 부른 곳은 1903년 처음 기록에 등장하고 1912년 설립되었다. 여기서 캐낸 피 같은 금, 은, 동, 아연이 일제를 배불리고 전쟁하는 데 쓰였다. 광산은 광복 이후 산업화 시기에 600명 넘는 광부가 일하고 하루 350톤 광물을 채굴해 경제성장에 기여하다가 1972년 8월 홍수로 문을 닫는다. 광부는 흩어지고 갱도엔 지하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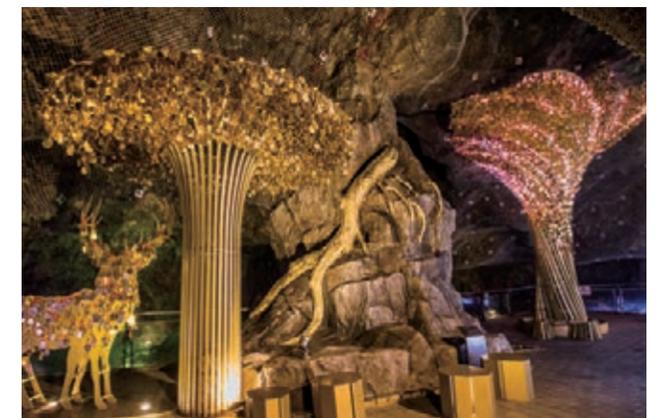
들어차 수십 년의 고달픈 시절이 땅속 물 밑에 가라앉았다. 일부만이 새우젓 보관소로 사용되었으니, 별이 들지 않고 기온이 서늘해 젓갈을 저장하는 데 적합했기 때문이다. 2011년 광명시가 광산을 매입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다. 해발 220미터 산에 275미터를 파 내려가 7.8킬로미터 길이의 갱도를 낸 역사와 눈물, 노력을 기념하기로 했다. 갱도의 층을 레벨이라 부르는데, 9개 레벨로 이루어진 광산에서 해발 102미터인 0레벨과 해발 75미터인 지하1레벨 일부를 단장해 2012년 광명동굴로 개방했다. 전체 갱도 7.8킬로미터 가운데 2킬로미터 남짓한 구간이다. 아래쪽은 폐광한 지 오래되어 지하수에 잠겼고, 2킬로미터 구간만 해도 동굴의 면모를 만끽하기엔 전혀 부족하지 않다.

다른 세상에 들어섰음을 알리듯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 속을 100여 미터 걸어 갱도가 나뉘는 워홀광장에 선다. 천장에 꽃이 흐드러진 광장은 조명도 은은히 밝혀 사진 찍기 좋다. 천연이 아닌 인공 동굴이라 조명을 켜고 내부를 꾸미는데 제약이 없어 자유롭다. 내부 시설 또한 상상의 범위를 뛰어넘는다. 벽과 천장에 작은 조명을 알알이 달아 색깔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갱도를 지나자 아쿠아월드다. 동굴 안에 수족관이라니! 희귀 어종인 금룡을 비롯해 피라냐, 모래무지, 납자루, 문피시 등 토종 물고기와 세계의 물고기를 모았다. 동굴의 깨끗한 암반수로 온도를 맞추어 정성스럽게 기르는 물고기다. 몸이 투명해 검은 뼈가 다 비치는 글라스캣 피시가 특히 신기해 눈을 사로잡았다. 그 옆으로는 예술의전당이다. 300석 규모의 공연장에서는 콘서트, 패션쇼, 권투 세계 타이틀 매치 같은 행사가 열렸고, 상시 미디어 파사드 쇼를 진행한다. 거친 벽을 스크린 삼은 쇼가 환상적 느낌을 자아낸다. 이 산을 이룬 암석은 편

일제강점기인 1912년부터 금, 은, 동, 아연 등을 채굴하다 1972년 문을 닫은 광산을 광명시가 2012년 광명동굴로 다시 선보였다. 2킬로미터 거리의 갱도를 오르내리며 역사관, 아쿠아월드, 예술의전당, 황금폭포, 동굴의제왕, 와인동굴 같은 시설이 이어져 감상하고 배우고 느끼고 사진 찍기 좋다. 문의 070-4277-8902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광명역까지 15분 정도 걸린다. 수도권 전철 1호선도 광명역에 정차한다.





별이 들지 않고 연중 기온이 12도로 서늘한 동굴은 와인 품질을 최상으로 유지해 준다. 광명동굴은 포도·사과·복숭아·오미자 와인 등 한국 전역의 와인을 구경하고 마시고 구입할 수 있는 곳이다. 매년 '광명동굴 대한민국 와인 페스티벌'도 여는데, 올해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암과 석회규산염암이다. 광부는 돌이 단단해 한 시간을 작업해 겨우 1미터 50센티미터 정도 팠다고 증언했다. 한 시간에 두어 걸음이다. 해발 220미터가 등산객에겐 만만해도, 그 안을 파 들어가야 하는 이에게는 얼마나 막막했을까. 매 순간 절벽 앞에 선 기분이었겠다. 내가 뚫고 나가야 하는 절벽. 그분들의 노고가 이토록 거대한 공간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미디어 쇼 이상으로 경이롭다.

소망의초신성 구역은 황금빛으로 번쩍번쩍하다. 1955년부터 1972년까지 광산에서 캔 금의 양이 52킬로그램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얼마나 많이 가져갔을지 기록이 없어 짐작도 못 한다. 광산의 과거를 말해 주듯 황금을 테마로 한 동굴에서는 황금패에 소원을 써서 달아 놓는 체험을 할 수 있다. 갓 태어난 별의 기운을 받아 사람들이 소원을 빈다. 건강, 행복, 합격, 취업. 황금패가 늘어나 천장에 붙이고 벽에 걸고도 모자라 황금색 나무 조형물을 세웠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길, 아픈 사람은 사랑하는 이 곁에서 건강해지길, 그리운 사람은 만나길, 바로 옆의 행복을 어리석게 놓치지 말고 잡아서 누리길. 광부가 간절한 소원을 품은 채 빛을 등지고 들어와 돌을 깬 공간에서 후손이 비슷한 소원을 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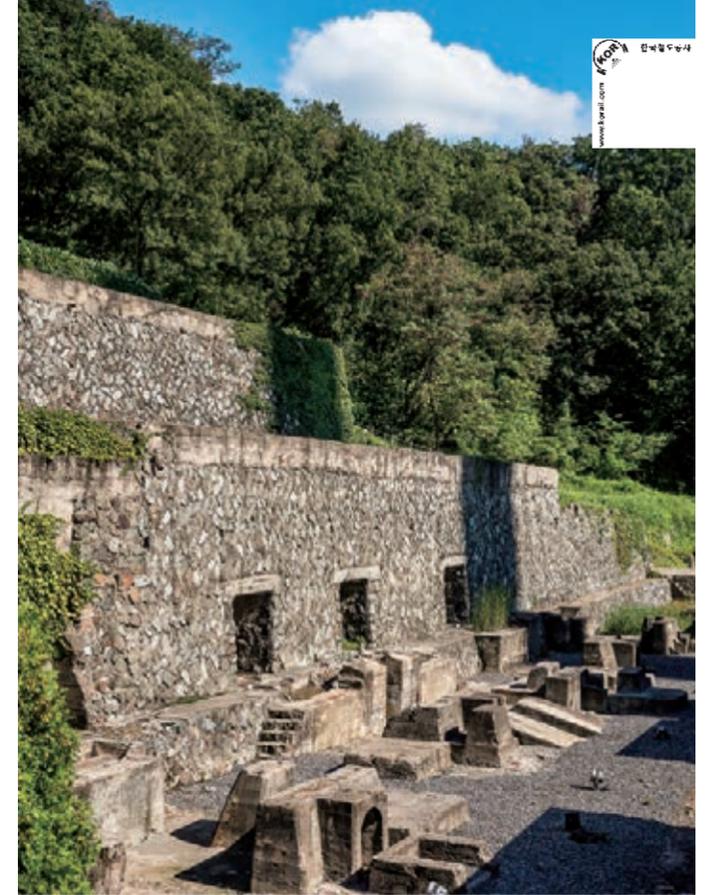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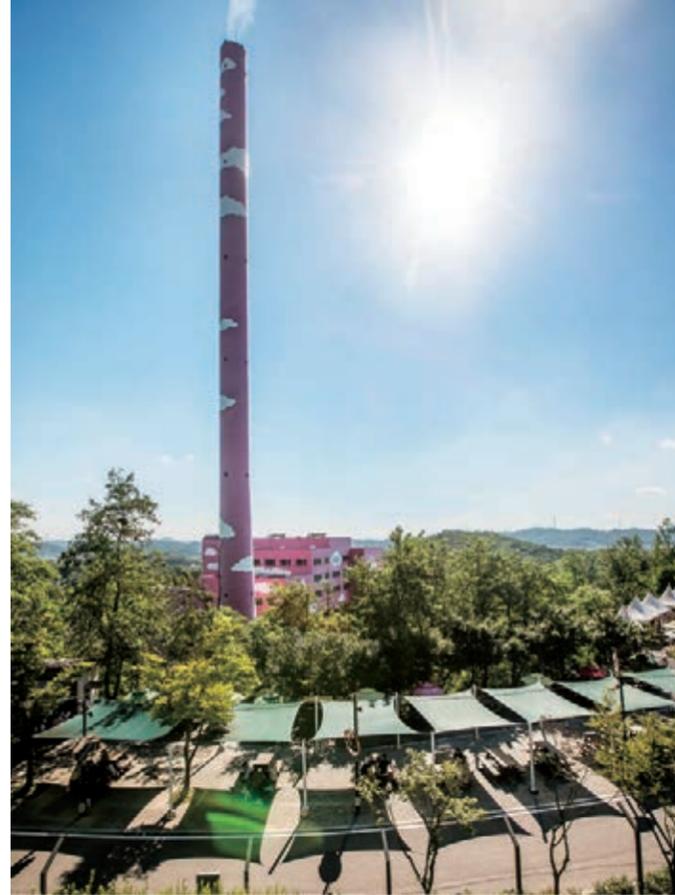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고 올라가며 다양한 공간을 탐험한다. 동굴의제왕 구역에는 영화 <반지의 제왕> <아바타>로 유명한 웨타워크숍이 제작한 800킬로그램 무게의 용이 돌 사이에서 나타나고 골뎠이 쪼그리고 앉아 있다. 번갯불 같은 조명이 들어올 때마다 빛을 받는 간달프의 지팡이도 신비롭다. <반지의 제왕: 반지 원정대>에서 광산이 주요 배경으로 등장했으니 자리를 잘 고른 셈이다. 이처럼 광명동굴

은 단순한 놀이 시설을 넘어 동굴이라는 공간의 특성과 광산으로서 지닌 역사성을 활용해 상상력을 펼쳐 보인다는 점이 더욱 의미 깊다.

실제 식물을 재배하는 식물원, 광산의 과거를 보여 주는 근대역사관을 거쳐 마지막에는 와인동굴로 간다. 포도·사과·복숭아·오미자·매실 등 한국에서 기른 과실이 향기로운 와인이 되어 손님을 유혹한다. 새우젓에 적합한 온도와 습도는 와인 보관에도 최적이다. 이토록 많은 와인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기회가 또 있으랴. 와인병과 라벨도 하나하나 개성 만점인 데다 예뻐 한참을 구경했다.

이 노고 위에서 또 다른 시작을

해발 75미터에서 102미터까지, 2킬로미터 거리의 땅속을 누비다 밖으로 나왔다. 빛은 눈부시고 기온도 완전히 차이가 나서 다른 세상에 다녀온 느낌이다. 발아래가 큰 동굴이다. 내가 누군가의 노고 위에서 있음을 실감한다. 산에는 산책로를 조성해 여운을 음미하기 좋다. 입구 근처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는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역사의 아픔을 생각하며 눈을 잠시 감았다. 황금은 어디서 나오는가. 백화점, 공장이 아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돌에서 금을 캔다. 찬란한 금빛은 어둠에서 탄생했다. 땅속에 한 세상을 만들어 빛을 꺼낸 이들에게 존경을. 한 걸음 한 걸음이 신비로운 모험인 광명동굴에서 생각한다. 지금 내게 절벽처럼 다가오는 어느 상황이 황금을 품었는지 모른다고. 동굴을 뒤로하고 빛으로 발을 내디딘다. 또 다른 탐험을 시작한다. ㉞



달을 품은 곳

한가위, 달이 차오르니 마음도 설렌다. 이름에 달이 깃든 산, 섬, 연못, 마을 찾아 여행을 떠난다.

산

달 가까이
숫다

추월산秋月山

경남 담양, 전북 순창

가을과 달을 품은 산. 어느 가을밤, 울긋불긋한 산 아래서 바라본 봉우리가 마치 달에 닿을 것처럼 높이 솟았다는 데서 유래한 이름이다. 이 계절엔 옹마루길을 가볍게 걸어 봐도 좋겠다. 담양호를 가로지르는 목교에서 출발해 두 시간이면 넉넉히 왕복할 수 있는 둘레길이다. 투명한 물빛의 호수를 옆에 끼고 걷느라 지루한 줄도 모른다. 탐방로 종점의 표지판을 따라 등산 코스로 이어지는 수행자의 길을 걸어도 좋다.

문의 061-380-2794

섬

달이 봉우리에
뜨다

산달도山達島

경남 거제

이곳을 찾는다면 세 계절에 걸쳐 달을 바라보고 싶다. 산달도라는 이름은 계절마다 달이 세 봉우리 위로 위치를 옮겨 가며 떠오르는 모습에서 따왔다. 이름에 들어 있는 '통달할 달(達)' 자는 하늘에 뜬 달을 음차한 것이다. 이 섬을 찾는 많은 이가 자전거를 탄다. 길이 평평하고 경사가 있더라도 완만한 편이라 자전거로 섬을 일주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다. 2018년에 거제면 소량리와 섬을 잇는 산달연도교가 놓이면서 육지와 가까워졌다.

문의 055-637-8833

연못

달이 수면에
비치다

월지月池

경북 경주

“궁궐 안에 연못을 파고 산을 만들 어...” (삼국사기) 속 월지 이야기다. 긴 세월 안압지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동궁과 월지는 오랜 발굴 조사를 거쳐 2011년 7월부터 제이름을 되찾았다. 토기 파편을 통해 본래 이름을 추정할 수 있었는데, 이로써 동궁은 한때 월지궁이라고 불렸다는 설도 제기됐다. 장방형의 월지는 통일신라의 정원 양식을 보여주는 대표적 문화유산이다. 천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는 월지에서 밤 나들이를 즐긴다.

문의 054-750-8655

마을

달이 바다에
머물다

월정리月汀里

제주도 제주

제주 바다야 다 이름답지만, 섬 동북쪽에 펼쳐진 월정리 앞바다의 푸르고 오묘한 빛깔은 언제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아직 한낮의 더위가 가시지 않은 초가을, 바라보기만 할 게 아니라 직접 뛰어들어 본다. 서프보드에 올라 하얀 파도를 가르고, 카약 위에서 바람 따라 노를 젓고, 스노클링을 하며 온 힘을 다해 헤엄 친다. 그리고 나면 어둠이 내릴 것이다. '달 월(月) 자에 '물가 정(汀)' 자를 쓴 마을 이름을 떠올리며 고운 달, 찬 달을 맞이한다.

문의 064-783-5798



2022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

WORLD PUNGGI GINSENG EXPO, YEONGJU, KOREA

2022. 9. 30. ~ 10. 23. (24일간) 경북 영주시 풍기인삼문화팝업공원 일원

주최·주관 영주시 (재)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홋카이도
기차 여행



일본 홋카이도의 정취 속으로 들어갔다. 이 계절에도 들판과 강, 도시가 겨울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 주었다.

후재 철조 JR 홋카이도

홋카이도는 초록이 우거진 계절이었다. 덴구산 로프웨이를 타고 해발 500여 미터 전망대에 올라 오타루 시내를 내려다봤다. 방과제 안쪽으로 포구와 운하, 건물들이 웅기종기 모여있으며 수평선은 구름에 덮여 보이지 않았다. 산허리를 스치는 동안 푸른 공기를 문히 해풍이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털어 주었다. 풀벌레 우는 전망대를 숲의 경관과 함께 계속 산책했다.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는 여름이었고, 섬 서편 자기마한 도시 오타루엔 숲 향기가 다부지게 내려앉아 있었다.

홋카이도의 싱그러운 경관, 오타루

겨울 설원이 떠오르는 홋카이도를 이 계절에 여행했다. 신치토세 공항역에서 열차를 타고 오타루, 비에이, 후라노를 감상하는 여정이었다. 바다부터 구릉지까지 자분자분 훑으면서 눈 내린 별판의 이미지는 잠시 접어 두었다. 지금으로도 홋카이도는 충분했기 때문이다. 오타루역으로 향하는 열차가 보여 준 바다, 덴구산 전망대 풍경, 그리고 오타루 운하의 정취로 마음은 선선하게 젖어 들었다. 덴구산 전망대에서 내려와 상점가인 사카이마치 거리를 걸어 오타루 운하에 다다랐을 때는 어스름이 내리는 중이었다. 과거 선박에서 하역한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였으나, 이제는 카페와 레스토랑이 된 공간에 밤을 즐기는 사람이 가득했다. 어느덧 가스등을 켜 운하 산책로를 따라서 오타루의, 홋카이도의 싱그러운 밤을 만끽했다.

● 올해로 문을 연 지 30주년을 맞은 신치토세 공항역에서 JR홋카이도 레일패스를 판매한다. 세 가지 구성의 레일패스 중 여정에 따라 선택해 구매하면 각 기간 동안 홋카이도 열차를 저렴한 가격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꽃이 만발한 비에이와 후라노의 들녘

삿포로로 돌아와 후라노 라벤더 익스프레스를 탔다. 꽃이 만발하는 6~8월에 홋카이도를 임시 운행하는 열차로, 라운지 객차 좌석이 차창을 마주한 덕분에 경치를 누리기에 더할 나위 없다. 열차는 들녘을 평온하게 가르며 비에이로 나아갔다. 고이 흘러내리는 능선, 누렇게 익어 가는 땅의 목가적 풍경이 내내 차창에 투영되었다. 홋카이도 중앙에 위치한 비에이는 곳곳에 놓인 구릉이 감탄스럽도록 아름다워 계절을 가리지 않고 많은 여행객이 찾는다. 후라노역에서 열차를 갈아타고 비에이에 도착하자 열차에서 본 것들이 눈앞에서 펼쳐진다.

겨울이면 눈이 수 미터씩 쌓이는 날이 많기에 홋카이도는 도로 가장자리에 표지판을 일렬로 세웠다. 설원에서야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일 테지만, 눈이 없는 계절에 표지판들은 지상에서 영원으로 넘어가는 길목의 이정표 같다. 도로에서 한 발자국만 벗어나도 밭 디딘 그 자리에서부터 드넓은 구릉이 시작되는 것이다. 융단처럼 부드러운 구릉에는 밀, 옥수수, 보리가 땅의 축복을 받으면서 자란다. 신에이 언덕, 호쿠세이 언덕에 조성한 전망 공원을 차례차례 들렀다. 눈길

● 삿포로에서 비에이, 후라노를 잇는 철도 구간에 후라노 라벤더 익스프레스와 후라노 비에이 노릇코 같은 열차가 운행한다. 후라노 라벤더 익스프레스는 좌석이 차창을 향하고 있으며, 후라노 비에이 노릇코는 양옆이 트인 관광 열차다.



닿는 곳마다 잔잔하게 일렁이는 대지의 물결, 귀를 기울이는 데마다 사각사각 생명이 숨 쉬는 소리. 천국이 있다면 이런 풍경일까? 말을 지운 입에서 나지막하게 감탄사만 나왔다. 15만 제곱미터(약 4만 5000평) 면적의 시키사이 언덕에서는 온갖 식물이 축제를 벌였다. 구릉을 에워싼 라벤더, 피튜니아, 마리골드, 셀비어가 공기를 온통 제 향기로 채우고는 넘치는 향기를 언덕 너머로 날려 보냈다. 꿈결에 만난 양 몽환적인 꽃밭을 빠져나와 비에이 남동쪽 아오이이케로 갔다. 아오이이케는 '청의 호수'라는 뜻이다. 1988년에 도카치다케산이 분화한 뒤 방재 사업을 했는데, 공사로 인해 고인 물이 푸른빛을 띠었다. 알루미늄 성분이 섞인 지하수가 강과 합류하는 과정에서 햇살을 푸르게 반사하는 입자가 발생한 것이었다. 자작나무와 낙엽송이 반영하는 청색 호수는 신비로우며 더없이 우아했다. 눈이 시리게 맑은 홋카이도의 장면들.

'라벤더 성지'로 불리는 팜토미타 농원이 마지막 여행이었다. 1900년 무렵에 황야를 개척하고 대대로 라벤더를 심어 광활한 공원을 완성한 후라노의 대표 여행지다. 경사가 완만한 비탈이 모두 보랏빛으로 물든 장관 속을 걱정할 것 하나 없다는 듯이 느릿느릿 걸었다. 홋카이도에서는 유해한 일은 망각해 버리고 저절로 걸음이 느려지기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러한 순간만을 기억하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에. 이제 홋카이도는 가을로 물들겠다. 또한 겨울도, 봄도 홋카이도는 물들어 갈 것이다. ㉔

홋카이도, 한 발짝 더



삿포로 시계탑

홋카이도 진출 역사를 상징하는 문화재로 1878년에 건설했다. 일본은 19세기 중반 홋카이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으며, 홋카이도대학교의 전신인 삿포로 농학교는 이 건물을 지어 연구실 등으로 사용했다. 오늘날 삿포로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삿포로 시계탑은 내부 역사관에서 건립 당시 자료를 전시한다. 시계탑 인근에 여름 맥주 축제, 겨울 눈 축제가 열리는 오도리 공원이 있다. 문의 www.sapporoshi-tokeidai.jp



JR 타워 호텔 닛코 삿포로

삿포로역과 연결된 JR 타워 호텔 닛코 삿포로는 기차 여행객에게 베이스캠프 같은 곳이다. 근처에 백화점과 각종 쇼핑몰이 자리해 호텔에서 한나절 일정을 잡아도 좋다. 삿포로 시민에게 사랑방 역할을 하는 호텔 1층 로비 라운지에서 애프터눈 티 세트를 만끽하는 순간도 즐겁다. 오후 1시-5시, 오후 5시-7시에 망고·라즈베리 무스, 럼 건포도 쿠키 등과 그에 걸맞는 우롱차 같은 음료를 내놓는다. 문의 www.jrhotels.co.jp/tower



오타루 오르골당

오타루 하면 대부분 가장 먼저 떠올리는 명소다. 사카이마치 상점가 기점에 위치한 오르골당은, 먼저 1915년에 지은 고풍스러운 건물 외관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문을 열자마자 3200종류, 3만 8000여 개의 오르골이 만들어 내는 휘황찬란한 모습에 입이 떡 벌어진다. 총마다 다른 콘셉트로 오르골을 전시했는데, 1층에선 인형 등 아기자기한 오르골을, 2층에서는 작가와 협업한 오르골들을 만난다. 문의 www.otaru-orgel.co.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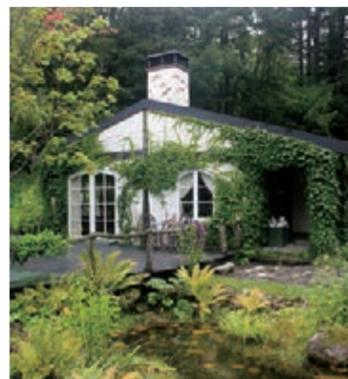
후라노 치즈 팩토리

후라노역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한 후라노 치즈 팩토리는 제조 공정을 살피는 것은 물론이고, 치즈를 맛보고 만들어 보는 체험까지 가능한 복합 공간이다. 후라노 낙농 역사를 담은 전시관, 카망베르식 치즈 제조 과정을 구경하는 시설 등 볼거리를 알차게 마련했다. 오징어 먹물로 착색한 치즈처럼 후라노가 자랑하는 치즈를 시식하고 아이스크림, 피자 가게에 들르는 시간이 흡족하다. 문의 www.furano-cheese.jp



후라노 도메누 레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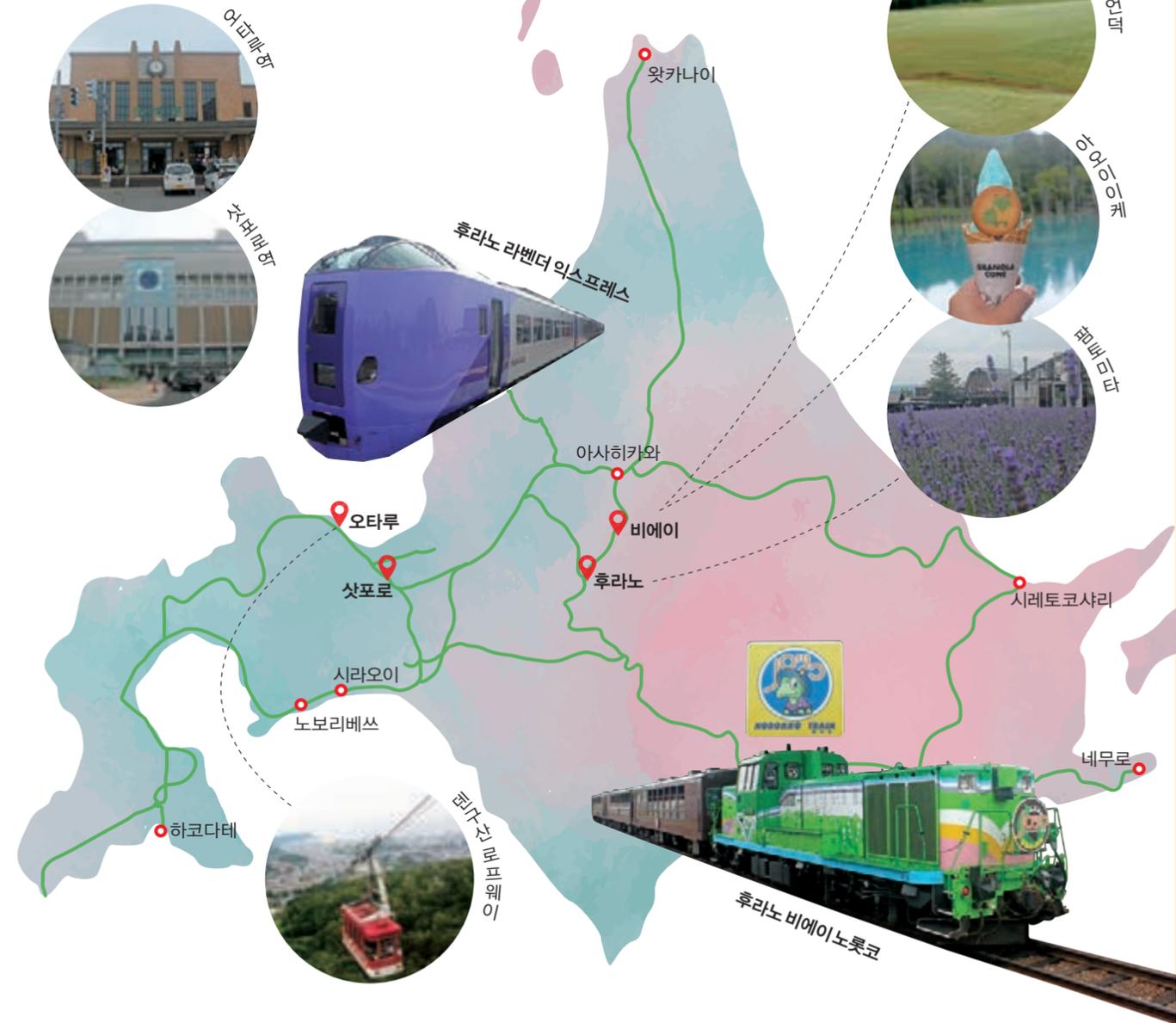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꿈꾸는 와이너리. 밭에서 키우는 염소의 퇴비로 포도 농사를 지으며, 와인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염소에게 먹이는 순환 방식이다. 40만 제곱미터(12만 1000평) 면적의 인근 밭에서 포도 12종을 직접 재배한다. 여행객이 감상하도록 와이너리에도 소규모 포도밭을 경작한다. 니카 후라노 케루나 등 화이트 와인 9종과 레드 와인 3종을 판매하고 레스토랑도 운영한다. 문의 www.domaine-raison.com



신후라노 프린스 호텔 가제노 가든

‘바람의 정원’이라는 뜻의 가제노 가든은 신후라노 프린스 호텔 내에 자리한 영국식 정원이다. 입구에서 입장권을 구매한 뒤 차를 타고 2분 정도 가면 정원에 도착한다. 2008년에 일본에서 인기를 끈 동명 드라마를 촬영한 정원에는 360여 가지 꽃을 비롯한 식물 2만여 본이 아름다운 산책로를 배경으로 자랑한다. 나무 뚝 길 곳곳에 유리·가죽 공방이 들어선 닝구르테라스도 이 호텔의 볼거리다. 문의 www.princehotels.com/shinfura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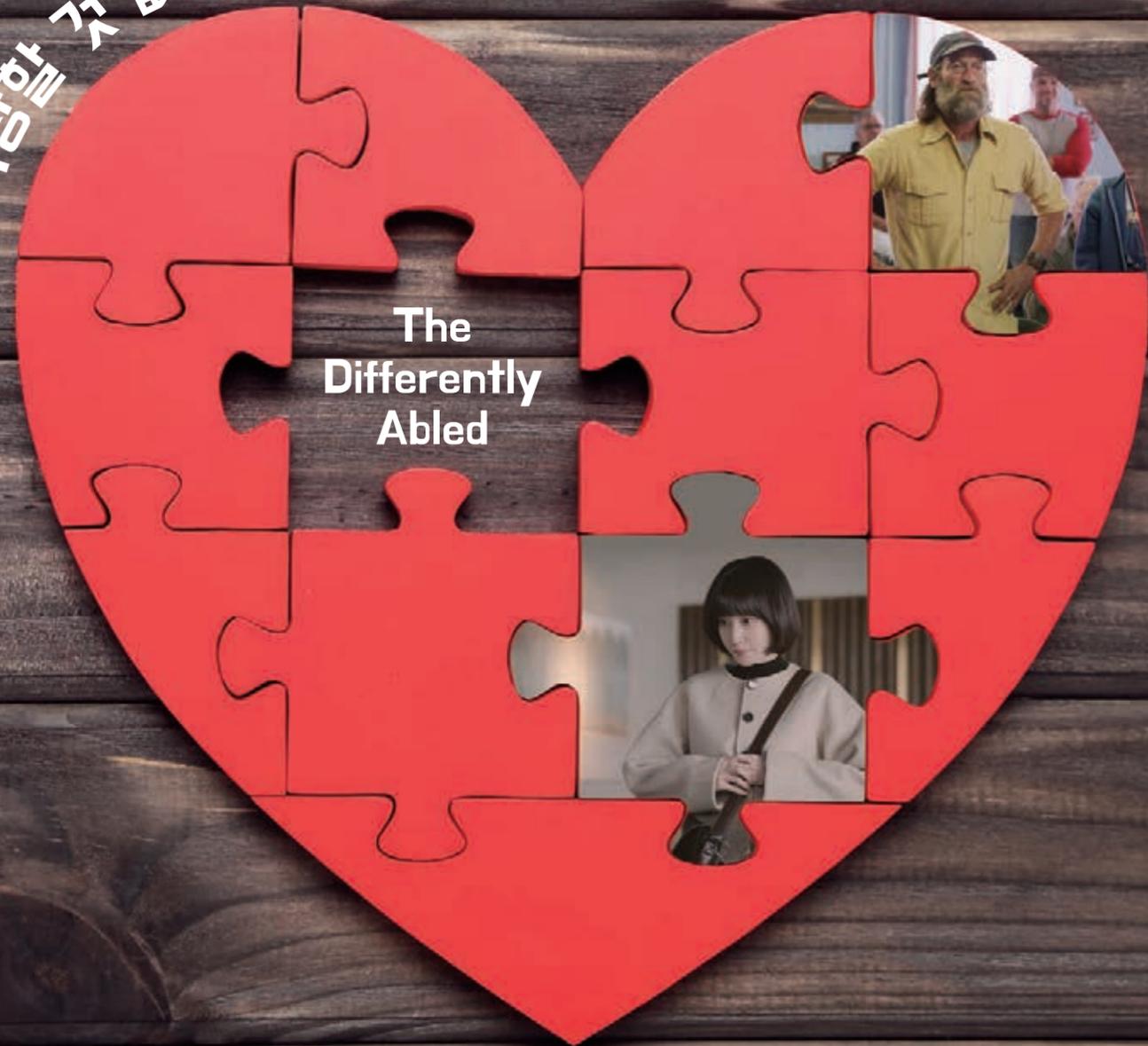
JR홋카이도 레일패스



홋카이도 여행이 JR홋카이도 레일패스 덕분에 더욱 만족스럽다. JR홋카이도 레일패스는 철도 회사 JR홋카이도가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구성한 통합형 열차 할인 티켓이다. 신치토세 공항, 삿포로, 오타루, 노보리베쓰를 4일간 자유롭게 이동하는 '삿포로-노보리베쓰 에리어 패스'와 신치토세 공항, 삿포로, 오타루, 후라노, 비에이, 아사히카와를 4일간 자유롭게 이동하는 '삿포로-후라노 에리어 패스'로 나뉜다. 지역을 한정된 두 상품과 달리 '홋카이도 레일패스'는 홋카이도 모든 지역을 5일간 혹은 7일간 신칸센을 제외한 열차로 이동할 수 있다. 이번 홋카이도 여정은 '삿포로-후라노 에리어 패스'를 9500엔(약 9만 2000원)에 구매해 열차로만 이동했다. 이 여정의 승차권을 각각 구입했다면 번거롭기도 하거니와 총비용이 1만 6000엔(약 15만 6000원) 든다. JR홋카이도 레일패스는 한국 여행사와 일본 신치토세 공항역, 삿포로역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문의 www.jrhokkaido.co.jp/global/korean



이상할 것 없는 사람들



The Differently Abled

여전히 장애인의 삶이 낯설게만 느껴진다면, 여기 모은 15가지 이야기를 만나 볼 때다.

“미안해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서도 배운 적 없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영옥의 쌍둥이 언니 영화는 다운증후군을 지녔다. 영화를 처음 대면한 영옥의 연인 정준은 놀란 표정을 숨기지 못했고, 영옥의 주문대로 다운증후군이 무엇인지 검색해 보고서야 자신의 무지를 사과한다. 맞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는 그것을 마땅히 미안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한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미처 배운 적 없는 일 말이다.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나 아닌 다른 삶을 만나고, 역사사지의 감수성을 기르며 살아간다. 애석하게도 장애인은 서사의 세계에서마저 배척되거나 소외되어 왔다. 희귀하게나마 장애인을 다루는 이야기라 해도, 인물이 평면적으로 묘사되기 십상이었다. 안타까운 존재, 혹은 역경을 ‘극복’한 영웅적 존재. 창작자가 사려 깊게 완성한 작품일지언정 그것이 다시 대중에게 회자되는 과정에서 인물이나 설정에 대한 회화화가 뒤따랐다. 일례로 영화 <말아톤>에서 자폐인 마라토너를 섬세하게 표현한 배우 조승우는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극 중 인물을 재연해 달라는 요구에 시달려야 했고, 끝내 분노를 터뜨렸다. 이 사회가 장애인의 삶을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탓에 벌어진 풍경이다. 다시, 무지가 빛은 무렵다.

그로부터 17년이 흘러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등장했다. 다행히 오늘날 시청자는 그 시절보다 성숙한 태도로 장애인 주인공을 이해하는 중이다. 판타지와 다름없다는 비판도 받지만, 최소한 이 드라마는 자폐인과 그 주변 사람들의 삶을 수면 위에 올려놓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 자폐 스펙트럼이나 반향언어처럼 낯선 어휘를 귀에 익게 했고, 무엇보다 작품 속 인물이 나와 다르면서도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했다. 누군가는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 우영우를 대하는 모습을 보며 자폐인과의 생활을 상상하기도 했을 것이다. 거기엔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얼마간의 무심함이 섞인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웠을 테고 말이다.

한국에서 <우리들의 블루스>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화제를 모았다면, 미국에선 이에 앞서 영화 <코다>가 2022 아카데미 시상식을 빛내며 눈길을 끌었다. 농인 부모의 청인 자녀를 뜻하는 코다와 그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주인공 루비의 아버지를 연기한 농인 배우 트로이 코치의 열연에 찬사가 쏟아졌다. 코치는 이 작품을 통해 역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한 두 번째 농인 배우로 기록됐고, 이를 계기로 장애인 역은 장애인 배우가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터져 나왔다. 바꿔 말하면 ‘크리핑 업’을 지양하자는 주장이다. 크리핑 업이란 비장애인 배우가 장애인을 연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 코카서스계 배우가 아프리카계 인물을 연기하는 ‘블래킹 업’처럼 윤리적으로 올바른지 않은 행위임을 꼬집는 말이다. 동시에 장애인 배우의 존재도 새삼 주목받기 시작했다. 드라마 <왕좌의 게임>으로 알려진 피터 دن클리지, <우리들의 블루스>에 이어 다큐멘터리 영화 <니 얼굴>에 출연한 정은혜, 드라마 <감동>에서 열연한 길별은, 영화 <카운트다운>과 <채비>에서 활약한 권혁준... 더 많은 이를 호명하고 싶지만, 아직은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어지는 지면에서는 장애인을 조명한 이야기를 그러모아 소개한다. 역시 수가 많지 않다. 그래서 더 귀하고 소중한 따름이다. **k**

지금 가장 뜨거운 목소리
읽어보아요



● 장애여성
<하고 싶은 말이 많고요, 구름니다>
“언제부터 장애인이 되었냐고요? 안 알려 드릴 거예요.” 유튜브 골러라 구름님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무례한 태도 앞에 도발적인 화제를 던진다. 유쾌하게, 뽀족하게. 왜 유튜브를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냥, 재미있어서”라고 대답하곤, 휠체어를 장식하는 ‘휠꾸’를 취미 삼는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 책도 썼다. “모두가 당연한 자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받아 적어야 할 문장이 빼곡하다.
골러라 구름님(김지우) 지음 휴머니스트 펴냄



● 장애인_사이보그
<사이보그가 되었다>
청각장애를 지닌 소설가 김초엽, 지체장애를 지닌 변호사 김원영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자신의 몸과 기계(보청기, 휠체어)를 결합한 사이보그적 정체성을 인식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몸소 경험한 환경과 문제의식을 토대로 과학기술의 미래를 그린다. ‘결여된’ 것이 아닌 ‘연결된’ 존재, 불편함을 발견하고 호소하는 역할을 가진 존재로 거듭난 장애인 사이보그의 모습을 상상한다.
김초엽·김원영 지음 사계절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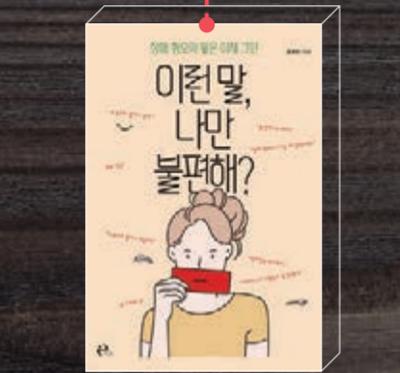


● 같이 읽으면 좋은 책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누군가의 삶을 두고 실격이라 말할 수 있을까. 견지 못하는 몸으로 태어나 법학을 공부한 김원영은 실격당한 인생이라 취급받는 모든 소수자가 저마다 고유함과 존엄을 지닌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이를 위한 변론을 펼쳐 보인다.
김원영 지음 사계절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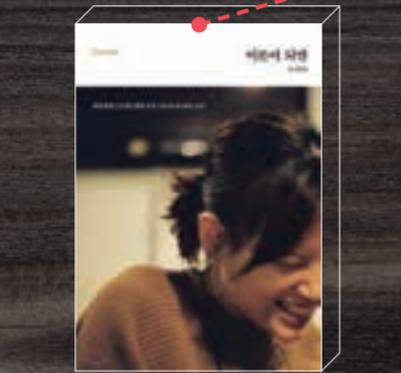
● 같이 읽으면 좋은 책
<어쩌면 이상한 몸>
장애여성의 몸은 여성이자 장애인이라는 이중고를 지닌다. 그렇기에 여성 장애인이 아닌, 장애여성이란 붙여 쓴다. 세상의 편견과 규범에 맞선 장애여성의 몸, 노동, 관계 등 같은 주제와 함께 활동, 제도, 양육 등의 쟁점을 치열하게 기록했다.
장애여성공감 지음 오월의봄 펴냄

● 일상_속_장애인
<장애인과 함께 사는 법>
버스나 전철 같은 공공장소에서 장애인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장애인의 생활은 일부러 들여다보지 않으면 영영 이해하기 어렵다. 어느 날 갑자기 장애인 동료가 팀에 합류했다면, 무엇을 준비하고 고려해야 할까? 이 질문에 눈앞이 캄캄한 사람을 위한 해답이 여기 있다. 간섭이 가까운 배려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최선이라는 것부터 차근차근 알려 준다.
백정연 지음 유투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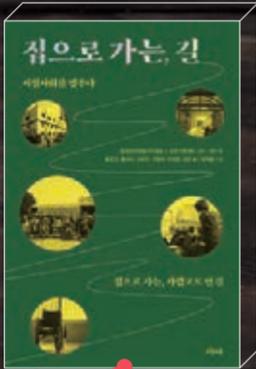
● 같이 읽으면 좋은 책
<이런 말, 나만 불편해?>
‘눈뜬장님’이나 ‘동네 바보 형’처럼 만연한 혐오 표현도 문제지만,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차별적 언어도 문제다. 이를 테면 ‘장애를 극복한 영웅’ 같은 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풍부한 용례와 정확한 설명을 통해 짚어 낸다.
김효진 지음 이후 펴냄

● 장애인과_가족
<나는'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장애인 가족은 희생과 인내를 아무렇지도 않게 강요받곤 한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와 비슷한 또래의 형제자매라면 상황은 더 혹독해진다. 발달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형제자매를 둔 여섯 사람이 펜을 들어 누구에게도 이해받기 힘들었던 자신의 내밀하고 혼란스러운 성장담을 털어놓았다. 실은 우리 모두 괜찮지만은 않은 인생이기에 쓴 이도, 읽는 이도 이상스러운 위로를 얻는 책이다.
비장애형제 자조모임 '나는' 지음 한울림스페셜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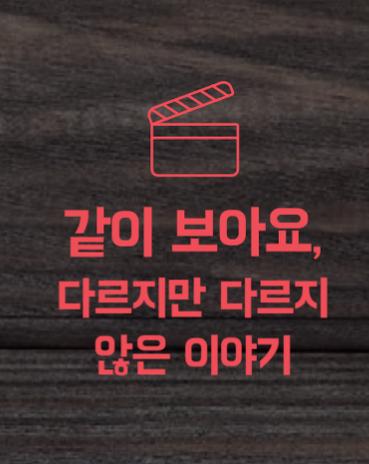


● 같이 읽으면 좋은 책
<어른이 되면>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의원이 생생하게 기록한 탈시설 이야기. 그는 2017년에 발달장애인 동생 혜정을 시설에서 데리고 나와 동거를 시작했고, 그 일상을 책과 영상으로 남겼다. 세상과 격리된 장애인, 이를 둘러싼 현실을 직시하게 한다.
장혜영 지음 시월 펴냄

● 탈시설
<집으로 가는 길>
장애인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해 살아가는 일을 탈시설이라 한다. 여기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고 탈시설을 선언한 최초의 시설이 있다. 경기도 김포 향유의 집이다. 자신의 장애 수당을 재단이 갈취해 온 사실을 알게 된 거주인들은 생활재활교사들에게 비리를 증명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렇게 시작한 투쟁은 탈시설 운동으로 이어지고, 그 속에서 뜨거운 논쟁과 연대가 쉼없다.
홍은전 외 지음 오월의봄 펴냄



● 같이 읽으면 좋은 책
<반짝이는 박수 소리>
농인 부모의 청인 자녀로, 경계인으로 살아 온 이길보라 감독은 7년 전 이 책을 통해 코다라는 화두를 던졌다. 코다는 물론 수어, 농인, 청인과 같은 단어가 익숙하지 않던 시절이다. 지난봄 출간된 개정판을 통해 장애를 둘러싼 풍경을 다시금 바라본다.
이길보라 지음 문학동네 펴냄

<p>〈녹턴〉</p>  <p>다큐멘터리 / 한국 / 98분 / 2019년 / 감독 정관조 출연 은성호, 은건기</p> <p>피아니스트 은성호는 중증 자폐인이다. 그의 동생 건기는 엄마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형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 언뜻 같음의 끈이 깊어 보이지만, 이 가족을 11년 동안 응시해 온 카메라는 이해와 소통의 빛나는 순간을 포착해 낸다.</p>	<p>〈소나타〉</p>  <p>영화 / 폴란드 / 118분 / 2021년 / 감독 바르토시 블라슈케 출연 미할 시코르스키</p> <p>폴란드 뮤지션 그제고시 플론카의 실화를 옮긴 작품이다. 자폐인으로 규정된 채 살아 온 소년 그제고시는 우연한 계기를 통해 자신이 자폐가 아닌 청각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제1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작.</p>
<p>〈원더〉</p>  <p>영화 / 미국 / 113분 / 2017년 / 감독 스티브 크로스키 출연 제이콥 트렘블레이, 줄리아 로버츠</p> <p>조금 다른 얼굴로 태어난 소년이 세상에 발을 내딛는다. 어렵사리 학교 갈 용기를 낸 어기는 예기치 못한 친구들의 싸늘한 시선에 주눅 들고 만다. 그래도 다시 일어선다. 스물일곱 번의 성형수술을 견딘 어기만큼 단단한 열정은 없을 테니까.</p>	<p>〈도리를 찾아서〉</p>  <p>애니메이션 / 미국 / 97분 / 2016년 / 감독 앤드루 스탠턴 목소리 출연 엘런 디제너러스, 앨버트 브룩스</p> <p>한쪽 지느러미가 짧은 물고기 니모에 이어, 단기 기억상실 장애를 가진 도리를 찾으러 간다. 다리가 일곱 개인 문어 행크, 음파 반사력이 약한 흰고래 베일리, 시각장애 고래상어 데스티니가 등장해 예측 불가한 모험을 펼친다.</p>
<p>〈원더〉</p>  <p>영화 / 미국 / 113분 / 2017년 / 감독 스티브 크로스키 출연 제이콥 트렘블레이, 줄리아 로버츠</p> <p>조금 다른 얼굴로 태어난 소년이 세상에 발을 내딛는다. 어렵사리 학교 갈 용기를 낸 어기는 예기치 못한 친구들의 싸늘한 시선에 주눅 들고 만다. 그래도 다시 일어선다. 스물일곱 번의 성형수술을 견딘 어기만큼 단단한 열정은 없을 테니까.</p>	<p>〈잠수종과 나비〉</p>  <p>영화 / 프랑스 / 111분 / 2007년 / 감독 올리안 슈나벨 출연 마티유 아말릭, 엠마누엘 자이그너</p> <p>잡지 편집장으로 승승장구하던 장 도미니크 보비는 벼락처럼 찾아온 전신 마비 증상으로 잠수종에 갇힌 듯한 삶을 산다.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고 한쪽 눈꺼풀이라, 이를 통해 세상에 말을 걸고 책까지 완성한다.</p>

배리어프리 영화 음성 해설, 대사와 음악 등 소리 정보 자막을 넣어 시청각장애인이 감상할 수 있도록 제작한 영화다.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에서는 장애를 중심 소재로 다룬 영화를 선보이기도 했다. 배우 박보검과 이청야가 출연한 〈반짝반짝 두근두근〉, 배우 박규리와 김홍수가 출연한 〈볼링볼링〉이 대표적이다. 제12회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는 11월 9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린다.

동강사진박물관
DongGang Museum of Photography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1009-10
033-375-4554

동강국제사진제
DONGGANG INTERNATIONAL PHOTO FESTIVAL
영월군·제천시·내성면

2022. 07. 22 금 - 10. 09 일



주최  영월문화재단
주관 동강사진마을운영위원회  영월문화재단
Yeongwol Cultural Foundation

동강사진박물관 영월문화예술회관 영월 일원

네 송이 장미의 유혹 포 로지스

가슴에 장미를 품은 포 로지스는 버번위스키 특유의 거친 풍미를 간직하면서도
부드럽게 어리는 향기로 전 세계 위스키 마니아에게 사랑받는다.

Four Roses





● 포 로지스 증류소는 1910년 지은 스페인풍 건물이 유명하다. 미국 켄터키주 로렌스버그에 위치하며, 두 가지 매시빌과 다섯 가지 효모를 배합한 레시피로 스몰 배치, 부르봉 같은 브랜드를 주조한다.

버번위스키는 강하다. 맛과 향이 그렇거니와 사람들이 유혹하는 정도도 독특하리만치 강력하다. 일단 향을 살펴보자면, 마개를 열자마자 바닐라와 캐러멜의 달달한 내음이 한순간에 치고 올라온다. 향이 이러니 맛 또한 마냥 달달하리라 생각하겠지만 오산이다. 눈이 번쩍 뜨이는 아세톤 향이 입안에서 휘몰아치고, 그 뒤를 이어 후추를 한 움큼 씹는 듯한 매운맛이 목을 타고 가슴에 쏟아진다. 향을 맡고, 맛을 음미하는 이 화끈한 과정을 어찌 잊을 텐가. 여느 스카치위스키보다 5도에서 10도 높은 알코올 도수에서 폭발하는 맛에 술한 이가 매료되어 오직 버번위스키만을 찾는다. 버번위스키인 포 로지스 증류소의 전설적인 마스터 디스틸러 짐 리틀리지도 그중 하나다. 그는 어느 날 레스토랑에 들러 버번위스키 한 잔을 주문해 마시고는 곧바로 절규한다. “이게 도대체 뭐지? 나한테 독을 준 건가?” 웨이터가 실수로 스카치위스키를 가져온 것이었다.

네 송이 장미의 전설

버번위스키를 자석이라고 할 때, 사람을 끌어당기는 자기력이 엄청나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 한국에서 ‘버번 3대장’으로 불리는 버팔로 트레이스, 메이커스 마크, 와일드 터키를 비롯해 노아스 밀, 우드포드 리저브, 1792 스몰 배치 같은 불멸의 명작이 곳곳에서 맹렬하게 판매된다. 옥수수를 51퍼센트 이상 함유한 원액을 쓰고, 새 오크 통에서 숙성해야 하는 등 미국 연방 정부의 까다로운 규정을 충족한 끝에 출시되는 위스키의 매력에 세계가 열광하고 있다. 포 로지스도 마찬가지. 한국에서 누리는 명성이 아직은 아쉬울 뿐, 이미 마니아에게는 매일 마시거나 두고두고 아껴 마시는 버번위스키로 꼽힌다. 앞서 나열한 버번위스키와 함께 불멸의 반열에 오른 포 로지스(Four Roses)에 대한 이야기는 ‘네 송이 장미’라는 로맨틱한 이름이 탄생한 사건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름의 유래에 많은 설이 나도는 가운데, 포 로지스 증류소가 공식 인정한 이야기는 이렇다. 1840년, 미국 버지니아주 린치버그에서 태어난 폴 존

스 주니어는 벨이라는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진다. 결혼을 꿈꾼 그는 사랑을 고백한 뒤 두 마디를 덧붙인다. 며칠 뒤 열리는 무도회에서 장미 세 송이를 단 드레스를 입는다면 프리포즈를 거절한 것으로 알겠다는 말이었다. 만약 자신을 받아들여준다면, 장미 네 송이를 달아 달라고도 했다. 그날이 왔다. 폴 존스 주니어는 떨리는 마음을 붙잡고 무도회에 갔다. 춤사위를 벌이는 군중 사이에서 벨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그리고 네 번째 장미. 이후 그는 미국 남북전쟁에 참전해 맹활약했으며, 고향에 돌아와 위스키를 생산하다 1888년 상표권을 등록한다. 그게 바로 포 로지스다. 호사가가 꾸민 설화일지 모르나, 포 로지스의 맛과 향에 이러한 낭만이 넘치도록 흐르다는 것만은 진실이다.

이쯤에서 포 로지스를 마셔 보자. 버번위스키 특유의 폭발적인 맛은 그대로이되, 원지 모를 부드러움이 호수에 비치는 달무리처럼 잔잔하게 번진다. 잘 구운 빵의 고소한 향기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코끝을 간질인다. 일반적으로 버번위스키에서는, 흠족해하지 않은 당신을 설득할 생각 따위 없다는 배짱이 느껴진다. 마시는 이에게 젖어 든다기보다 마시는 이를 거칠게 몰아세우는 박력이 장점이자 단점인 것이다. 포 로지스는 다르다. 전술한 대로 폭발적이면서도 그 안에 조곤조곤 호소하는 목소리가 숨어 있다. 네 송이 장미가 선사하는 낭만이 가슴으로 흘러내린다.



사랑을 선물하는 우아한 맛

미국 켄터키주 로렌스버그에 있는 포 로지스 증류소는 나라가 사적으로 지정한 스페인풍 건물로 유명하다. 1910년에 지은 유서 깊은 이 증류소에서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위스키를 빚는다. 위스키 주조에서 곡물 배합 비율을 매시빌이라고 하는데, 옥수수가 주원료인 버번위스키의 경우 옥수수를 51퍼센트 이상 넣고 나머지는 호밀, 보리, 밀 등을 적절하게 섞는다. 포 로지스 증류소는 옥수수 비율을 60퍼센트와 75퍼센트까지 끌어올린 매시빌을 바탕으로 각각 다섯 가지 효모 맛을 가미한 열 가지 레시피를 개발했다. 특히 매운맛의 K효모, 과일 향의 O효모를 쓰는 스몰 배치 버전이 단연 인기다. 이 외에도 부르봉, 싱글 배럴, 스몰 배치 셀렉트가 붉디붉은 네 송이 장미를 달고 매혹의 향기를 퍼뜨린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위스키가 존재한다. 모두 맛보는 일은, 아마도 불가능하다. 주어진 시간이 무한하지 않으니 우리에게 선택과 집중의 묘미가 필요하다. 다시 포 로지스를 마셔 보자. 가슴에 또 한번 장미의 낭만이 흐른다면 이제 더 설명을 듣지 않아도 좋다. 당신은 포 로지스에 집중하게 되었으니까, 포 로지스와 사랑에 빠질 테니까. **📌**



길이 777미터 장대화물열차, 철도 역사에 획을 긋다

KTX보다 두 배 이상 긴 장대화물열차가 경부선에서 영업 시험 운행에 성공했다. 한국철도공사 물류사업본부 김범열 처장에게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

장대화물열차를 소개해 주세요. 한국에선 열차 하나에 화차가 35량 이상 연결되어 길이가 500미터 넘는 열차를 장대화물열차라고 합니다. 여객열차 가운데 가장 긴 열차는 KTX1으로, 길이는 388미터지요. 2017년에 80량, 길이 1.2킬로미터에 이르는 장대화물열차를 시범 운행했습니다만, 여객선 실제 운행이 불가해 기술 검토 수준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대부분 건설된 경부일반선에는 장대화물열차 대피선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컨테이너 화물열차를 통상 33량 편성으로 운행해 오던 중 지난 7월 19일에 50량, 길이 777미터의 장대화물열차를 최종 시험 운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특정 구간의 단순 시험 운행에서 나아가, 핵심 영업 노선인 경부선 구간(의왕 오봉역-부산신항역, 402.3킬로미터)에서 수출용 화물을 적재하고 실제 속도인 시속 90킬로미터 운행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성과입니다. 한국 철도 역사에서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대화물열차는 한국 철도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나요.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고, 한국철도공사 또한 마찬가지로입니다. 매출 감소는 물론이고 KTX 외 운송 사업에서 손실이 지속되면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에 공사 사장님께서 대량 수송이라는 철도의 강점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영 악화를 타개하고자 장대화물열차 운행을 적극 추진하셨습니다. 이론상으로는 60량 이상 장대화물열차를 운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인프라 여건을 고려해야 했기에 60량 이상 장대화물열차의 대안으로 50량 장대화물열차 운행을 우선 검토한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상업 운행을 시행해 대한민국 물류와 한국 철도공사에 보탬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번 운행에 물류사업본부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 시험 운행 성공은 물류사업본부뿐 아니라 열차안전운영단, 차량안전기술단, 시설안전기술단, 전기안전기술단 등 많은 부서가 협력한 결실입니다. 그 가운데 저희 물류사업본부는 화차 준비, 시험용 컨테이너 화물 확보, 차량을 분리하고 결합하는 입환 등이 주요 임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물류마케팅처에서는 화주사 및 운송사와 협의해 시험 운행에 필요한 수출용 화물 컨테이너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물류수송처는 현재 영업 중인 컨테이너 화차가 총 2588량이 있으나 시험 운행에 필요한 여유 화차가 없어 화물열차 운행을 상당 기간 조정해 화차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현장에 나가 입환 관리 등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물류계획처에선 시범 운행을 총괄하면서 사업 추진을 도려하는 한편, 대내외 홍보와 인프라 구축 계획 등에 대한 사업 구상을 맡아 추진해 왔습니다.

어려운 점이나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이번 시범 운행 작업은 올해 초에 시작되었습니다. 관련 부서 전문가가 모여 인프라 점검과 토론을 거쳐 1단계로 지난 3월 30일 부산신항역-김해



(왼쪽부터) 물류사업본부 김운용, 원정재, 김범열, 오병찬, 박재훈, 윤상기, 신인호.

진례역 구간 시험 운행을 통해 견인력 등을 시험했습니다. 이때 화물 파손 가능성 때문에 빈 컨테이너로 시험 운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고객사의 반발도 적지 않았고요. 하지만 실제와 같은 조건에서 열차를 운행해야 했기에 고객사에 충실히 설명해 드리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다행히 화물이 파손되는 일은 없었고요. 4월 28일에 실시한 부산신항역-대구 가천역 구간 2단계 시험 운행에선 안전성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이어 7월 19일에 최종 시험 운행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출발 2시간 전에 기관차가 갑작스레 고장이 났고, 다른 기관차로 대체하느라 예정한 출발 시각에서 30여 분 지연되었습니다. 밤을 새워 피곤한데도 졸음이 싹 날아가는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장대화물열차가 오전 10시 57분에 부산신항역에 무사히 도착했을 때 모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철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자리에 동참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바랄 수 없는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대화물열차는 내년 상반기 정기 운행이 목표죠. 어떤 부분을 보완해 나갈 예정인가요. 열차가 정기 운행할 구간은 오봉역-부산신항역입니다. 이 노선에서는 광역·여객·화물열차도 운행하지요. 안정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대피선이 필수입니다. 길이 900미터 넘는 대피선을 7개소 이상 마련해야 하나, 동 구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발역인 오봉역 또한 50량을 수용하는 선로가 없어 상용화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프라 개선과 제도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구는 온실가스로 시름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철도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친환경 교통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물류 효율화와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할 장대화물열차가 정기 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①

+ 장대화물열차

해외에서 '마일트레인'으로 불리는 장대화물열차의 세계 최장 기록은 2001년 호주에서 운행한 총길이 7.353킬로미터 열차다. 장대화물열차 길이는 이론상 25킬로미터까지 가능하다고 알려졌다. 한국철도공사는 1·2단계 시험 운행을 거쳐 지난 7월 19일 오전 5시 4분에서 오전 10시 57분 사이에 길이 777미터 장대화물열차를 오봉역-부산신항역 구간에서 시험 운행하는 데 성공했다. 2023년 상반기에 정기 운행할 예정이다.

Culture

신간·전시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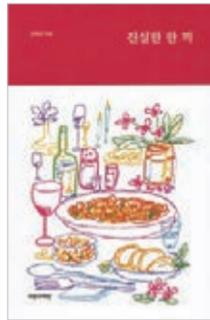
〈햇빛사냥〉

문학동네가 옛 시집을 복간하는 프로젝트 '문학동네포에지' 50번으로 장석주 시인의 첫 시집과 두 번째 시집을 합본했다. 40년이 넘었으나 시어는 지금도 펄떡거린다. "내 생각의 서랍을 열면/ 그 어두운 구석에 숨겨져 있는/ 추억이라는 오래된 빵에/ 파랗게 피어 있는 곰팡이/ 먹어서 허기를 면할 수도/ 갈아서 무기로 쓸 수도 없는/ 그것이 나의 시다." 예리하고, 젊다. 시는 늙지 않는다. 장석주 지음 문학동네 펴냄



〈실패의 실력〉

글로벌 컴퍼니 대표, 미국 스탠퍼드대 학생이 추천한 강연자, 대통령이 만나고 싶어 하는 벤처기업인. 이력서는 화려하지만 저자는 자신을 '프로 실패러'라 부른다. 된다 싶을 때 국정 농단으로 예산이 끊기고, 코로나 19 때문에 사업은 곤두박질쳤다. 아직 30대인 13년 차 사업가 겸 작가가 좌절도 포기도 하지 않고 도전하고 성장해 온 과정을 진솔하게 말한다. 웃으며 읽다가 어느새 가슴이 울린다. 홍선기 지음 의미와 재미 펴냄



〈진실한 한 끼〉

SNS에는 매 끼니를 예쁘게 차려 먹거나 온갖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람 천지다. 사실 SNS 밖의 우리는 밀린 업무나 공부 때문에 한 끼 대충 때우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럼에도 사람의 온기가 녹아 있는 음식은 몸과 마음의 열량을 책임져 준다. 저자는 카레라이스·콩나물비빔밥 등 평범한 메뉴에서 작은 기쁨을 발견하고, 요리해 주는 사람을 생각했으며, 좀 더 잘 먹게 되었다. 글이 따뜻한 밥상 같다. 신태진 지음 여분의책방 펴냄

EXHIBIT



〈MMCA 이견희컬렉션 특별전: 이중섭〉

고 이견희 회장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한 1488점 가운데 이중섭의 작품 80여 점을 전시한다. 국립현대미술관 또한 소장품에서 그의 작품 10점을 엄선했다. 1980년대 이후 오랜만에 선보이는 '춤추는 가족' '손과 새들', 처음 세상에 나온 '물놀이하는 아이들' 등 눈길을 끄는 작품이 많다. 1940년대 제작한 엽서화 36점도 감상한다. 기간 2023년 4월 23일까지 문의 02-3701-9500(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나의 하루 이야기-헝가리에서 온 사진〉

1872년 개관해 유럽 최고(最古) 전문 박물관으로 꼽히는 헝가리 민족학박물관과 서울역사박물관이 헝가리 어린이의 일상을 담은 사진 50여 점을 모았다. 작은 마을 불독을 각각 1936년, 2021년에 살고 있는 두 아이를 통해 변화하는 시대 속 삶의 양상을 살핀다. 10~14세 어린이가 전시 소개 사진 또는 영상을 제작하는 공모전도 진행한다. 기간 9월 12일까지 문의 02-724-0274(서울역사박물관)



〈땅의 아바타, 거북〉

백남준 탄생 90주년을 기념해 특별전 1부 〈시스틴 채플〉을 열었던 울산시립미술관이 이번 2부 전시에서 '거북' 작품을 공개한다. '거북'은 백남준이 1993년 독일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IFA)에 출품한 비디오 설치 작품이다. TV 모니터 166대를 거북 형상으로 설치해 자연과 기술, 동양과 서양의 결합을 탐구한 백남준 특유의 미학을 보여 준다. 기간 9월 23일까지 문의 052-211-3800(울산시립미술관)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

HAPPYHANWOOFESTIVAL.COM

횡성종합운동장 일원

9.30.(금)

~

10.4.(화)



제 18 회
횡성
한우
축제
 HOENGSEONG
 HANWOO
 FESTIVAL

주최 | 횡성군
 주관 | 횡성문화재단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한국관광공사 곡손당

SHOW



〈브론테〉

세계 문학사의 강렬한 이름, 브론테가의 자매를 뮤지컬로 만나다. 여자가 글 쓰는 것을 백안시했던 영국 빅토리아시대, 가난한 목사의 딸로 태어난 샬럿, 에밀리, 앤은 팍팍하고 힘든 삶을 버티기 위해 소설의 세계로 도망치곤 했다. 펜을 놓지 않았던 세 여성의 꿈과 욕망이 빛나는 문학적 상상력과 뒤섞여 관객을 매혹한다.
기간 9월 4일-11월 7일 장소 서울 대학교 자유극장 문의 070-8095-9734



〈레인보우 뮤직&캠핑 페스티벌 2022〉

3년 만에 돌아온 축제가 올해로 꼭 열 돌을 맞았다. 공백을 만회할 화려한 무대가 기다린다. 부활, 빅마마, 선우정아, 에일리, 이하이, 새소년 등 인기 뮤지션이 모여 흥을 한껏 돋울 예정이다. 캠핑과 음악이 공존하는 행사이니만큼 다양한 체험 콘텐츠와 볼거리도 기대해 볼 만하다. 깊어 가는 가을밤, 텐트에 짐 풀고 노래 들으러 가야겠다.
기간 9월 17일-18일 장소 경기도 가평 자라섬 일원 문의 0507-1465-3070



〈KBS교향악단&클라라 주미강〉

K-클래식의 정수를 음미할 시간이다. 이번 공연에서 상임 지휘자 피에타리 잉키넨은 바이올린에 집중한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협연자로 클라라 주미 강을 낙점했다. 서정성 짙은 프로코피예프 바이올린 협주곡 2번이 클라라 주미 강 의 단단하고 고혹적인 선율로 울려 퍼지고, 이어지는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이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일시 9월 30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충남 천안예술의전당 문의 1566-0155

MOVIE



〈코코순이〉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그릇된 정보의 근원을 추적하는 다큐멘터리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돼 온 미국 전시정보국 49번 심문보고서. 문서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일본군 ‘위안부’가 자원해서 왔다고 적힌 것이다. 보고서 내 20명의 명단 중 행적을 알 수 있는 단 한 명, ‘코코순이’라는 이름을 뒤쫓아 49번 심문보고서의 왜곡된 기록 속 진실을 밝혀 나간다. 8월 25일 개봉. 감독 이석재



〈스툼 보이〉

마이클은 외딴 해변에서 아빠와 단둘이 산다. 둘은 사냥꾼들에게 어미를 잃은 아기 펠리컨 세 마리를 발견하고, 그들과 가족이 된다. 폭우가 내리던 어느 날, 펠리컨 퍼시벌이 바다에 빠진 아빠를 극적으로 구한다. 이 사건이 매스컴의 관심을 받아 펠리컨을 노리는 사냥꾼이 순식간에 해변으로 몰려든다. 펠리컨을 지키기 위한 마이클의 노력이 펼쳐진다. 9월 개봉. 감독 손 시트 출연 핀 리를, 제이 코트니



〈9명의 번역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디덜러스〉를 번역하기 위해 9명의 번역가가 밀폐된 지하실로 모인다. 철저한 보안 속에서 작업하는 그들. 어찌 된 영문인지 소설 첫 10페이지가 인터넷에 올라오고, 편집장에게 메시지 한 통이 도착한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다음 100페이지를 공개하겠다는 내용이 다. 번역가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9월 개봉. 감독 레지스 로인사드 출연 올라 쿠릴렌코, 알렉스 로더



오래 젊음을 유지하고 싶다면, 줄기세포 치료

노화를 예방하는 프리주비네이션의 대표 주자, 청담셀의원의 줄기세포 치료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영양 관리에 신경을 쓰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현대인이 많다. 과거 건강관리는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20-30대도 항노화에 관심이 많아졌다. 항노화 의학 트렌드도 변하고 있다. 노화가 시작된 피부나 신체에 행하던 '리주비네이션(재생·회춘술)'에서 '프리주비네이션(예방 목적 재생술)'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청담셀의원 조찬호 원장은 프리주비네이션을 일종의 노화 예방주사라고 설명한다. 그는 "예방 목적 치료는 노화 징후가 나타나는 것을 최대한 미루는 역할을 해 결과적으로 젊고 건강한 컨디션을 오래 유지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강 지도를 그렸다면, 현재 건강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바이오마커 검사를 병행하는 것도 좋다. 청담셀의원은 혈액에서 얻은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암·만성질환 검사를 시행한다. 이들 요소를 활용할 시 건강 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세울 수 있다는 게 조찬호 원장의 설명이다. 조 원장은 "미래 의학은 이미 병에 걸리거나 노화가 진행되고 난 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노화가 시작되기 전 젊음을 오래 유지하는 선제적 안티에이징에 집중한다"라며 "건강한 몸과 외모를 오래 유지함으로써 활기찬 인생을 설계하는 게 건강은 물론 경제적 인 면에서도 유리하다"라고 강조했다.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건강 계획 설계
프리주비네이션 치료에서 주목받는 요소가 줄기세포다. 이는 자기 재생 능력, 분화 능력이 있는 원시세포로 세포 재건에 영향을 미친다. 난치병 치료 연구에 널리 쓰이며, 최근 3년간 코로나19 치료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다수 나왔다. 저하된 체력과 노화된 몸을 개선하는 데에는 전신 줄기세포 정맥주사인 '청셀(淸 Cell)'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성체줄기세포를 채취해 링거로 주입, 재생 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줄기세포를 타겟 부위에 집중 투여하는 방식이다. 성 기능을 건강하게 증진하는 '성셀(性Cell)', 처진 피부와 주름을 개선하는 '미셀(美Cell)', 두피에 직접 줄기세포를 주입함으로써 탈모를 치료하는 '모셀(毛Cell)', 약해지기 쉬운 인대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활셀(活Cell)'이 여기에 속한다.

전신 항노화 치료에 특화된 청담셀의원
'헬스케어 디자인'을 지향하는 청담셀의원은 줄기세포를 활용한 전신 항노화 치료에 특화된 의료 기관이다. 조 선일보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 항노화 줄기세포 치료 부문에서 올해까지 4년 연속 수상했다. 연구와 학술 활동에도 활발하게 나서고 있다. 청담셀의원은 골수·지방 줄기세포를 모두 활용하는 국내 극소수 의료 기관 중 하나다. 보다 효율적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하기 위해 생명과학 의료 기기 회사 (주)베스테크와 지방 줄기세포 공동 연구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주)레보메디의 트라이셀 골수 줄기세포 교육 지정 병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 (주)미래CT와도 공동 연구를 시작해 신경 줄기세포 응용 연구 중점 병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병원을 이끄는 조찬호 원장은 항노화 의학 전문가로, 줄기세포 연구를 통해 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상황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병행해 취약점을 미리 알고 노화에 대비할 수도 있다. 유전자 검사로 자신의 건

Treasure of Korea



보름달을 닮은 백자 - 달항아리

17~18세기 조선에서 제작한 높이 40센티미터 내외의 원형 백자 항아리를 달항아리라 한다. 보름달처럼 희고 둥글다 하여 근대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커다란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만들기 어려워서 동일한 크기의 사발 두 개를 위아래로 붙여 제작하다 보니 중간에 접합 부위가 있고, 좌우대칭이 약간 안 맞기도 한다. 고유섭·최순우 등 미술사학자는 달항아리에서 조선 도자의 미감을 찾았고, 김환기·도상봉 작가는 달항아리의 자연스러움에 매료되어 작품에 담기도 했다. 액체류 식 재료를 넉넉히 넣어 보관한 백자는 같은 시기 중국과 일본에는 없는 조선의 독특한 미의식이 반영된 기종(器種)이다. 넉넉하고 풍만한 달항아리를 바라보고 있으면 둥근 달이 절로 떠오른다. 추석이 있는 9월, 소원을 들어주는 보름달을 닮은 달항아리를 감상해 보자.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분청사기·백자실에서 만날 수 있다.

White Jars Resembling the Full Moon - Moon Jars

White porcelain jars were produced during the Joseon dynasty, specifically, from the 17th century to 18th century. They have a height of around 40 cm, and are called moon jars because of how they are white and round like the full moon. The jars tend to be slightly asymmetrical, and the connecting line comes from joining two hemispherical halves together. The full moon naturally comes to mind as you admire their round, refined bodies. With the Chuseok holiday taking place in September, how about making a wish upon the moon jars? They are part of the permanent exhibition in the Buncheong Ware and White Porcelain Gallery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 02-2077-9000 🌐 www.museum.go.kr

Hotel & Resort



모나파크 용평리조트 숲속 힐링 명소 '애니포레'

평창 모나파크 용평리조트가 '애니포레'를 개장했다. '애니멀 포레스트(animal forest)'의 준말인 애니포레는 자연과 동물로 마음을 치유하기에 제격이다. 이곳은 귀여운 알파카를 만나는 알파카 팜, 피톤치드가 가득해 기분이 절로 좋아지는 가문비 치유숲과 다양한 산책로, 포토 존 등 볼거리가 가득하다. 애니포레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다. 등산로와 모노레일을 이용하는 것. 모노레일로 이동하면 발왕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다. 단, 우천 시에는 휴장한다.

☎ 033-335-5757 🌐 www.yongpyong.co.kr



해운대 영무파라드호텔 9월, 카카오톡 친구 프로모션 진행

부산 해운대 영무파라드호텔이 가을을 맞아 공식 카카오톡 채널로 예약하는 고객에게 혜택을 선사한다.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전 객실 요금을 10퍼센트 추가 할인하는 데다 26층 레스토랑 씨엘로의 와인 무제한 프로모션 2인 무료 혜택까지 준비했다. 레스토랑 야외 루프톱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식사와 함께 관람하는 버스킹 이벤트를 연다. 영무파라드호텔 공식 카카오톡 채널에 '9월 KTX' 메시지를 보내면 이용 가능하다. 기간은 9월 30일까지.

☎ 051-743-0003 🌐 www.ymparade.kr



휘닉스 평창 BTS 촬영지 패키지 단독 출시

BTS가 누린 자연의 휴식을 휘닉스 평창에서 경험한다. BTS가 머무른 <인 더 숲: 우정여행> 촬영지를 휘닉스 평창 리조트 투숙객에게만 단독 공개한다. '인 더 숲 스테이: 휘닉스 평창' 패키지 예약 시 BTS 편 촬영지 입장권과 셔틀버스 이용권, 인 더 숲 스테이 전용 객실 숙박권이 주어진다. 웰컴 기프트, BTS의 웰컴 메시지 카드도 증정한다. 웰컴 기프트는 인 더 숲 캐릭터 수피(SOOPY)가 그려진 블랭킷과 슬리퍼, 파우치 등의 어메니티로 구성했다. 기간은 11월 30일까지.

☎ 1577-0069 🌐 www.phoenixnr.co.kr





Letters from Readers



〈KTX매거진〉을 보고 나서



자연의 빛 속으로, 삼척

강원도 삼척 이야기에 묘사된 계절이 좋았어요. 모래사장물 거닐다 물에 발을 담글 때의 시원함, 동굴을 탐험할 때 전해지는 서늘함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간접 체험도 이렇게 멋진데, 실제 삼척은 어떨까 기대됩니다.

이보는 경남 양산시동면



흥미진진 영주 선비세상

선비세상에서 오토마타 인형극을 한다는 기사를 읽고 요즘 기술이 정말 좋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방문객들이 전통과 디지털이 결합된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주에 가면 꼭 방문해 보고 싶어요.

이수현 부산시 금정구 팔송로

독자 편지를 보내 주세요!

〈KTX매거진〉을 읽은 소감과 독자님의 여행 사진을 기다립니다. KTX@seoulmedia.co.kr로 독자 평가 들려주고픈 이야기,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내 주세요(사진은 600KB 이상). 메일에 이름, 연락처, 주소를 꼭 기재해 주세요. 마감은 9월 15일입니다.

기차로 여행하면서



동생과 여행 가는 내내 함께 들를 곳을 찾고, 무얼 먹을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금방 강릉역에 도착했어요. 택시 기사님들의 친절함 도움과 추천으로 더욱 알찬 시간을 보냈지요. 풍경, 음식, 사람이 다 만족스러운 아름다운 여행이었습니다. 백선미 경기도 양주시 고덕로

독자 편지에 선정된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KTX매거진〉 독자 편지에 선정된 분께는 자연에서 온 100퍼센트 천연 유기물질 풀빅산을 함유해 두피 및 모공 관리, 탈모, 완화에 도움을 주는 '풀빅 헤어 샴푸 & 토닉 세트'(6만 4000원 상당)를 선물로 드립니다. 하수오 뿌리, 병풀, 창포 뿌리, 어성초 등 식물성 원료 6종이 들어가 예민해진 두피 건강에 도움을 주어 가늘고 힘없는 모발을 튼튼하게 해 주는 기능성 제품입니다.



제품문의 1522-9158



Information



제12회 철도사진공모전 수상작 '기차 지나간다!'



- 102 한국철도 소식
- 110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 112 열차 이용 안내
- 114 비상시 행동 매뉴얼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코레일을 부탁해'

행복한 열차 이용을 위해 한국철도가 고객의 아이디어를 받는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코레일을 부탁해'는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철도 운영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한다. 한국철도 홈페이지(info.korail.com) 공지 사항에서 아이디어 등록 메뉴에 의견을 작성해 등록하면 된다. 응모 기간은 9월 7일까지다. 아이디어는 실현 가능성, 차별성·독창성, 효과성 세 가지를 고려해 10건을 선정한 후 심사 위원회에서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우수 아이디어 응모자에게는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표창하고 운임 할인 쿠폰 등을 수여한다.

1



TV 속 간이역, 메타버스에서 만나요!

TV 프로그램과 SNS 속 간이역에 가고 싶지만 당장 떠나기 어려운 이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한국철도가 메타버스(3차원 가상 세계) 플랫폼 '제페토'에 기차역을 구축했다. 구현한 역은 서울역, 논산 연산역, 군위 화본역이다. 기차역을 재현한 3D 공간에서 주변 여행지, 안전 주의 사항 등 정보를 얻고 각 역에 특화된 체험도 해 본다. 제페토 앱을 설치해 해당 기차역을 검색하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가상 세계 속 기차역으로 입장한다.

2



방글라데시에 선보인 선진 철도 기술

한국철도 기술이 세계로 뻗어 나간다. 한국철도는 지난 8월 방글라데시 철도 대표단 10여 명을 부산 철도차량정비단 등에 초청해 차량 유지 보수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철도가 방글라데시 철도청과 맺은 컨설팅 용역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사인 현대로템이 초청해 일주일간 진행했다. 한국철도는 2018년부터 방글라데시와 기관차 구매·조달 사업 등을 비롯한 철도 사업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3



'서울역, 마음을 잇는 우체통'으로 희망의 편지 전하세요

한국철도가 '서울역, 마음을 잇는 우체통'을 운영한다. 서울역 3층 맞이방에서 승강장으로 이어지는 계단으로 가면 빨간 우체통이 보인다. 마음을 잇는 우체통은 철도 이용객이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편지를 통해 마음을 치유하자는 취지로 희망철도재단과 함께 설치했다. 우체통 옆 무료 엽서에 '나에게 보내는 편지'와 '너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를 선택해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면 2개월 후에 기재한 주소로 발송된다. 한국철도는 우체통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배달하는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4



'코레일톡' 승차권 결제 기한 조정

모바일 앱 '코레일톡'의 승차권 결제 기한이 20분에서 10분으로 조정된다. 코레일톡 간편 결제 확대, 자주 쓰는 카드 등록 등으로 결제 과정이 간소화되어 승차권 예매 소요 시간이 평균 90초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단, 열차 출발이 임박한 20분 전부터는 결제 기한을 5분으로 추가 조정한다. 출발 시각이 지나도 결제를 하지 않으면 승차권은 자동 취소된다. 한국철도는 고객 편의를 위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5



한국철도, 이웃에게 여름 나기 물품 지원

한국철도가 무더위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고자 지난 8월 한 달간 여름 나기 물품을 지원했다. 지원 물품은 냉방용품과 식품 키트 등으로,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고려해 전통시장과 각 지역 사회적 기업에서 구매했다. 한국철도는 '해피트레인 기차여행' '내일(Rail) 하우스' 프로그램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지역 밀착형 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나눔의 손길을 이어가는 중이다.

6



ALL THAT KORAIL SERVICE



해외로 나가는 가장 빠른길

광명역 KTX 공항리무진버스

광명역 KTX 공항 리무진 버스 가장 빠르게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길

공항으로 가는 동안 극심한 교통 체증으로 차 안에서 전전공공했던 경험은 이제 넘어 두자. 경기도 광명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단번에 달리는 '광명역 KTX 공항 리무진 버스'가 있으니. 27인승인 KTX 공항버스(6770번)는 광명역에서 출발해 약 50분 만에 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고, 약 25분을 더 가면 제2여객터미널에 닿는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광명역으로 돌아오는 노선도 제2여객터미널

제1여객터미널-송도 국제교-광명역 순으로 운영한다. 광명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승차권은 전국 철도역이나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구매 가능하고, 반대 노선은 인천국제공항 매표 창구나 모바일 앱 '티머니 고(go)'에서 구입한다. 송도 국제교는 광명행인 경우에만 정차하니 유의해야 한다. KTX 공항버스는 해당 정거장에 도착한 순서대로 탑승하는 자유석으로 운행한다.

제 13 회 철도 사진 공모전

철도와 함께한 아름다운 순간

8. 16. ~ 9. 14.



제12회 철도 사진공모전 수상작

· 공모주제

철도와 함께한 아름다운 순간

· 접수방법

한국철도 홈페이지(info.korail.com) 홍보센터의 공지사항에서 출품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다운 후 작성, 작품과 함께 압축하여 이메일 접수

Email : korailphoto@daum.net

- 자세한 사항은 공모요강 참조

· 접수기간

2022. 8. 16. ~ 9. 14. 18:00

· 시상내역

금 상 (1점) : 사장표창 및 200만원
은 상 (2점) : 사장표창 및 100만원
동 상 (3점) : 사장표창 및 50만원
입 선 (40점) : 20만원
특별상 (4점) : 15만원



친절 직원을 소개합니다



고객의 편지

안녕하세요. 지난 7월 4일 KTX 열차를 이용하던 중 심정지로 생명을 잃을 뻔한 승객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생명의 은인인 승무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승무원님들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급처치를 해주셨습니다. 또 역사 안으로 구급차가 들어오도록 협조해 주신 덕분에 아버지를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별다른 이상 없이 안정을 취하며 회복 중입니다. 승무원님들은 아버지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을 뿐 아니라 저희 가족 모두에게 아버지와 보낼 시간을 늘려 주신 은인입니다. 이번 일로 다시 한번 한국철도를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수 고속철도열차승무사업소 임병오 열차팀장

교육받은 대응 절차에 따라 열차 내 의료진 도움 요청 방송, 119 신고 후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지고 고객님의 있는 객차로 뛰어갔습니다. 먼저 응급처치를 하고 있던 승무원과 함께 자동심장충격기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어느 순간 고객님의 호흡이 돌아오는 것을 확인했지요. 지금 생각해도 참 다행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승무원들의 노력만이 아니라 구호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많은 고객님의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도움을 주신 분들께 지면을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코레일관광개발 용산지사 조형철 승무원

열차 승무 도중 특실에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는 호출을 받고 뛰어갔는데, 60대 초반 남성분이 맥박과 의식이 없는 상태로 쓰러져 계셨습니다. 4년 전에도 유사한 응급 상황을 경험했고, 기필코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재빨리 움직였죠. 그때의 기억과 주기적인 교육 덕에 고객님의 안전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한국철도를 이용하는 고객님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철도를 이용하며 기억에 남는 친절 직원이 있다면 한국철도 홈페이지(info.korail.com) 고객의 소리로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KTX 전체노선 그린카드로 예매 시 10% 할인

GREEN PASS (X)

FROM TO

그린카드 ▶ 친환경여행

DATE **09.15^{THU} - 09.30^{FRI}**

서울↔부산 노선
저탄소제품 인증

서울↔강릉 노선
탄소발자국 인증

참여 방법

- 1 행사기간 내 그린카드로 KTX 예매
- 2 횟수 제한 없이 그린카드 1매 당 최대 2만원 한도 할인
- 3 프로모션 기간 종료 후 익월 내 할인혜택 제공
*대상카드 : BC그린카드(GIFT, 법인카드 제외)

자세한 사항은 그린카드 누리집(www.ecomoney.co.kr)을 확인하세요.



교통편 걱정 없이 남원을 여행하는 새로운 방법, 자전거

전북 남원 자전거 여행 추천 코스



자전거RO 대여소

보증금 5000원으로 접이식 자전거 '미니벨로'를 빌려 남원을 달리지. 남원역 바로 옆에 있어 접근성이 좋다. 주요 여행지와 자전거 거처대가 자전거 길에 표시되어 찾기도 쉽다.



요천 자전거길

남원을 관통하는 하천인 요천을 따라가며 기분 좋은 바람을 맞는다. 가로수가 그늘을 만들어 뜨거운 햇볕을 막아 주고, 중간중간 쉼터가 있어 힘들 땐 쉬어 간다.



월매안길, 고샘길 벽화거리

아기자기한 벽화를 여유롭게 감상한다. 자동차를 탔다면 지나치기 쉬운 소박한 풍경이다. 각 길마다 그림의 테마가 달라 마음에 드는 담벼락 밑에 자전거를 세우고 사진을 찍는다.



남원다움관

남원 근현대 기록관으로, 박물관은 물론 카페·놀이 시설 등을 갖춘 복합 문화 공간이다. 입구 옆 자전거 거처대에 자전거를 보관하고 춘향 관련 영상을 관람하며 시대 의복 등도 체험한다.

기차와 자전거 타고 떠나는 낭만 남원 여행



자전거RO 남원 여행

뚜벅이·자전거 여행자, 남원을 천천히 곱씹고 싶은 이에겐 '자전거RO 남원 여행'이 딱이다. KTX 승차권과 자전거 1일 대여권, 자전거 여행 앱을 아우르는 자유 여행 상품으로 출발일 기준 4일 전까지 예약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철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자.

어드바이크



자전거 여행이 걱정스럽다면 모바일 앱 '어드바이크'를 추천한다. 콘셉트, 난이도별로 남원 자전거 여행 코스 16개를 안내해 준다. 코스 따라가기 서비스를 선택하면 더 쉽게 길을 찾아갈 수 있다. 라이딩 정보도 앱에 기록되니 다음 남원 여행도 문제없다.

문의 한국철도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02-2678-7723(한국철도 영등포역 여행센터)

남원, 자전거로 이곳에도 갈 수 있어요!



광한루원

전북 남원시 요천로 1447
(자전거RO 대여소에서 15분 거리)



춘향테마파크

전북 남원시 양림길 43
춘향문화예술회관
(광한루원에서 9분 거리)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전북 남원시 함파우길 65-14
(춘향테마파크에서 7분 거리)



남원모노레일

전북 남원시 소리길 86
춘향 스테이션
(광한루원에서 9분 거리)

편의 시설

일반 객실

Passenger Compartment

좌석 간격
Seat Space



KTX
930mm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이동통신망
Free Wireless Internet Service



열차 내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전용 콘센트&USB 포트
Socket&USB Port



열차 내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실 서비스

First Class Service

좌석 간격
Seat Space



KTX
1120mm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식음료
Refreshment



특실 이용객을 위한 셀프 서비스
물품은 KTX 3, 4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에 있으며
특실 생수 자판기는 KTX
3, 4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KTX 미니 도서관
KTX Mini Library



단행본은 KTX 4호차와
KTX-산천 3, 13호차,
잡지-신문은 KTX 3, 5호차와
KTX-산천 3, 13호차 지정
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부가 서비스

KTX 셔틀버스 8507번 길라잡이

- ※ 사당역-광명역 간 직통 운행
사당역 탑승 시 사당역 4번 출구 →
광명역 3-1 출구
광명역 탑승 시 광명역 3-1번 출구 →
서울대학교 → 서울대입구역 2번 출구 →
낙성대역 4번 출구 → 사당역 4번 출구
- ※ 운행 시간 오전 5시-자정(광명역 출발 막차
밤 11시 30분)/배차 간격 10-15분
- ※ 대중교통 환승 할인 수도권 통합 환승을
적용해 기존 버스타 전철 이용 시 할인 가능
- ※ 비용 절감 서울역과 비교해 광명역에서
KTX를 이용하면 2100원 절약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길라잡이

- ※ 탑승 수속
이용 시간 오전 6시 30분-오후 7시
탑승 수속 마감 항공기 출발 3시간 전
(대한항공 항공기 출발 3시간 20분 전)
수속 가능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서울, 이스타, 에어부산
수속 가능 노선 인천국제공항 출발
국제선 전 노선
- ※ 출국 심사
이용 시간 오전 7시-오후 7시
출국 심사 탑승 수속을 마치고 출입국
사무소에서 사전 출국 심사 가능

※ 코로나19 여파로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운행을 중단합니다. 운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KTX 특송

급송이 필요한 고객의 화물을 KTX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서비스입니다. 배송품은 주요
고속철도역에서 접수하며, 역 간 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급역 서울, 용산, 광명, 천안아산, 오송, 대전,
동대구, 부산, 익산, 전주, 목포, 광주송정,
여수엑스포, 포함 문의 1544-7781

AMENITIES

편의 시설

Amenities

화장실
Restroom



KTX 1, 2, 4, 6, 8, 11, 13, 15, 17,
18호차와 KTX-산천 3, 5, 6, 8,
13, 15, 16, 18호차와
KTX-이음 1, 6호차와
ITX-새마을 1, 4, 6호차와
ITX-청춘 3, 6호차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시설
For the Handicapped



전동휠체어석과 장애인용
화장실은 KTX 2호차와
KTX-산천 1, 11호차와
KTX-이음 3호차와
ITX-새마을 3호차와
ITX-청춘 3호차에 있습니다.

수유실
Breast-Feeding Room



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수유실이
KTX 8, 16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와
KTX-이음 4호차와
ITX-새마을 6호차와
ITX-청춘 6호차에 있습니다.

물품 보관소
Luggage Storage Section



각 객차에 위치한
승강대에
여행용 가방 등 큰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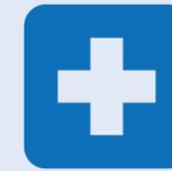
자동심장충격기는
KTX 4, 10, 15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와
KTX-이음 3호차와
ITX-새마을 3호차와
ITX-청춘 3호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동판매기
Vending Machine



음료 및 스낵 자판기가
KTX 5, 9, 11, 13, 16호차와
KTX-산천 2, 6, 12, 16호차와
KTX-이음 3, 4호차와 ITX-새마을
3, 4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의약품
First-Aid Medicine



KTX 열차 내에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어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필요한
약품을 제공합니다.

금연
No Smoking



역승강장과 열차 안은
모두 금연 구역입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과 건강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열림 버튼
Open-Button (1mins)

1분 열림 버튼
The Button to Open the Door for 1 Minutes
객실 출입문 위쪽에 위치하며 누르면 1분 동안 문이 열립니다.

OPTIONAL SERVICES

KTX 공항버스 (6770번, 광명역↔인천국제공항)



운행 시간 오전 5시 30분-오후 8시 30분
(광명 기준, 30-40분 간격)
소요 시간 (T1 → 광명역) 약 50분,
(T2 → 광명역) 약 75분
타는 곳 (광명역) 서편 4번 출구 4번 정류장
(인천국제공항) T1 1층 8B번, T2 지하 1층 45번 정류장
승차권 구입 전국 기차역, 코레일톡 등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길라잡이

Rail+

철도 회원이 KTX 승차권을 Rail+카드로
구매 시 1퍼센트 추가 적립,
모바일카드는 KTX 모바일지정 전용 사용 가능

- ※ 교통카드 구매처 편의점 CU, emart24, 스토리웨이
- ※ 모바일카드 다운로드 '레일플러스' 스마트폰 앱(Android, iOS)
- ※ 사용처 전철, 버스, 기차, 택시, 유료도로, 편의점 등
- ※ 충전처 전철·기차역, 편의점(CU, emart24, 스토리웨이) 등
- * 자세한 내용은 레일플러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종류



대중교통안심카드 하이패스 R+ 교통카드



railplus.korail.com
QR코드를 스캔하면
레일플러스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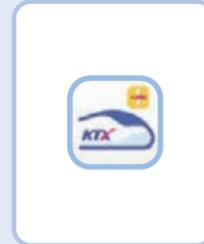
열차 이용 안내

승차권 구입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코레일톡은 열차 출발 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결제 금액 5만 원 이상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 후 스마트폰 승차권, 홈티켓으로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letskorail.com)



'코레일톡'
스마트폰 앱



승차권
자동 발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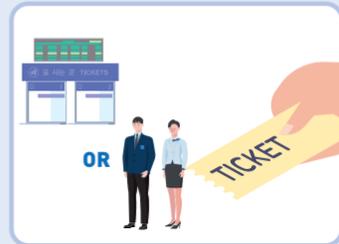
기차역 내 창구
또는 승차권 판매 대리점



'네이버' '카카오 T'
스마트폰 앱

승차권 분실

- 회원번호,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금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입석과 자유석 승차권, 분실한 승차권이 변경 또는 반환된 경우, 재발행한 승차권을 반환 또는 변경하거나 도착역 전에 내린 경우 승차권 반환 불가능



역 창구, 열차승무원에게 운임·요금을
다시 지불하고 분실한 승차권 재발급



열차승무원에게 분실 승차권
미사용 확인 요청



역 창구에서 승차권 금액 반환
(최저 반환 수수료 제외)

승차권 반환

- 승차권 반환 시에는 환불 청구 시간,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 시간 및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구분	출발 전		
	1개월~출발 1일 전	당일~출발 3시간 전	3시간 전 경과 후~출발 시간 전
월~목요일	무료		5%
금~일요일, 공휴일	400원(구입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5%	10%

구분	출발 후(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		
	20분까지	20분 경과 후~60분	60분 경과 후~도착
월~목요일			
금~일요일, 공휴일	15%	40%	70%

PASSENGER GUIDE

Ticket Booking

- Tickets can be purchased one month in advance and up to 20 minutes before departure (before departure in KORAIL Talk application).
- Installment option available if paying more than KRW 50,000 by credit card.
- Tickets issued as smartphone ticket or home ticket after payment.



Let's KORAIL Website
(letskorail.com)



KORAIL Talk
Mobile App



Ticket Vending
Machine



Ticket Booth
or Ticket Retailer



NAVER · KAKAO T
Mobile App

Ticket Loss

- Refunds may be provided for ticket purchases made using the KORAIL membership number or a credit card.
Not applicable to standing tickets, change of lost tickets, change of reissued tickets, and unused sections from alighting before the destination station.



Pay fees at the ticket booth
or to the on-board crew to
reissue your ticket.



Check with the on-board crew that
your lost ticket is unused.



Receive a refund for your lost
ticket at the ticket booth.
(excluding service charge)

Ticket Re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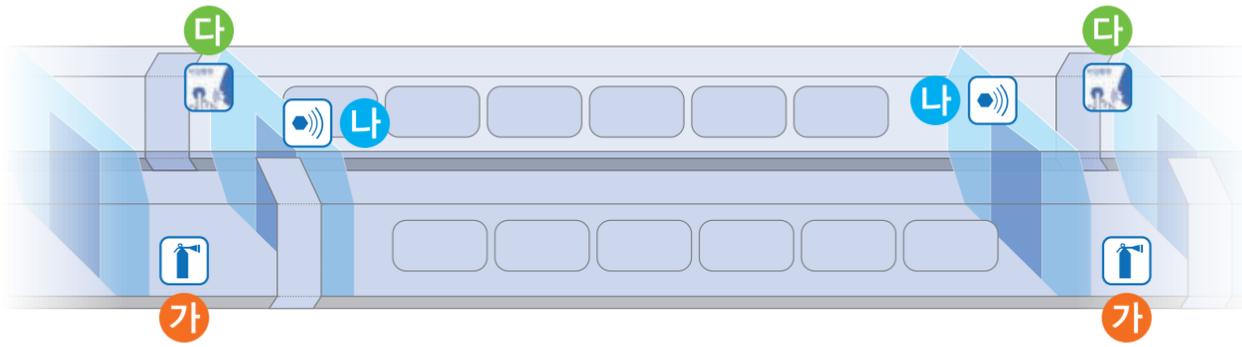
- Ticket refund value is calculated based on the time of refund claim, departure time specified on the ticket, and original price of ticket on the receipt. Note that a service charge applies.

Classification	Before Departure		
	1 month – 1 day prior to departure	Day of departure – 3 hours prior to departure	3 hours – before departure time
Mon-Thu	Free		5%
Fri-Sun, holidays	KRW 400 (Free within 7 days from date of purchase)	5%	10%

Classification	After Departure (Request refund at ticket booth)		
	Up to 20 minutes	20 – 60 minutes	60 minutes – arrival time
Mon-Thu			
Fri-Sun, holidays	15%	40%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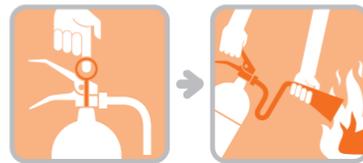
비상 상황

EMERGENCY PROCED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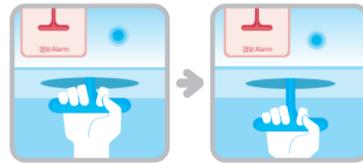
가 소화기 사용 요령 How to Use a Fire Extinguisher

- 승강문 옆 수하물실 아래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안전핀을 뽑는다.
Take out the fire extinguisher from the box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pin.
- 불이 난 장소에 골고루 분사한다.
Spray evenly at the area that is on fire.



나 비상알림 장치 Emergency Ala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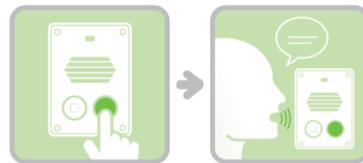
- 객실 내부 출입문 상단의 적색 손잡이를 아래로 당긴다.
Pull down the red emergency alarm handle located at the upper part of the interior door.
- 비상 경보음이 객실 전체에 울린다.
The emergency alarm goes off.



다 승무원통화장치 Contacting the Train Crew

KTX | KTX 산천 | KTX 이음

- 승강문 옆의 버튼을 누른다.
Press the intercom button next to the exterior door.
- 승무원이 응답하면 상황을 알린다.
Notify the train crew of the sit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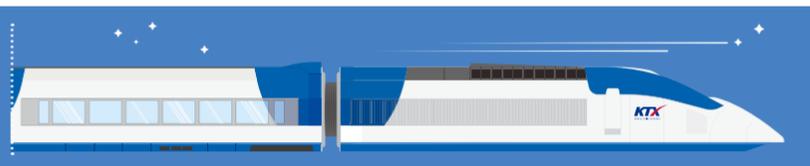


itx 새마을 | itx 정준

- 승강문 옆 또는 객실 안에 있는 승객용 비상 호출기 커버를 연다.
Open the emergency intercom box beside at the door or inside the car.
- 마이크를 꺼낸 후 적색 램프가 켜지면 마이크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상황을 알린다.
Take out the microphone. Once the red light is on, press the button on the left of the microphone and inform the sit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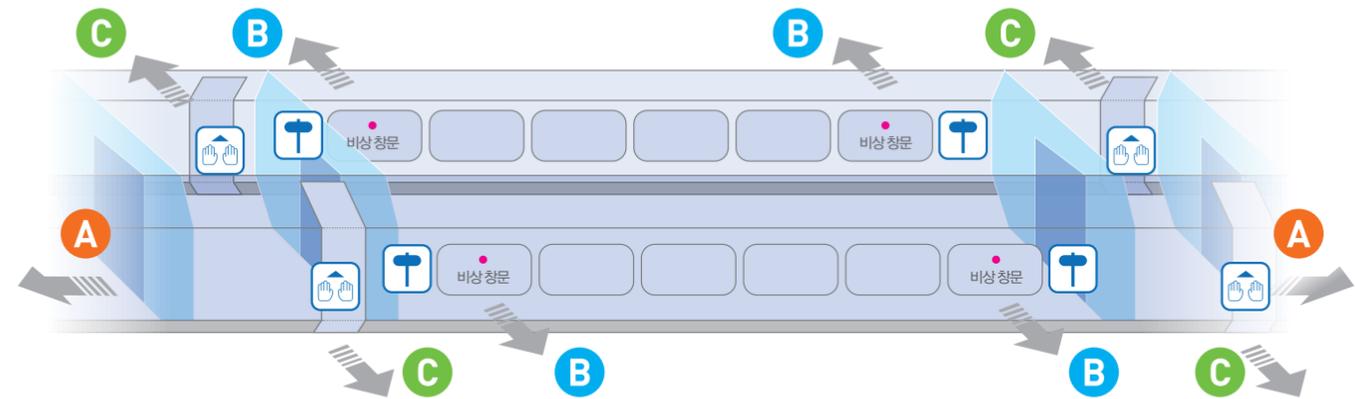


QR코드를 스캔하면
기차내 설비 사용법과
비상시 행동 요령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 탈출

EMERGENCY ESCAPE ROUTE



A 다른 객차로 대피 Escape to an Unaffected Car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객차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부상자, 노약자, 임산부가 먼저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Follow instructions of the train crew and move to an unaffected car. Provide assistance to evacuate wounded, elderly people and pregnant women first.

A 터널 탈출 요령 Escape from a Tun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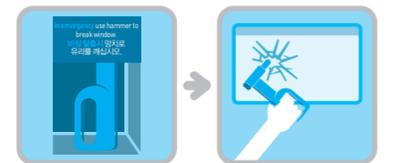
터널 내 비상사태 시 자세를 낮추고 비상 유도등을 따라
가까운 터널 입구로 탈출한다.
Follow the emergency exit light to go out the tunnel exit.

A 비상사다리 위치 Emergency Ladder Location

KTX: 5호차, 14호차 | KTX-산천: 2호차(일부 편성 4호차)
KTX-이음: 1호차, 6호차 | ITX-새마을: 4호차

B 비상창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mergency Window

- 승강문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객실 양쪽 끝에 있는 비상 탈출 망치의 보호 커버를 깨고 망치를 꺼낸다.
If you cannot escape through the exterior door,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hammer box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take out the hammer.
- 양 출입문 쪽에 있는 비상 창문 유리를 망치로 깨고 옷으로 창틀을 덮은 후 그 위로 나간다.
Break the emergency window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exit. Put clothing over the windowsills to protect yourself from broken glass.



C 승강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xterior Door

KT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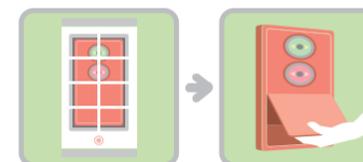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rs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upper handle down.
- 아래 손잡이를 앞으로 당기고 승강문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ower handle down and push the door.

KTX 산천 | KTX 이음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l next to the exterior door.
- 핸들을 2회 당기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handle twice and push the door.

itx 새마을 | itx 정준

- 승강문 옆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emergency door release box.
-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ever to the right. Push door forward and to the side.



Epilogue



위스키♥규보

술에 대한 놀라운 사실이 있다. 술은 마셔도 취하지만 술에 대해 쓸 때도 취한다. 이달에 '위스키 인사이트' 기사를 작성하면서 점점 몽롱해지는 것을 느꼈다. 갈수록 혼미해진 끝에 거의 만취 상태에 이른 것 같은데, 실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은 신들린 듯 날뛰었다. 도무지 제어할 수 없어 써지는 대로 내버려 뒀다. 원고를 완성한 뒤에는 결승선을 통과하고도 관성 때문에 계속 달리는 스프린터처럼 한동안 손가락이 춤을 추었다. 숙취 해소제를 마셔야 할까. 기묘하도록 뻑적지근한 기분이 물려왔다. '위스키 인사이트' 기사의 알코올 도수는, 글썽... 물로 희석하지 않은 캐스크 스트렝스(CS) 위스키 제품군과 유사한 60도 정도? '편집 후기'를 쓰는 지금 또한 취기가 오르고 있다. 이쯤에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술에 대해 쓸 때 취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술 한 방울 없이 취할 수 있는 불가사의한 신인류 호모알코올미스터리우스의 시조입니다. 아무튼 다음 '위스키 인사이트'에 쓸 위스키를 이미 구입해 모셔 두었다. 마시고픈 마음 꼭 누르며 하루하루 버티는 중이다. 그러나저러나 손가락이 날뛰기 시작한다. 어찌나. 김규보



아는 맛이 최고의 맛

여행에서 얻은 힘으로 다음 여행을 한다.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괴롭다고 하는데, 적어도 여행만은 예외이지 않을까. 9월 초 경북 영주 '테마 여행' 취재를 앞두고 3박 4일의 짧은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목적지는 심지어 영주와 같은 경북 지역인 울진과 영양이었다. 첫날엔 울진 앞바다가 창문 가득 펼쳐진 전망 좋은 숙소에서 원 없이 쉬었고, 이튿날엔 금강송 군락지를 거닌 뒤 물 좋다는 덕구 온천에서 몸을 풀었다. 사흘째에는 영양 국제밤하늘보호공원 안에 자리한 반딧불이천문대에서 맨눈으로 은하수를 봤다. 요르단 와디 럼에서 밤을 보냈을 때도 만날 수 없던 은하수거늘. 마침 초하루, 월삭이라 가능한 일이었다. 문득 이 광활한 우주에 영문도 모른 채 태어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외롭게 느껴졌는데, 때마침 내 오랜 연인이 손을 꼭 잡아 주어서 간신히 마음을 다잡았다. 여행 최후의 만찬은 앞서 이곳을 취재한 현정 선배가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운 곱창 주물럭이었다. 입 짧은 선배의 추천이라 믿고 가긴 했지만, 기대 이상이었다. 미지의 세계에서 내가 아는 맛, 아는 곳, 아는 감각이 늘어간다는 사실은 묘한 위안을 준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서 여행을 떠난다. 강은주



가을을 기다리는 털 뭉치들

9월호를 제작 중인 8월입니다. 8월은 강아지들이 더위로 힘들어하는 달입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털 뭉치 친구들이 있습니다. 올해로 열두 살이 된 개 '슈'와 최근에 가족이 된 네 살 개 '몽'입니다. 두 친구 모두 흰색 털을 가졌어요. 슈는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여름엔 꼭 피부병에 걸립니다. 알아보니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여름이 시작되면 항상 미용을 합니다. 그때부터 미용 대소동! 짧게 털을 자른 슈가 어찌나 귀여운지, 꼭 강아지 같습니다. 힘듦은 주인의 몫이지만요. 몽이는 이중 모라서 털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너무 덥지 않도록 미용 가위로 털을 정리해 주고, 매일 저녁 빗으로 털을 빗는 '씩씩타임'도 빼먹어선 안 됩니다. 팔이 아플 때까지 털을 빗겨 주고 난 뒤에는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잠이 든 몽이를 볼 수 있지요. 물론 바스락 소리가 날 땀 뻘뻘 일어납니다(간식 없는데...). 아무튼 이 친구들에게는 여름 나기가 고역일 겁니다. 아마 모든 강아지가 가을을 손꼽아 기다리겠지요? 독자님들의 털 뭉치 친구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털 뭉치 친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애, 너도 가을을 기다리고 있니?" 남혜림

2022 광명동굴 대한민국 와인 페스티벌

한국 와인 광명을 찾다!
9.30.(금) ~ 10.3.(월)



광명동굴 빛의광장
GWANGMYEONG CAVE KOREAN WINE FESTIVAL

KTX

바로 지금, 여행

영월

시와 별을 만나는 곳



온라인에서도
<KTX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